

제 43 책
제 41 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추징금

구공판

증거기록 (병재)

검찰	사건번호	2021년 형제 47137호, 47060호, 48255호, 48313호, 50855호	법원	사건번호	고합, 단 호
	검사	김익수		판사	
피고인	구속 1. 가.나.마. 유동규 구속 2. 나.다.라.바.사. 김만배 구속 3. 나.다.사.아. 남욱 4. 나. 정영학				
죄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뇌물공여약속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제기일	2021. 10. 21. 2021. 11. 01. 2021. 11. 22.				
신병	1. 2021.10. 3. 구속 (2021.10. 1.체포) 2.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3.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4. 불구속	석방			
변호인	별첨참조				
증거물	있음				
비고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 1. 20일, 2. 19일, 3. 22일, 4. 없음				

[별첨첨부]

번호인	유동규 : 김만배 : 남 옥 : 정영학 :
-----	----------------------------------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별책 3-1 권]

수 사 사 건 기 록

사건번호	2021 형제 47137호 등	주임검사	김익수
피고발인	김만배 외 17명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단 서	직고발		
접 수	2021. 9. 28.		
구 속	불구속		
석 방			
증 거 품	없음		
비 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1. 9. 27.

수신 주임검사 김익수

제목 수사보고[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사본 별책 첨부 보고]

- 정영학이 2021. 9. 26. 변호인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우리 청에 자진 출석하여 임의 제출한 녹취록을 사본하여 별책으로 첨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정영학이 2021. 9. 26. 박환택 변호사와 같이 자진 출석하여 본건에 관해 진술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수사 협조를 위해 본인(정영학)이 갖고 있던 ① 녹취록 6권, ② 그 녹음파일이 있는 녹음기 3대(케이스 포함), ③ 같은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 ④ 사건요약서(사본) 1부를 임의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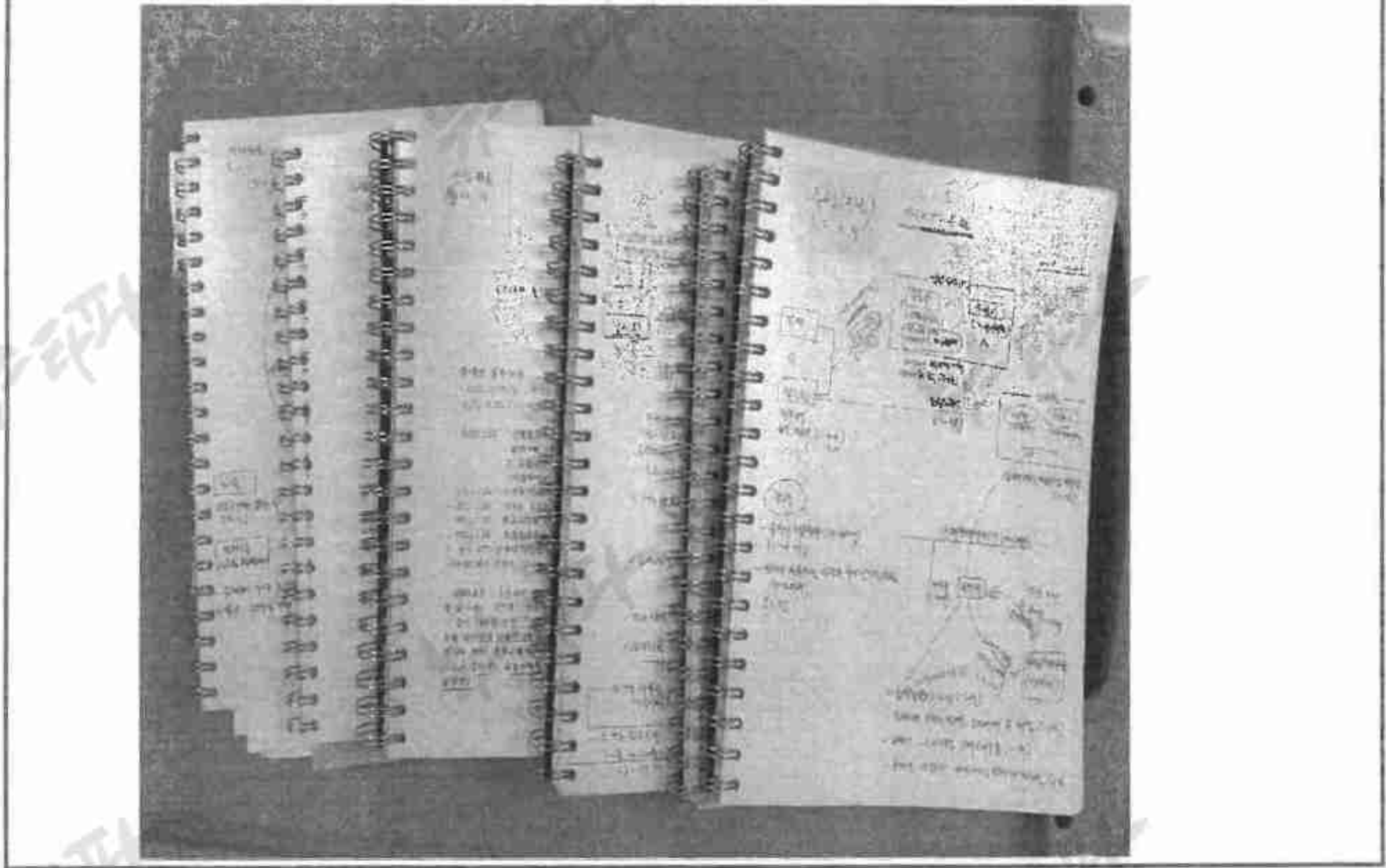
- 임의제출자 : 정영학

- 임의 제출물 : 녹취록 6권, 녹음기 3대, USB 1개, 사건요약서(사본) 1부

- 임의 제출 일시 및 장소 : 2021. 9. 26. 15:55경, 서울중앙지검 604호 검사실

- 본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임의제출물 중 녹취록 6권을 사본하여 별책으로 첨부하였음

정영학 임의제출 녹취록 6권



< 침 부 >

1. 녹취록 6권 사본 1부. 끝.

2021. 9. 27.

위 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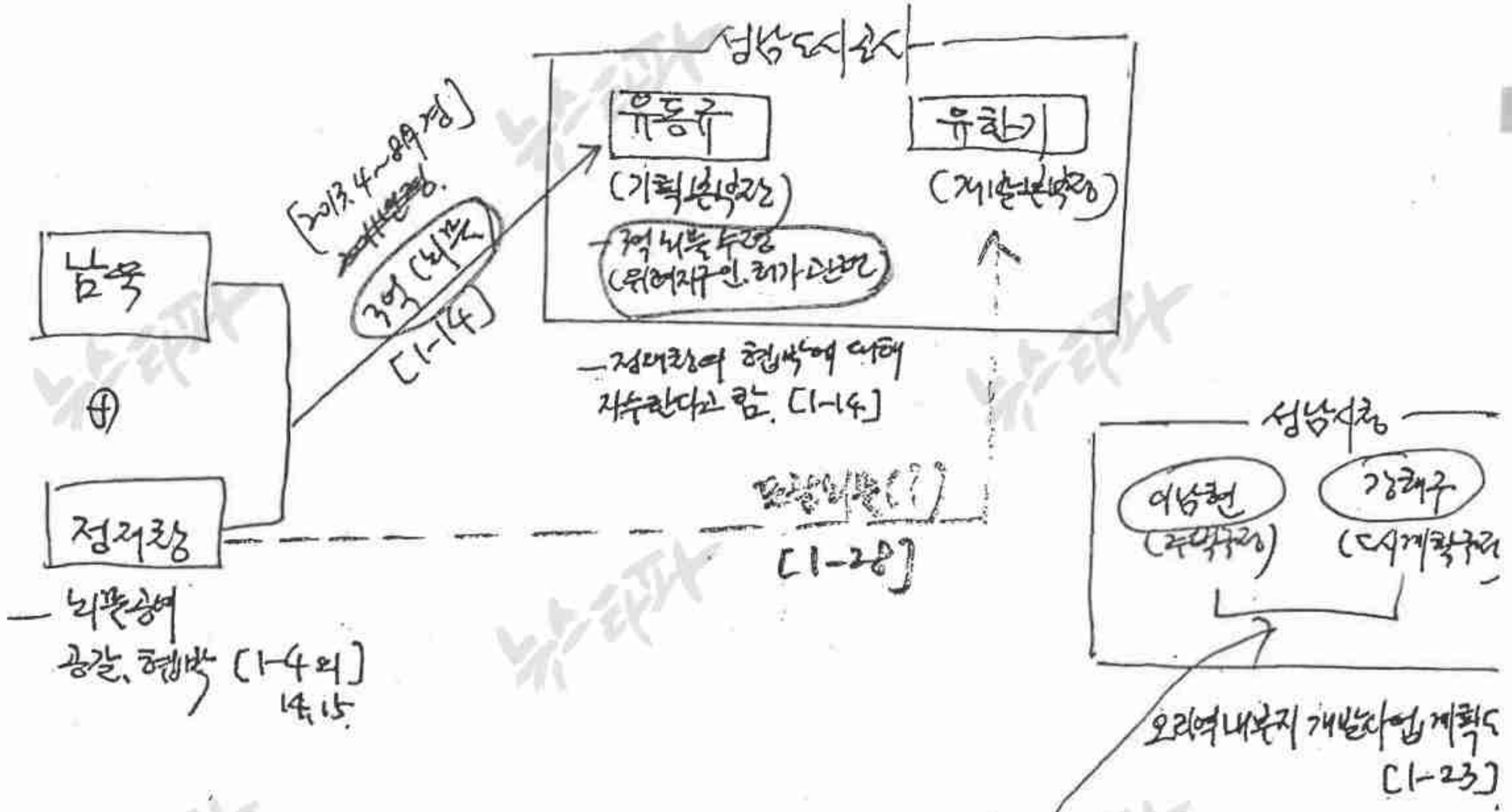
검찰주사 오

수정(원본)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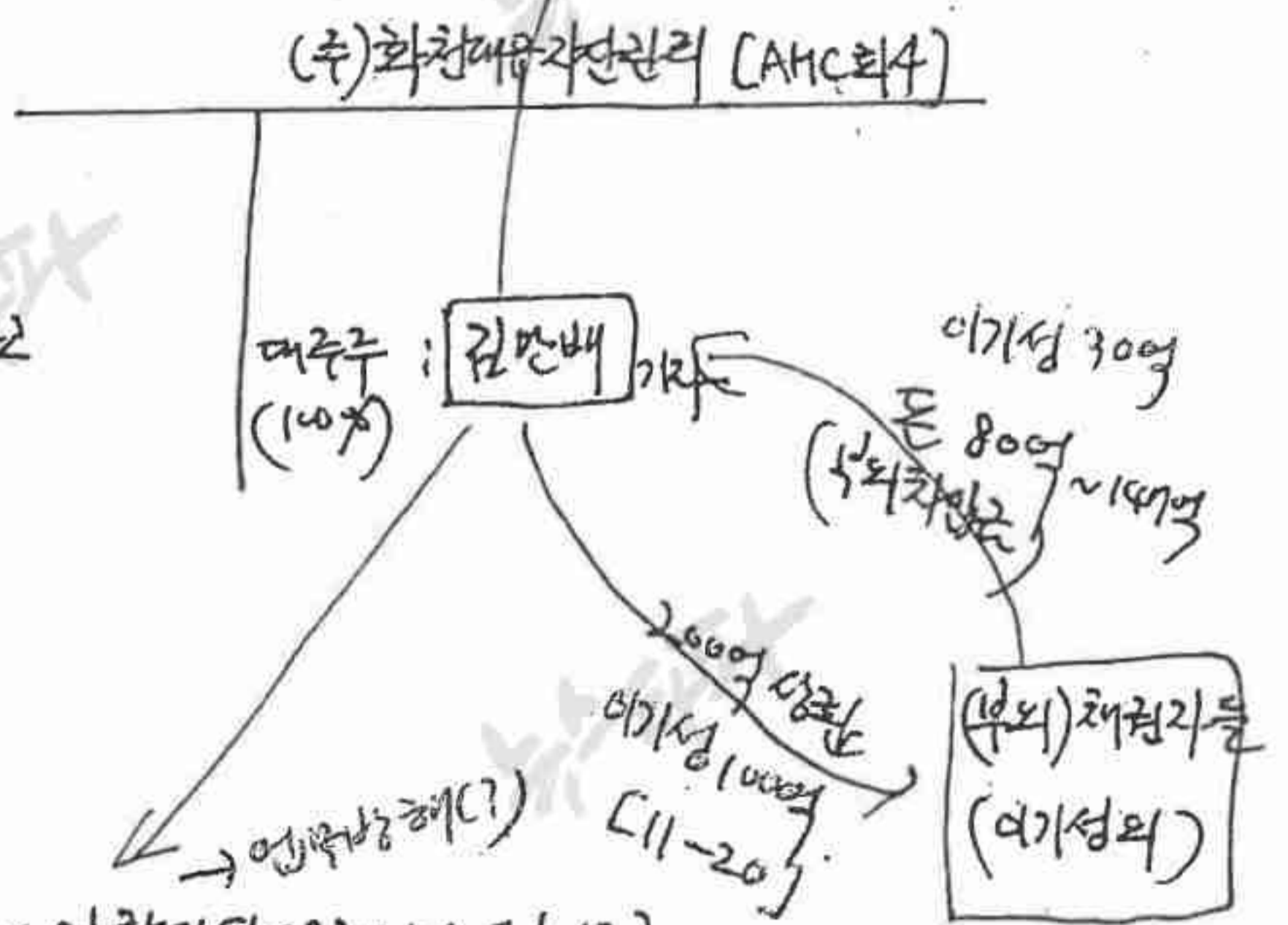
차(은약) 수정본

2019. 12. 23



경영상

- 유한기 리셉하라 (by 김민배) [1-28, 29]
- 밤마다 외출하면 다치고, 죽는다. 미행양라고 (by 김민배) [1-31]



- v. 양권양권(?) 7년 [1-13]
- v. 정리청은 유한기 퇴계로 김민배에게 돈 유출함 [1-16]
- v. 유한기 ~ 은구하면 김억보야 함 [1-30]
- v. 유한기 내 안에서 이야기 제너리 말라 (by 김민배) [1-16]

1차 (특정)

- 녹음일시 : 2019. 12. 23. 16시경
- 녹음장소 : 서초동 소재 오버나이트 카페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김 만 배 어, 왔구나.

정 영 학 아 예, 형님.

김 만 배 언제 왔어?

정 영 학 지금 왔습니다. 지금.

김 만 배 지금 왔어?

정 영 학 뭐 드실랍니까?

김 만 배 아니, 내가 낼게.

정 영 학 아니, 제가 할게요. 연하게?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예.

(커피 주문) 커피 연하게. 커피 연하게 하나만 주세요.

종 업 원 커피 따뜻한 걸로 라이트로 드릴까요?

정 영 학 네, 연하게.

종 업 원 네. 현금 결제해 드릴게요. 포인트 있으세요?

정영학 2362.

종업원 2362번이요. 조춘식님 맞으세요?

정영학 아..

종업원 2362번이요. 드시고 가지죠?

정영학 예.

종업원 불러드릴게요.

정영학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왔습니다. 지금.

김만배 지금 왔어?

정영학 요 그냥..

김만배 복장 좋다.

정영학 예?

김만배 복장 좋아.

정영학 요거 아예 들지도 않았습시다.

김만배 아니 아니야. 먹어. 먹어. 나는 (..)

정영학 예.

김만배 재창이가 (..)

정영학

정영학 아, 예.

김만배 솔직히 너 영학이가 너를 배려 안했다는데,

정영학 아, 예. → 부충증권 박정준 [대장동 공모당시 상대방 권역사업회]

김만배 너 박정준이한테 있었고, 형한테 와서 협박하지 않았냐.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정영학 그런데 영학이가 임마, 이 이자율하고, 그거 더 주고 너 넣어준 건데, 우리 사실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지마는, 짜냈었다.

정영학 아 참, 자기가 모든 걸 받아봤는데 그때까지 아니래. 아니야. 개네들 속이느라고 그랬지.

정영학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기업은행은 막판까지..

종업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정영학 네. 그때 형님, 기업은행은 형님은 (...) 있을 때요 "야, 배" 그래갖고,

김만배 그래~

정영학 빼고 작업을 했고. 그때 어차피 동양 들어와 있고, 대구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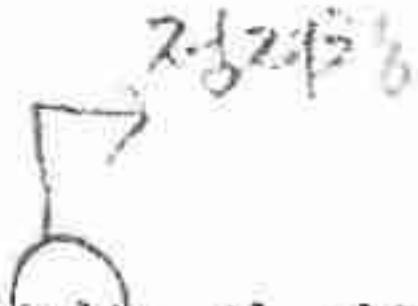
김만배 그래, 그건 내가 했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랑 영학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영학 제가 약속..

* 13화 - 36화
- 정영학이 가려온 이라판 자원은 김만배가 고의적으로 이용함.

정민용



김 만 배

'너는 일 걸두리였고, 이 새끼야 형한테 와서 민결이가 어땠고, 민용이가 어땠고 협박하고. 너는 걸두리였지. 그런데 영학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응? 나는 너가 말하는 게 2억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학이 아무리 알미워도 이 새끼야 내가 내 입장에서 알미운 건 알미운 거고, 했던 얘기는 해줘야지'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많이 이해해주고 갔어.

정 영 학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습을 해야.. 안 그러면..

김 만 배

니가 너무 적군하고 처음에 붙어 다녀서 그래

정 영 학

죄송합니다.

김 만 배

그래가지고 저놈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지.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적당히 해. 그만큼이면 됐지.' 응?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뭐 한놈만 패졌다는 그딴 소리나 하고. → *10차 61쪽

정 영 학

하하하.

김 만 배

그게 팩트인 거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야 이 새끼야, 나도 모르는 얘기를 와서 니가 나한테 협박해대는데, 내

정영학

가 그러면 위협을 느끼지.'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내가 알어?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정림이하고 얘기를 하고, 민걸이 얘기를 해? 나는 돈 줄 거 없는데'

정영학 하하하. 그렇죠. 형님하고는..

김만배 그렇지. 나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나한테 와서.. 응?

정영학 아니, 정재창이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김만배 아니, 옛날에 했다 이거지.

정영학 그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한 거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

정영학 예..

김만배 너도 접근해서 빨리 빨리 얘기를 해.

정영학 예..

김만배 '영학이가 (너) 받아들일라고 그 이자율 그걸 상대로 그냥 (...)'
아, 우리 이미 알고 있었대.

=> 3쪽참조.

정영학 형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가요, 이미 이자율 보고서에, 파일에 이렇게 초안 만들어놓은 날짜도 있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보면, 뭐 기껏.. 2,3일 전이라고 밝혀졌다고 하지만, 실제 한달 전에 이미 2.5로 돌려서 작업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김 만 배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덜 지랄할 거야. 너도 확고하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니네들하고 사업 안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남양주도 니가, 영학이가 먹거리를 뭐 준대느니 어찌느니..
야, 내가 니네들 그렇게 하면 사업 할 것 같니? 새끼야 하지. 나는 안해,
새끼야. 응?

정 영 학 하하하.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래서..

→ 장례식

정 영 학 보니까, 저는 적당히 스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좀.
그런데 마지막에 커피빈에서 자기가 천역을 벌 수 있었는데 양보했다 하
길래, 아 여기서 끝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던지는 거는 뭐가 좀 더 해보
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김 만 배 내가 정리 많이 해봤으니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정 영 학 괜히 저 땀에..

김 만 배 그래서 내일 간다고 그러더라고.

정 영 학 예..

정재창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너 (...) 어디 뭐 한다고 그랬잖아, 새끼야. 그런데 너 없어도 돼. 너 줄 건 새끼야 그 주유소 주면 씨팔놈아 계약 안 하겠니?' 내가 그랬어. '너' 그냥 끼어줄라고 하는 거지. 애들도 다 알아. 응? 그런 얘기를. 애들이 모르겠냐? 응?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강짜를 부리냐' 내가 그랬어. '품격 있게 해라'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형님 말은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김 만 배 '그리고 영학이한테도 영학이를 기다려주고, 더 느긋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새끼야, 니가 영학이한테 돈 맡겨놨냐'

정재창

정 영 학 감사합니다. 하하하. 애가 집요한 게 있어갖고. 아유~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굳이 그 일은 서로 상호 신뢰조항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어. 밝히면 다 (...)으로, 육이는 주주 보상인데, 영학이는 주주 보상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영학이는 주식비율이 니가 예상하기에는 뭐 뭐 비스무리한데, 니가 그거에 대해서 반이든 얼마든, 나는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차병원이하고 있는 사람들 쥐야 될거다. 응?

그런데 개도 고객들 문제 때문에 밝히지 않을 거야. 그냥 밝혔다가는 너도 저기해. 피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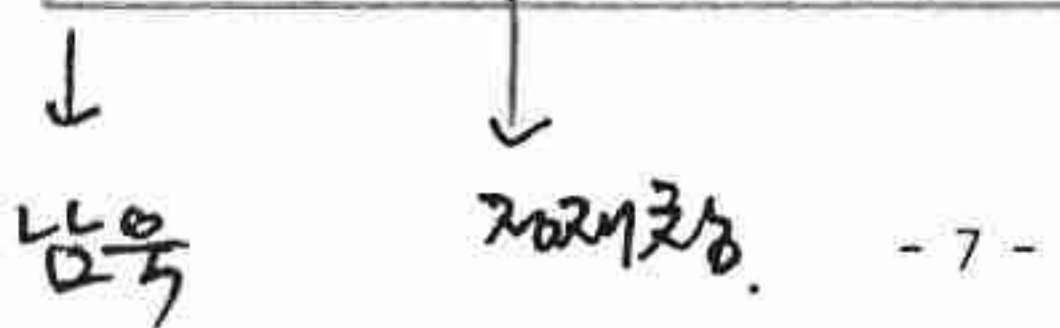
그러니까 너도 날려.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육이는 지금 재창이가 던진 남양주 그 카드에 뿔 가 가지고..



정영학 예, 그거를 되게 좋게 보나 봅니다. 육이는.

김만배 육이? 개가 뭘 아니?

정영학 이제 육이 이야기는 해줄 거 아니냐. 제가.
그런데 제가 무슨 그런..

김만배 그건 딱 하나야.

정영학 네..

김만배 너랑 재창이 사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든가,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면 너랑 재창이 둘이 손잡고 하라고.
재창이가 자꾸 우기면, 니가 끝까지 마무리하자고 그러면 둘이 같이 합시다 해. 그래야지 건너뛸 수 있어.
요새 아주 그냥 귀공자 같이 됐어. 영학이.

정영학 저요?

김만배 응.

정영학 아닙니다. 그냥 뭐 배는 나오고..

김만배 나는 안할 거야. 나는 오리역, 우리 돈 모이기 시작하면 오리역 계약할 거야.

정영학 저기 뭐 그..

김만배 그러니까 형은 남양주 절대, 절대 알려주지 마.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절대 하지 마.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생각이..
옛날에야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쟁력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아는 상태입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지금은 큰 테들, 진짜 큰 테들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뭐 수습 잘 해주셔서..

김만배 내가 일부러 만나자고 그러면.. 기다렸더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맨날 만나면 하루 종일 물만 마셔대니까, 남서울
에 가서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 와라' 그래서 한 10분 연습했더니
왔어. 10분 연습하고.

정영학 제가 싸움을 못합니다.

김만배 뭔 약점을 잡혔길래 그래?

정영학 약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뭐.. 아니 뭐, 약점이라 할 만한 건 특별
히.. 그냥 뭐.. 제가 피해서 그렇죠. 싸우기가 불편하니까.
괜히 형님이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김만배 어디로 가냐 이제?

정영학

27일날 베트남. 그다음에, 들어와서.. 저는 19일인가 들어옵니다. 시골 갔다 와서 22일날 호주.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 북섬, 남섬, 호주 해가지고..

김만배

요새 화산 폭발했다는데.

정영학

거기 피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김만배

산불은?

정영학

피해서. 호주 예약을 해놔갖고.

김만배

취소 (...)

정영학

아, 취소합니까?

김만배

응. 내가 아는 사람들 뉴질랜드 (...)

정영학

둘째가..

김만배

호주도 (...)

정영학

예. 셋째가 하반기 때 간다고. 애는 미국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둘째는 뉴질랜드 보내주면 복학한다 해갖고, 조건을 걸어서 보내줄게.

김만배

첫째?

정영학

둘째.

김만배

둘째! 대학교는 어떻게 했어?

정영학 휴학했었거든요.

김만배 합격자 발표했나?

정영학 아니요. 정시로 넣어야 되는데요. 그냥 돼 봐야 어디 뭐 식품영향학과, 식품공학과 이 정도 해서..

김만배 서울대?

정영학 예. 안 같 것 같아요. 거기 가느니 차라리 연대 다시 복학해라.

김만배 애들이 과 좋은 데 왜?

정영학 재밌어 합니다.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그렇고. 인제는 뭐 복학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만배 연대 좋지 뭐.

정영학 네, 네. 집에서 그 모형 우주선 거의 다 만들어서 본인이 (...)

김만배 연대 좋아.

정영학 막내는 컴퓨터 해킹 이런 걸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유학 보낼라고. 보내서 하자. 지가 간다고 그래갖고..

김만배 마누라랑 같이 보내?

정영학 저도, 저도.. 저는 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중과세 때문에. 저는 갈라면 한 2년 있다가 가야 됩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형님 뭐 하시는 거 옆에서 하다가 가야죠.
다낭은 가자마자 한, 27홀씩 한 5일 치면 좋던데.

김만배 매일 치면 힘들겠어. 나는 골프 매일 치지 못하겠더라.

정영학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김만배 골프나 해. 골프.

정영학 예. 둘째는 6일날 온다 하더라고요. 다낭에 와서 한 일주일 논다 하고.
형님은 어디..?

김만배 나는 그냥 강원도. 그게 제일 나올 것 같애.

정영학 네..

김만배 LH 계약한 거 알지?

정영학 아, 계약했습니까?

김만배 아니 저기, 완범이가. 가계약. 아니 나중에 저거 해주는 조건으로.

정영학 예.. 그 사실 뭐..

김만배 오늘은 보고 못 받았는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잘 됐어.

정영학 안 그래도 이 대표 그제 한번, 내일 미팅 한번 하자 하더라고요. 내일 미
팅하고. 일단 뭐 본인 생각에는 저기만 해결이 되면,

김 만 배 LH?

정 영 학 LH만 해결이 되면 어떠한 외풍도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무슨 외풍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인제 요것만 되면 사고가 터지든 뭐든 다 수습은 된다. 그 걱정을 그냥 뭐.. 저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예. 형님도 그러시죠?

김 만 배 그럼. LH가 관건이야.

정 영 학 혹시 시끄러워서 이 계약이 안 될 까봐.

그런데 인제 이 대표가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고, 본인 생각에 만약에 이것만 계약이 딱 되면 밖에서 별의별 사고가 다 터져도, 저희들끼리 싸우든 뭐하든 사업은 끝난다, 잘.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입찰담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문제 안 된다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김 만 배 입찰담합 뭘로 밝혀낼 건데?

정 영 학 5년 지났습니다. 형님.

김 만 배 나는 7년. 저기, 업무방해.

정 영 학 업무방해 7년입니까? 아 그러면, 그 외에 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렇지.

☆ 13차 - 37쪽
- 정재창이 유동규에게 3억
회계장부

정영학 재창이. 재창이가 좀 시끄럽게 하면..

김만배 그런데 재창이는 징역가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재창이는 뇌물을 공여한 놈인데. 3억이나 줬는데.

정영학 하하하. 아니 근데,

김만배 내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재창이한테. 응?

정영학 아..

김만배 니네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영학 예.

김만배 재창이. '재창아 너는, 형은 돈 준 게 없지만, 너는 돈 준 게 있기 때문
에 너는 7년이다'

유동규 ← 그게 (동규)가 자수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
내가 오히려 말렸다.

[성남도청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예.. 아니, 기업은행 갖고 뭐 정보 오픈되고 하면 이게 인제, 저도 인제
막, 법률적으로 물어볼 데도 없고. 이 대표한테..

김만배 기업은행?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기업은행 뭐?

정영학 아니, 기업은행이 아니라, 사전에 이자율도 알았고, 저희가.
그래서 상대방 정보를 제가 미리 취득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진짜 궁금하다. 무슨 문제냐 했더니,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이 대표가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만 배 저기가 걸리는 거지. 재창이가 걸리는 거지.

정 영 학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가 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작 물어볼걸.
그다음에 또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입찰담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이 입찰담합을 했는데,
도로공사 하는 거.

김 만 배 음, 음.

정 영 학 이 담당자만 문제가 되는 거고. 아스팔트 공사한 거를 이게 이익을 회수
하고 이런 건 없다.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절차상에 문제가, 공무원만 좀 다치고. 이게 뭐 입찰이 무효여서 공사를
다시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저희가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이럴 위험은 전혀 없다.

김 만 배 그런데 우리가 저.. 걸릴 게 없나?

정 영 학 없습니다, 형님. 그래갖고 이 대표도 그냥 그 LH 건 계약이 시끄러울까봐
본인이 얘기한 거고. 요것만 계약 돼 버리면 다 어떤 문제도 떠들어도 걱
정할 것 없다.

김 만 배 재창이도 협박을 못해. 왜냐면, 재창이도 걸리는 게 있고.
나, 너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재창이를 혼냈는데.

니가 재창이가 70억 받는 중에서 20억을 유한기 주라고 했어?

정영학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만배 그래서 내가 유한기 내 앞에서 얘기 꺼내지 마. 내가,

정영학 아이, 그럼요.

김만배 내가 저기 그걸 알고. 야, 나는 유한기..

정영학 아니 형님, 그게 말이 됩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제가 무슨 죽을 일 있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유한기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나는 유한기하고 관련도 없고, 유한기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기하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한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생각도 없어. 왜 내 앞에서 영학이가 너보고 20억을..'

정영학 아니 형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가..

김만배 아니, ^{→ 질의대상} 그 새끼는 그거지. 유한기 몫을 챙기는 몫으로 나한테 뭐든 하고 싶은 거지.

김만배

정영학 그거 말이 됩니까, 형님.

김만배 그럼.

정영학 일단 사업에 대한 안정성은 문제만 해결이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김 만 배 뭐 걱정할 게 있나. 영학이하고 재창이하고 싸우는 그것 때문에 재창이가 자꾸 들어오니까 하는 거지.

정 영 학 하여간 양보는 좀 잘, 많이 했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이제 그만해.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만하고. 그리고 욕이는,

정 영 학 예. 남양주.

김 만 배 저 뭐야, 재창이가 너무 기대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남양주를.

정 영 학 니 사업 해라. 니 사업.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니 사업 해라.

김 만 배 그리고 (...) 불가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

정 영 학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달 수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형님.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따기가 어렵습니다.

김 만 배 니 본심을.. 중요하지.

정영학 저는 진짜,

김만배 내가, 형이 과정을 얘기해줄게.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자. 니가 이.. 첫 번째. 진짜 남양주 걸 하고 싶으면 이제 남욱이한테 시키든, 제3자한테 주든, 아니면은 재창이 협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재창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창이 안할래나. 재창이는 절대로 유효사거리 안에 안 들어가.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래서 니가 재창이하고, 재창이 다독여주고 남양주 걸 하면 같이 해. 왜 나를, 나만 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러면 똥 묻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나도 묻었어, 이래. 개가 너도 묻었다니까. 나도 묻었는데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같이 해. 너랑 나랑 동업해. 동업해.

정영학 예. 그 전략 하나. 예.

김만배 응?

정영학 그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 만 배 응. 너도, 너도 묻었어, 이래. 왜냐면 저 새끼가 너도 묻었다니까. 응?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래서 당선 되면 칠 생각이니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 핑계로 칠라고 그래.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해, 이래. 그러면 너도.

정 영 학 어차피 줄 생각은 아니네요. 둘 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남옥이한테 그런 걸 코치하겠지.
나는 그래서 아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니가 (...) 손 잡아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애들하고,

정 영 학 아니 형님, 손잡은 건 아니고. 진짜 아니고. 옛날에 뭐..

김 만 배 막말로 니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정 영 학 아니 형님,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 얘기 들어보라니까.

정 영 학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애들이 구도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고,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 여태까지 이 대표랑 일 해온 게 있고.

김 만 배 자. 형이 얘기했지? 80 몇억 빌려와서 200억 들어왔는데 갚았어. 형 돈으로. 너보고 갚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기성이 돈도 사실은 공동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갚았어. 그지?

정 영 학 예.
 ↳ 이기성

김 만 배 킨앤 것도 형이 갚잖아. 화천대유가. 니네들보고 갚으라는 얘기 없잖아. 아직 안 갚았어.

정 영 학 아, 예.

김 만 배 그런데 채창이 돈하고 직원들 돈으로 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정 영 학 아 예, 공회비 150억 그건 ↳ 280억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자, 봐라잉.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남양주는 니가 들어가서도 더럽고, 보호해줘도 더러운 상황이 되잖아. 왜냐면 보호한다고 그래서 니가 끝까지 유지하기도 어려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재창이나 옥이가 나중에 형 손도 더러워졌으니까 물러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

정 영 학 그럼요. 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재창이가 미래 먹거리 위해서 하면 너랑 나랑 같이 해~ 너 손도 들어주고 형 손도 들어줘서, 징역도 같이 가고 돈도 같이 벌자. 응? 만약에 이걸 최후의 방법이야. 그렇게들 다.

정 영 학 형님,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은 게요. 공통비를 아까워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엠에스 돈을 잘못 가져온 거에 대한 거는, 아이 이거는,

김 만 배 나도 그건 뭐..

정 영 학 예, 예. 형님이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거고.

김 만 배 오케이. 넘어가줄게. 그거는 얘기 안할게. 내가 넘어가줄게.

정 영 학 공통 엠에스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 만 배 오케이. 알았어.

정 영 학 그래도 그건 제가 하다보면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김 만 배 옥이는 자꾸 그게 뭐, 나한테 부추기는데.

정 영 학 형님, 공통비는 기꺼이 내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김 만 배 그걸 자꾸 부추기는데.

정영학 저는 엠에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자존심. 일을 열심히 했는데.

김만배 오케이. 알았어. 그건..

정영학 잘했을 수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형님 이거는 봐주십시오 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오케이. 인제 그 얘기는 요 정도 했으면 됐어.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서로가.

정영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됐어. 이제 너랑 나랑 이견 없이 다 됐어.

) 정영학 예, 예.

) 김만배 형은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마무리했어.

) 정영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만배 자, 그러면 니 문제는 해결했지?

정영학 네.

김만배 남양주 문제는, 형을 빼. 형은 거기에 돈 대지만, 형은 관심도 없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 나는 관심이 없어. 솔직히. 응? 나는 이쁜 처녀에 꽂혀 있어서. 우리 천역이 모이는 순간에 우리는 계약을 할 거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래서 이남현이 주택국장, 그리고 강해구 도시계획국장 만나서 다 계획을 짜고 있어.
그러면 남양주 자꾸 그러는데, 나는 니네들이 거기서 (...) 관심없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거 해서 뭐할 거고. 도시개발 지긋지긋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런데 어떻게 나올래, 너는?

정 영 학 그냥 뭐 안합니다 해야죠. 이유를 그렇게 대갖고 형님 말씀해주신, 코치 해주신 대로. 딱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러면 아 ^{→정리} 자기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미래의 계획을 ^{→정리} 니가 망쳤다 이러면, 야, 왜 망쳐? 할려면 해, 임마. 니가 도와줄게 니가 할려면 회장 해. 도와줄게. 왜 자꾸 나보고 이 자식아 그런 걸 따달라는 건데, 그러면 나만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니가 나중에 나를 얼마나 붙들고 흔들겠냐. 응? 내가 니 노예냐.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저는 답이 없었거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답답했거든요.

김 만 배 그렇게만 써.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 애초부터 공통비에 대한 거는 이 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공통비에 대한 것 갖고 형님한테 솔직히 전혀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건 전혀 없었고, 단 하나의 자존심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김 만 배 오케이. 오해가 있다면,

정 영 학 거기에 대한 거는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만 배 알았어. 내가 풀게. 신경도 쓴 적이 없어. 나는 현재도 감사해.
그런데 감사해.

정 영 학 그러기 때문에 욕이가 말한 구도는 형님한테 대들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들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였다고, 좀 도와줘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만 배 알았어.

정 영 학 예, 예. 말을 바꿔서..

김 만 배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정도로 넘어갔잖아. 너한테 기분이 사실 안 나빠. 너한테 얘기하잖아. 알미운 새끼라고 이 정도 한 거지.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그건 좀 자존심이 많이 좀 상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김 만 배 그건 내가 인정할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인정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취소를 할게. 내 표현이 과했으면 또 니가 양보를 하고.

정영학 리딩 350억은 업무상 체크 못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아 이게 좀 핑계는, 좀 늦게 봐서 몰랐습니다. 두 가지는 업무상의 조금 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김만배 그래. 리딩 얘기는 뭐 두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안 그래도 지나 갔어. 왜냐면 몇군데가 그 일에 깊이 들어와 있더라고.

정영학 네, 네, 네. 리딩에서 좀 수수료를 많이 먹은 것 같구요. 수수료도 더 비쌌고. 갖고 왔을 때 수수료도 붙어있고. 다 체크 못했습니다.

김만배 내가 다 알아.

정영학 형님이 파악하신 게 다 맞습니다. 맞고. 뜨악한 거는, 아 이거 잘못했다가 맞는 것 같구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토는 안 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좋은 자금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배 그렇지도 않아.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왜냐면 형한테 얘기했으면 되게 양질의 자금들이 많았었는데.

정영학 두 가지는 그냥 업무상 조금 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는 형님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실래요?

김 만 배 아 인제 그런 걸 떠나서 남양주나 잘 정리해.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남양주는 이랬어. 니네들이 가져오면 난 니네들이 할 줄 알고. 성문이보고 이렇게 '야, 완범이를 대표이사 시켜. 남욱이한테' 그랬더니, 이 새끼가 황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 남욱이랑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영학이랑 생기겠구나. 너는.. 내가 그랬어, 옥이한테. 너는 새끼야 잣나무에 올라가지 말고, 잣 턴 거를 따라니까. 주택사업이나 택지 받아서 하라니까 왜 자꾸 도시개발 사업을 니가 할라고 그래? 응? 왜 또 (...)
형은 아니야.

정 영 학 예. 저도,

김 만 배 왜냐면 도시개발사업 진절머리가 나.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많이 늘어보이세요. 흰머리 나고.

김 만 배 요새 신경 써서 그래.

정 영 학 아유~ 스트레스.. 죄송합니다.

김 만 배 나랑 (...) 저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나는 큰 이득이 난다 해도 딱 버리는 게 있는데.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너, 재창이 강짜를 무슨 수로 넘길래? 남양주에서.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렇게 자꾸 재창이가 얘기하면, 나나 당신이 하시오. 다 거머쥐었으니까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이 대표이사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야지 해결이 돼.
그래서 둘이 전력을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정영학 욕이가 나서고 지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김만배 역량이 안 된다고 그래.

정영학 그렇게 하다가 호반이나 이쪽으로 뛰어가지 않을까요?

김만배 100%. 내가 다 (...)
너 욕이를 믿냐? 욕이를? 욕이가 예측 가능해?

정영학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어디로 붙을지 모릅니다.

김만배 모르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욕이는.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창이가 나아.

정영학 네.

김만배 그놈은 예측불가.
호반으로 (...)

정영학 그럴 것 같습니다.

김만배 개네들이 (...)

정영학 아 왜 팩스에서 하다가 그만됐기 때문에 아마 아는, 가서 박정준이를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 옥이가 박정준이를 봅니다.

김만배 요새?

정영학 가끔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니 말대로 팩스가.. 팩스를 친 게 재창이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공사 사장 내치게. 그러기 때문에 반격을 할 거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형이 하나 얘기해줄게.

정영학 예, 형님.

김만배 옛날에 공무원한테 뇌물 준 것 공소시효 끝났어도,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또 뇌물을 또 주잖아. 그러면 그 공소시효 끝난 것까지 포괄이 있거든. 처벌을 받거든.
그러기 때문에 형이 얘기하는 유한기가 포천에 갈래도 너나 재창이가 또

주면 옛날 것까지 포괄이 돼서 공소시효가 살아나.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너 조심해. 너 유한기 관련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재창이는 니가 유한기한테 대법원 부탁을 해서, 대법원 사건을 부탁해서 그게 아니고,

정영학 아, 형님 무슨.. 제가 부탁한 건 아닙니다.

김만배 유한기가 무슨 힘이 있냐.

정영학 그러니까요. 말이 안돼요. 형님,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만배 그럼 내가 재창이 나중에 모이면 그 얘기 한번 물어볼까?

정영학 아니, 재창이 저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죠.

김만배 대법원 얘기 니가 한 적이 없지?

정영학 네,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움직일 힘이 뭐 있습니까?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아니 처음에 잠시 나왔을지언정, 진행을 안했습니다 아예.

김만배 어떤 거?

정영학 맨 처음에. 대법원 이야기가 나와서.

김만배 누가?

정영학 저희끼리. 대법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예 진행도 안 됐지 않습니까.

김만배 우리?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컨설팅해서..

정영학 아이, 그럼요.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 김만배 니가 유한기랑 논의했다고 그러더라고. 재창이랑.

) 정영학 제가 무슨 논의를 합니까.

김만배 그래서 니가 그 택지 주는 것도 니가 나를 찾아가라고 그랬대. 재창이가.

정영학 아니, 무슨.. 거기서 달라고.. 형님, 이거하고 상관없이 달라고 한 겁니다.

김만배 아 그래?

정영학 이거는 핑계였던 거구요. 택지를 달라고 계속 했던 거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 건은 제가 잘 아는데요.

김만배 그래서 내가 유한기 계속 그러면 징역 보내야 돼.

정영학 아유, 그럼요. 예.

김 만 배 왜냐면 저 박병대하고 오히려(...) 박병대 스타일이지. 그 첩보가 있어서. 재창이한테 그랬어.

정 영 학 아이 그럼요.

김 만 배 징역 보내야지 뭐 그러면.

정 영 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사업을 잘 아는데요. 저한테 뭘 해봐야 저야 뭐 전혀..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안 그러면 제가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도와준 것 같은데, 뭐 필지라도 하나 주시죠~' 제가 했겠죠. 형님~

김 만 배 그런 게 아니라,

정 영 학 제가 형님한테 단 한번이라도 뭐 주라고 한적 있습니까? 없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전혀. 예.

김 만 배 내가 그렇게 방어막 쌓는데서, 밤마다 외출하면 안되지.

정 영 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외출하면 나갔다가 다쳐! 죽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아니 형님 아까 그것도..

김 만 배 미행 당해서 죽고.

정 영 학 예. 아니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했으면,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뭐 하나 주시죠~' 제가 그 이야기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김 만 배 아니야. 없어.

정 영 학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내가 힘 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정 영 학 그럼요. 말을 들겠습니까.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말도 안되는 얘기지.

김 만 배 말같은 소리를..

정 영 학 아니면, 돈 달라고 했겠죠. 재창이한테나. 그거 핑계로 재창이 저한테 물어 봤을테고.
지는 모릅니다 하고 미웠을 테고. 저야 뭐..
저는 그걸 전혀 미룬 게 없습니다.

(휴대폰 벨소리)

정 영 학 (시골에 엄마가 가끔 연락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통화하고)

김 만 배 전화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 영 학 예. 예 알겠습니다. 잘못 가끔 누르시더라고요. 아프실까봐.

(예. 저예요. 전화 왔어요. 팬찮아요. 팬찮아요.)

(아 카톡. 카톡 써보세요. 예)

(저도 한번 보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한참 걸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웃음)

(별일 없으시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김치 진짜, 엄마가 해오신 김치가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 아프신데 없으시죠?)

(병원은 엄마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눈치 보지 말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무 때나 전화주세요. 저도 지금 카톡 한번 보내볼게요)

(예, 예. 봐서 일 하다가, 저도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카톡으로 드릴게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어머니와 통화 끝)

(음악소리 ♪~)

김 만 배 별일 없어?

정 영 학 아 예. 그냥, 카톡 처음 해보셨다고.. 잘못 누르셨답니다.

김 만 배 아..

정 영 학 인제 혹시 약간 좀.. (...) 있어서, 약간 좀 초기라서..

김 만 배 몇 살이야? 연세가.

정 영 학 지금 딱 여든입니다.

김 만 배 올 때 됐어.

정 영 학 예. 분명히 어제 전화를 했는데, 안한 것 같다고.. 그래요.
엄마도 폰을 공부를 하라고, 읽어서 하라고 보내서..
카톡을 배우셨다 하더라고요 좀 전에. 잘못 눌렀다고.

김 만 배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야지. 응? 그래야지.. 치매는 다 와. 지금.

정 영 학 예. 아버지는 아예 팬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배추가 열두개, 열두개, 열세개 해갖고 캐야 되잖아요.
열두포기, 열세포기. 열세포기를 하는데, 156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버지는 아직 멀었다. 계산을 암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직 치매가 한참 멀었고, 엄마는 조금 초기. 안 좋으신 것 같
고. 아버지한테, 엄마나 맨날 화투 좀 치세요.. 그러니..

김 만 배 그거 치면 팬찮아져.

정 영 학 예. 또 아버지는 무릎 수술하신다고 해갖고, 자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전라도 쪽은 병원이 정말 이렇게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어요.

김 만 배 그러면 서울로 모셔.

정 영 학 (웃음) (예. 엄마.. 잘못 누르셨죠? 또.)
(카톡은 엄마, 전화로 답변하시지 말고)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읽고, 엄마 거기다가, '응. 알았어' 정도만 입력해 보세요.)
(예. 카톡에다가)

(괜찮습니다. 카톡에다가 엄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해보세요 가끔 이런거 해보셔야 돼. 예. 들어가세요 예.)

정영학 죄송합니다.
년 초에도 어디 안가시나요?

김만배 응. 나야 어디 안가.

정영학 예-

(음악소리 月~)

(그릇소리.. 소란스러움)

정영학 오늘 시끌 시끌한 거죠.

김만배 응.

정영학 조국.

김만배 아유..

정영학 영장청구를 합니다. 영장이 나올까요?

김만배 안 나올 거야 아마. 거의.

정영학 원래, 부부 둘 다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렇지.

윤석열이가 인제 막 가는거야. 세상이 시끄러워 질 거야. 이 상황이.

정영학 예.

김 만 배 아무래도.. 그지?

정 영 학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남양주 왜 그런 일을 했냐- 그것은..

정 영 학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뭐 일한 것도 별로, 사실은 별로 없고 그냥

김 만 배 재창이한테는.. 자꾸 재창이가 너를 밀면, 니네는 밀리거든. 그렇게 되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때는 '재창씨가.. 재창아, 니가 회장 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 영 학 괜찮아요?

김 만 배 그게 가장 빠져 나가기 좋은 거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왜, 욕이를 시키냐- 니가 해야지, 이제는.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손을 들어줬다면 나도, 나도 묻어서 넣고,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욕이를 해야지. 그럼.
아유, 일단은 있잖아, 제삼자 시키면 내가 죽는다고.
그 욕이를 명의 떠 넘기잖아.

정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배 아니, 내가 니 진심을 몰라서.. 내 마음이 이러면 그렇다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내가 혹시 니 진심을..

정영학 여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형님. 예.

김만배 진심을 몰라서..

정영학 예.

김만배 니가 얘기하는 게 진심이라면...

정영학 예. 실제로 뭐 저도 뭐 사업하고 싶은, 앞에 나서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더 벌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굳이 리스크 질 생각도 없고, 거기가 돈 욕심이 있어서 뛰어간 게 절대 아니고요,

김만배 응.

정영학 재창이가 지가 '적게 먹었다 뭐, 맨날 죽겠다' 해서.. '조금만 도와 달라' 해서.

김만배 아니, 재창이보고 지가 하라고 그래. 재창이..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면 욕을 내세우지 않느냐 그러면, 욕이(..)
제삼자 내세우면 내가 죽는다고. 둘 다 어떻게 내세우냐?
욕이는 제삼자라. 재창씨가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왜냐하면 내 놓으면, 형이 들어보면 다 이 얘기야.

정영학 예.

김만배 정말 당선되면 밀려나!

정영학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당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아니.. 그렇지.

정영학 아니, 하여튼 조언 많이 들었습니다.

김만배 아니, 니 진심을 몰라서야.

정영학 예.

김만배 나는, 니가 형한테 얘기하는 게 진심이라고 말은..

정영학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형님. 예.

김만배 영학이 가끔 알 수 없어서..

정영학 아유, 진짜 저는 그냥 있는대로.

일단 첫 번째, 형님한테 대들 생각은 전혀 없고, 일에 대한 자존심은 많이 상해서 그냥 그게 좀 조금 대들었을 뿐이고,

김 만 배 아니, 그게 리딩은 어찌다가 잘못된 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리딩도 잘못돼서 그러냐-

정 영 학 형님, 그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핑계 댈 게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건 제가 핑계 댈 것 있지만, 그래도 요 두건은 되게..

김 만 배 알았다. 오케이.

정 영 학 대개 요 두 건은,

김 만 배 오늘은 그래서 그냥-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어차피 엠에스비티

정 영 학 업무상.

김 만 배 아니야. 엠에스비티도 처음에 너한테 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

(?)MSBT.

정 영 학 업무상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형님- 그것만 항변을 한거고,

김 만 배 오케이. 오케이.

정영학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저것 나머지 열심히 했으니 좀 봐주십시오..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통비야 뭐 당연히 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일 갖고 자존심 많이 상한거는 좀, 조금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한 거 말씀드립니다.

김만배 알았다. ^{번호}
↑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럼. 옥이랑 너랑 공통비를? 옥이는..
↳ 정영학

정영학 옥이가 반반 낸다 하더라고요.

김만배 그래?

정영학 그때 처음에 지가 와서, '형이 반 내고, 제가 반 내고' 그 다음에.. 제가 50억 더 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김만배 최근에 일이

정영학 예. 그- 제가 70억이 늘어났거든요 재창이 때문에.

김만배 응. ↳ 20 + 70억

정영학 지는 10억이 늘어나고.

김만배 그래? 아..

정영학 제가 70억 늘어나고. 지가 10억 늘어나고, 제가 70억 늘어났기 때문에 옥이가 반반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이도 공통비를 제가 본인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낼 생각이 있다 하니까, 본인도 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창이 꺼는 일단 제가 부담한다 했더니, 본인이 좀 미안하니까..

김 만 배 나는 오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정 영 학 예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 만 배 그게 니네들이 뭐 설혹 남양주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 영 학 아니, 그거.. 진짜 그건 생각 없습니다.

김 만 배 형은, 오리역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애. 깔끔하고, 합법적이고.

정 영 학 그냥 합법적으로 너무 리스크 지지 말고 하십시오 서로.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알고,

정 영 학 예. 리스크 지지 않고, 그냥 그냥 뭐 무리하지 마시고,
그 이 대표나, 양 전무 의견대로 하시면 절대 실패할 리 없습니다.
저는 약간 공격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김 만 배 아니, 영학이도 형이 저.. 여기 와.

정 영 학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약간 공격적이고, 양 전무는 약간 방어적이고 그래서 그냥-

김 만 배 성문이는 아직 몰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는 너도 인정했고, 성문이 인정했는데. 그 성실성과 여러 가지 또..

정 영 학 대신 법률가로서의 판단은 그런 데 경험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사업적인 판단은 저는 좀 공격적이니까, 그래서 한번 더 걸러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비원도 죄송합니다. 팬히 제가 공격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BI.

김 만 배 내가 성문이한테 뭐라 그랬어. 비원은 왜 추징을 안했냐. 물어봤어.
안한다 그러면 계약금 떼이는데, 취소하는데, 일단 HMG에서 사이가 멀어질
까봐 그렇대. 그러면 이자는 유예를 받아야지.
이 대표는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해서 계약한 걸 (..)
그게 아쉬운 거다.

) 정 영 학 HMG 같은 베테랑하고, 사실 좀 가기가 훨씬..

김 만 배 아니, 아니. 내 첫마디 딱 하고, 그 뒤로 안한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돈 빌려다가 갚은 건 갚은거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세상은 항상 페어한 거 거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난 남한테 신세를 받을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세를 질려고 하지 않
았어. 그런데 그 얘기는 했거든. 한마디 해줬지 내가.

정 영 학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유 나 진짜 공격적이었나.. 생각은 했습니다.

김 만 배 그거 팬찮아.

정 영 학 저 후회되는 게 그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 잘못 봤다 에 대한 판단.

B1
↑

김 만 배 여기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주택 상황이 결국 비원이 잘 될거야.
이거 성문이한테 맡겨두는 거야.

정 영 학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전권을 주고, 왜냐하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임남열이는 우리사람인데, 또 임남열이한테 로비하려고 뭐 하니 그거 위
험한 일 아니냐. 응?
이게, 금강이 임남열이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임남열이는 어떻게 얘기해
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 너도 다.
다 배 채우는 애들인데, (...) 양완범이가 진급시켜 달라 그래서 해준거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도 그렇게 해서 바꿔달라 그랬어. 그 위에 있던 우리
측근을 빼고 했는데. 우리측근 아니야? 옛날이 그건.
알지? 옛날 그 직원까지.
그런데 박건우, 그 사람만 의외의 인물이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오히려 그 놈이 (...)에서 지금 국장이 된거야. 그게 다 우리사람
들인데. 그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년 순리대로 풀으면 되니까.
내가 하는거 오리역, 팬찮을 것 같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이게 1년에.. 5년 임대인데, 계약후에 5년 임대인데.

정영학 그럼, 무이자로 해줍니까.

김만배 중도금도 내고, 뭐를 해야 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인제, 그걸 바꿔야 돼.

정영학 아..

김만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든, 한 3년으로 해서 풀어놔. 풀어놔.

정영학 예.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사용료로 대체를 하고, 잔금만 인허가 풀어서 하는 정도의 조건이면, 중도에 이자내는 건요 그건 좀..

김만배 그래서 계약조건은 좀 풀어놓을 필요가 없어.
저거 가져갈 회사도 없어. 현찰이 없어.

정영학 예.

김만배 어느 사람이 천억이 있냐-

정영학 없죠. 천억 넣을 사람이.

김만배 최소한은 계약금 450억에, (...) 다른 회사 있는데, (...)

정영학 예-

김만배 너는, 형이 끼워 준다니까.

정영학 제가.. 형~ 그, 계속 재창이한테 사업 안한다고 하는거가 하기 싫어서, 이 사람들하고 하기 싫어서 안한다 한거고요. 저야 형님쪽 당연히..

김 만 배 그리고 그 재창이는 용역업체 싫다는데.
오리역이 재창이한테 주주로 하기에 는 만무잖아.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럼. 그건 재창이 욕심인 것 같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얘기했잖아. ‘재창아, 너한테 곁을 즐려고 주유소 해결 하라는 거야. 너 즐돈 주유소 주면, 그 사람들 계약 바로 해.’

) 정 영 학 예. (웃음)

) 김 만 배 (...) 응?

) 정 영 학 예. 진짜 한번, (...) 짚어 보시고, 또 짚어보시고, 짚어보시고.

) 김 만 배 그래. 내가 안되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정 영 학 못해. 예.

김 만 배 항구형 계속 데모해서 쫓아내 버리고,

정 영 학 일단 좀- 예.

김 만 배 이게 좀.

정 영 학 지금 많이들 해보시죠. 예.

김 만 배 창근이 형이 의장이잖아.

정 영 학 윤리근 세습위원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창근이형이 시장 출마할거야.

정 영 학 아.. 되게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그 나올만한 사람이 별로.

김 만 배 그럼. 일단 가능성이 되게 좋은거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형님 일만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원은 너무 좀 공격적이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 만 배 아니야. 괜찮아.
이왕에 그렇게 된 게, 지금 주택 상황이 좋아져서 분양사업 하기 좋아.

정 영 학 예.

(응. 임 대표 응, 그랬구나. 응)

김 만 배 (나도.. 그래. 응~ 응~ 그래도 그래라 하여튼. 응 그래.)
(아무튼 더 송년회 잘하고, 혹시 송년회 끝나고 분당에 커피마실 시간이 있으면)(내가 저녁을 사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데이트 한번 하고)
(어디서 먹기로 했는데? 판교. 그래.)
(그래서 어디, 스타벅스나 탐앤탐스 같은데 가 있으면 내가 (...) 돼 있으니까.)
(응, 응~ 응, 응. 그러기로 하자. 커피 같이 하자. 응, 땡큐~ 응.)
(통화 끝)

김 만 배 오늘 망년회래. 처음에 먹던 이병식부장

정 영 학 아. 그거 몰랐습니다.

김 만 배 응, 나도 몰랐어.
그런데 만약에 저기 할려면 이따가 커피 시간이나..

정영학 예, 형님 좋습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만배 응, 나는 오늘 우리 회사에서 저녁 약속 있는데,

정영학 하시고 그러면 부르시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예. 저도 그럼..
식사하시고, 저도 사무실 있다가 전화주시면. 대충 한?

김만배 한 9시면 돼.

) 정영학 9시정도 가겠습니다.

) 김만배 판교라니까.

) 정영학 예, 예. 그러면 출발하셔도 됩니다 형님. 지금 가셔야 되죠?

김만배 아니 아니 나는 안가. 나는 안가.

정영학 어디?

김만배 거기 망년회.

정영학 그러니까. 형님 제가

김만배 양쪽에. 서석대 7시, 8시야.

정영학 7시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예, (...))입니다)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끝나고 한 9시정도.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만 배 그리고 계약금은 날인은 27일이나 30일날 한대.

) 정 영 학 돈이 들어옵니까.

) 김 만 배 그렇지. 들어오지. 계약금.

) 정 영 학 다행입니다.

김 만 배 응.

이 형이 많은 생각을 해봤어.

LH 저기, 우영이하고 상관없이, 누가 개 이야기를 하더라고.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둘이 (...) 거기에 중개인까지 파고 들게 되는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지금도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한번 (...) 돼갖고, 내부에서 할 수 만 있으면.

정 영 학 확실하니까.

김 만 배 확실히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 좋고, 그런데 저걸 할려면 (...)

정 영 학 그럼, 저거를 수익계약이 가능합니까? 형님. 이미 여러 번 매각을 했기
때문에요.

김 만 배 그렇지. 우선 협상을 해야 되지.
완범이 통해서 (...) 해야지

) 정 영 학 그냥 있는대로.

) 김 만 배 응. 매각협상을 해서, 계약금 한 450억 주고, 한 3년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 사이에 인허가가 나면, 저..

정 영 학 잔금일시에.

김 만 배 응. 5년이 너무 기니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오피스텔만 하면 돼. 거기도.

정 영 학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 만 배 상업용지 비율에 맞춰서, 상가 비율에 맞춰서.

) 정 영 학 예, 예. 10% 예.

) 김 만 배 그런데 그걸 줄여야지 인제. 시하고 얘기해서.

정 영 학 예, 줄여야 됩니다.

김 만 배 응.

정영학 예. 하여튼, 그 탄천변에 아, 진짜 조망도 좋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본래부터 의료클러스트 해가지고 뭐 한다고 계속 발표는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하고.

김만배 응.

정영학 그건 무효가 된 겁니까.

김만배 그런데 이제, 그 많은거를 다 가져가기도 어렵다고, 서울대병원이.

정영학 예, 예. 맞습니다.

김만배 시유지가 있잖아, 한쪽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시유지는 허락을 하면.

정영학 그 위에서 이렇게 위성사진 같은 데 보면 부지 있고, 주유소 있고, 옆쪽에 크게 뭐 하나 짓다가 말은 게 있습니다.

김만배 응, 응 그거 있지.

정영학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마 어마하게 크던데.

김만배 아니, 그게 무슨-

정영학 무슨 처리장 만들다가..

김 만 배 하수처리장 같은 거 아니야?

정 영 학 예, 맞습니다.

김 만 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한번.. 그게 시유지잖아.

정 영 학 시유지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마 어마하게 큼니다.

김 만 배 그런데 그거를 (...)
그거 가져가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들다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LH 가능하긴 하지.

정 영 학 그렇죠. 이 LH는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뭔가 입찰이기 때문에 (...)

김 만 배 그렇지.
그럼 돈을 뭉쳐놔야 돼.

정 영 학 예. 일단 계약금만 쓰시는 걸로.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

김 만 배 아니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 금액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니까.

정영학 예. 중도금부터는 차입해서 써야죠. 가급적이면.

김만배 그렇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취급하니까.

정영학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김만배 1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고.

정영학 예.

김만배 안되면 다른 그거를 동원해서 디밀면.. 그리고.

정영학 (예, 정영학입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예, 예 (하하~) 아 예)
(하하) 연말이라 저도. 하여튼,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웃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진짜 뭐, 예.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간은 5년으로?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새해 무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통화 끝)

정영학 커피 좀 드릴까요? 더.

김 만 배 아니야. 됐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저거 있지..

정 영 학 예, 형님. 돌려보셨습니까 한번.

김 만 배 오리역. 아유, 해봤지. 저거 돈이 엄청나게 남아.
정상적으로 가면 이자라면 변수가 있을 건데, 여차하면 힘들다는 거는 반
때어서 그렇게 하면 돼.

정 영 학 그러니까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아이구, 형님.

김 만 배 (...)우연히 생각이 나서. 다들 욕심을 내서, 5년밖에 안된다니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왜 그러냐하면, 나머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잔금을 주는, 잔금은 PF 회사
는 아니잖아. 당장.

정 영 학 잔금.. 중도금도 내야 됩니까? 중도금을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여러 가지 있지.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런데 이자에 대한 것만 실탄을 한 몇백억 갖고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 꺼는 넣는 돈이 있잖아.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없어.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시, 사업을 하다 안되면 헤어컷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김 만 배 응, 그래.

) 정 영 학 450억 던지고 끝나는 모델로 잡으셔야..

김 만 배 잡으면 8백억이지.

정 영 학 예, 예. 항시.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더 이상 인제 한발 담귀야 되는데, 너무 꼬여 들어가 버리면, 시행사가 그
거를..

옛날에도 보면 큰데들 뭐, 한원이나 진짜 큰 데들이 이렇게 진짜 발만 담
귀야 되는데, 무게 추가 이리로 가버리면 온몸이 가서 그냥, 못 빠져 나오
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저는 그냥 계약금만. 최악의 경우 계약금만.

김 만 배 응.

정영학 그 회사에서 하시는 것 보다는, 뭔가 좀 에스피시 만들어서 하시면..

김만배 다른 것 하나 없이..

정영학 예, 예. 리스크 없이.
그러면 그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에 봤을 때, PF 일으켜서..
땅도 좋고, 사업도 좋고.

김만배 시유지 것까지는 그렇고,

) 정영학 그거는 시유지 꺼는 특혜시비..

) 김만배 응?

정영학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김만배 그래. 그거는 내비둬야지.

정영학 예.

김만배 너무 커지면 안돼. 음으로 가든, 뭐로 가든.

정영학 예.

김만배 저거 분당에 (...) 할 것 없어. 거기에.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옛날에 끝이다, 그 당시에 혐오시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

정영학 거기서 보면, 탄천의 야경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저도 팬츠를 것 같은데요.

김 만 배 몇 시에 약속 있어?

정 영 학 저는 뭐 갔다가, 있다가 9시 정도.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 헤어지자고.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제가요..

김 만 배 아니야, 내가 할게.

여 자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김 만 배 그래요. 메리크리스마스

정 영 학 감사합니다.

김 만 배 차, 거기까지.

정 영 학 예.

(뚜벅~ 뚜벅~)

김 만 배 너 먼저 가.

정영학 예, 형님. 메리크리스마스.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김만배 응. 조심히 가.

정영학 감사합니다.

김만배 건강하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우리 파트너, 좋은 파트너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형님.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잘 가~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간다.

정영학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응. 땡큐~

정영학 예, 예. 들어가십시오. (끝)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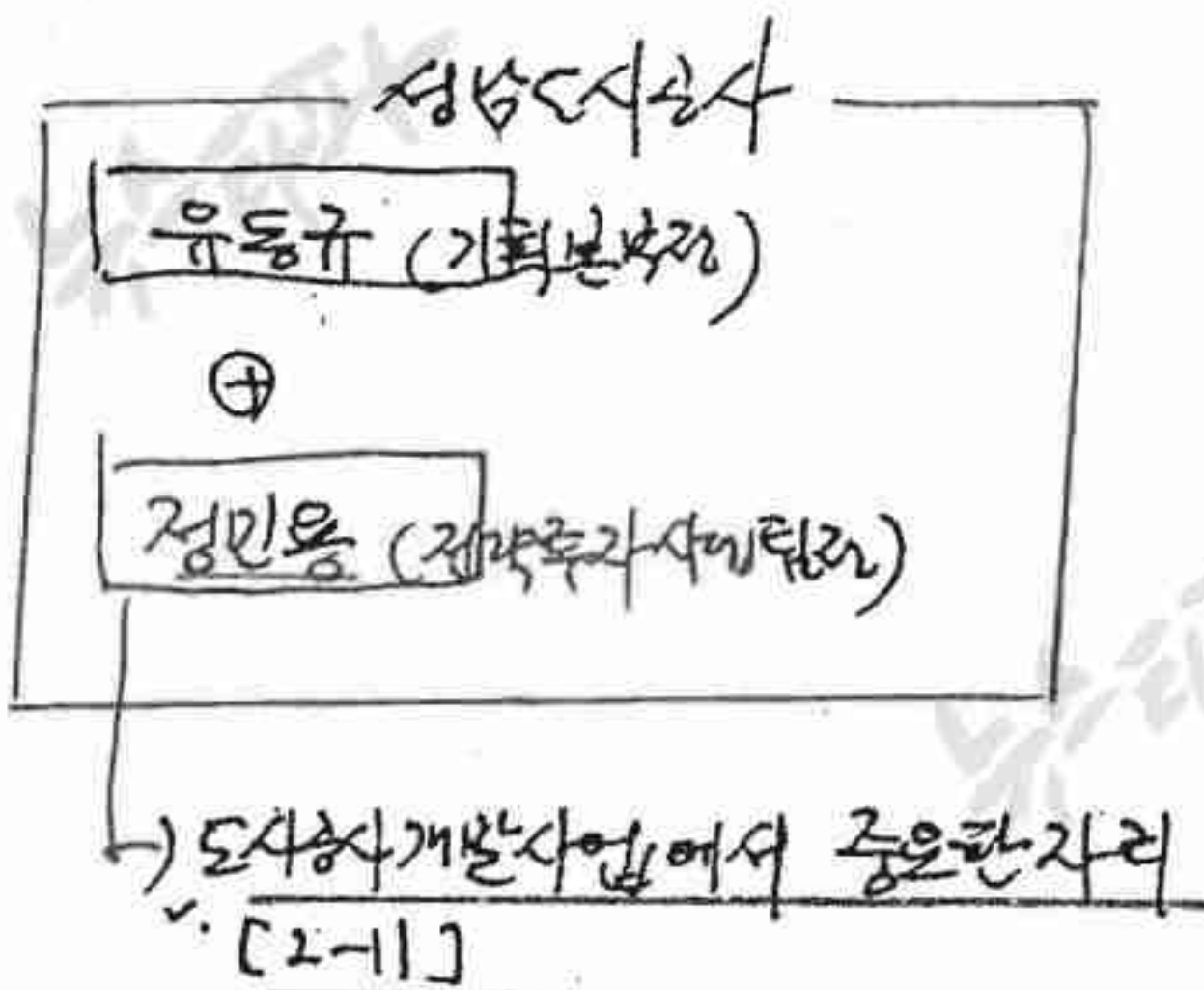
뉴타과

뉴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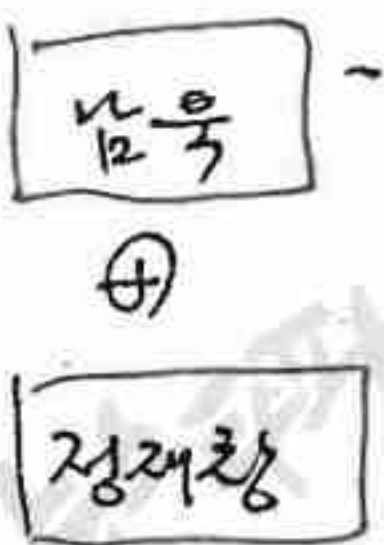
뉴타과

그차(문약) - 수정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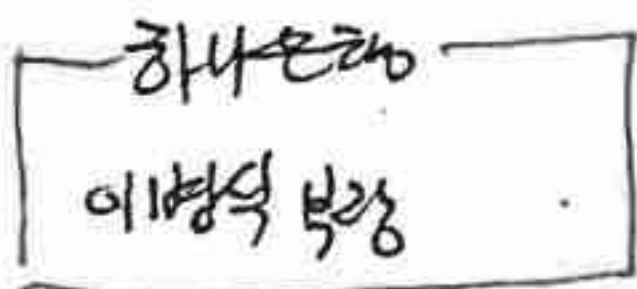
2020.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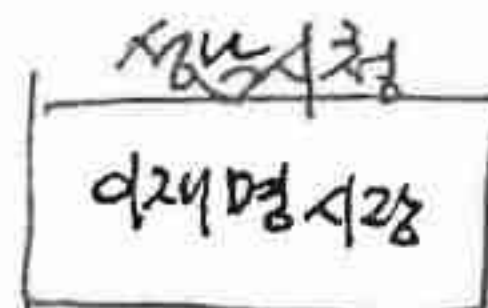
v. 퇴사후 (남욱과 함께)
남욱주 야생지구 가려고 함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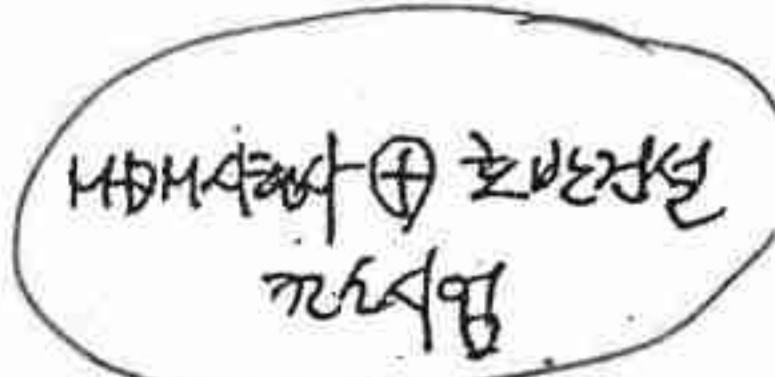
- 총알이 떨어지는 자리에만 서 왔음
- 칼날이 항상 그 윗부분에 있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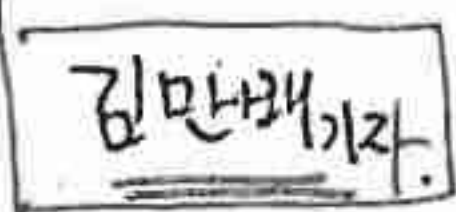
- 은행 퇴사후 "화천대유"로
~ 따라 제공 (by 김민용)
[2-16]



대강동
도시개발사업
과서
[2-4, 22]



→ 유동규
누구(?)는 흔해
뽕뽕
[2-4, 22]



v. 어른계 방패가 튼튼하고
무적함다

- 배경 : 이기스칼
김이리스
[2-14]

- (대강동 사업관련)
어른에서 두드러 맞은
없음 → 김민용 역할로

2차 (수정)

- 녹음일시 : 2020. 3. 13.(금) 18:30~21:00
- 녹음장소 : 분당 안양판교로 1201번길 65 남서울CC 앞 '하누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이성문

(1:27:00~1:56:17)

김 만 배 이제 공동 양어장에서, 응? 공동 양어장에서 커서, 성숙해서 개울로 나가는 거야. 응? 강으로.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인제 자기도 나가서 일가를 이루고.

정 영 학 저는 생각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고.

정 영 학 예.

이 성 문 회계사님하고 선배님이 계속 계속 해야 되고요.

김 만 배 (..)

이 성 문 예.

정 영 학 다음에 선배님 뭐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가서 한다니까요.

김 만 배 저.. 재창이가 시작해놓은 거 마무리를 지어야지.
무책임하게 손 떼면 안 되지. 대신에 지혜롭게.
내가 볼 때, 나 같으면 이성문이나 양완범 도시개발 탐 세운다.

이 성 문 저는 안되고, 실무는 양완범 (...)

김 만 배 아니, 대표이사를 둘 중에 한 사람.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모양이 단단하거든.

이 성 문 제가..

김 만 배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거든.

정 영 학 그럼요. 아유, 저도 그..

김 만 배 아니, 세상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면은 아무런 아규가 없어.

이 성 문 접때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이 비슷하게 (...)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 (...)

김 만 배 내가 중앙무대에 1군들이 날뛰고 1군들이 싸우던 데에 (...) 가능하잖아.
세상은 아무나 설치면 안 되는 거야.

정 영 학 저도 차라리 두분이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국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

남북 + 2024년

김 만 배 내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왜냐면,

이 성 문 정 회계사님 남양주 쪽에도 메이저 시행사가 많이 왔다갔다 이렇게..

정 영 학 예..

이 성 문 사실은 (...)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 저도 그런 거 (...)

정 영 학 세대수가 (...)

이 성 문

그것도 연말에 그랬으면 12월 중순 (...) 남 변호사님과 정 사장님하고 (...)하면 안 되는 (...)

그리고 그걸 남양주 쪽에, 저도 물론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게 도시개발사업이 결국은 공무원. 공사가 아니에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사하고 (...) 오랫동안 (...)

그러면 아무리..

정 영 학

우리가 (...)할 수 있네.

이 성 문

예. 아무리 남 변호사님도 성공 확률이 (...)

김 만 배

최근 시장 따라, 재창이도 시장 따라 (...)

재창이가 시장 따라 (...)

아니, 나라면 조 시장을 부른다. 그런데 재창이가 여기는 (...)

그러니까 말뚝의 눈물도 애네들 (...)

다른 건 영학이랑 재창이가 (...), 영학이가 안 다치고 둘이 잘 (...) 할 수 있어.

왜냐면, 세상이 아무리 큰 데가 (...) 기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나.

그런데 난 그래.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애써서 해놓은 거를 받을 갈아봐도, 엉뚱한 놈이 거기다가 씨 뿌리면 안 되지.

두 사람이 왜 받을 갈겠어? 자기네 농산물 지을라고 받을 가는데. 왜..

그런데 좋은 씨를 잘 뿌려서, 그리고 전체 받을 (...) 우리한테도 한 블록 줘. 응?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씨 뿌리게.

그리고,

정 영 학

일단 태국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양완범, 이 대표나 좋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저는 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느니..

김 만 배

나는 처음에 영학이한테 얘기했듯이, 두 사람 다 달라고 그래도 두 사람들이 오케이는 줄 거고, 누구를 달라고 그래도 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인센티브도 달라고 그러면 미리 줄 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대신에 나는 나중에 잣나무에서 딱 것 한 자루만 줘. 응?
이 킨앤파트너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정 영 학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시행 쪽이, 하아~ 체질에 안 맞고.

김 만 배

대신에 ^{양육}옥이가 주도한다면 나는 안 갈 거야.
이건 재창이가, 옥이가 주도해도 나는 안 가.
그래서 니가 가면 가.

자기가 마음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안전한 거고 (...)할 거야.

검증된 선수가 있잖아.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검증된. 이성문, 양완범 둘중에 하나. 둘 다 데려가도 되고.

이 성 문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김 만 배

그건 알아서 해. 그런데 영학이가 (...)

정 영 학

저도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데,

김 만 배

어디를 있어?

정 영 학

형님. 형님 옆에.

김 만 배 응?

정 영 학 형님 옆에. 형님 밑에.

김 만 배 좋은 기회야.
(..)이지만, (..) 있잖아.

정 영 학 잘 알아도..

김 만 배 인건비 보장하겠다고 (..)할 건 뭐야?
그리고 향후에 여기서 (..) 있어서 택지를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택지 가
격이 상승하기 전에 (..)

이 성 문 (..)

정 영 학 구역 지정된 지가 한 2년 넘어가거든요.
하반기 정도 돼야 실시계획인가 나와요.

김 만 배 일정이 나왔어. 이미 시가 일정을 뿌렸어.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학이 머리에 결심만 남은 거야.

정 영 학 형님, 진짜 저는 아무 저기도 없고.

김 만 배 아이, 영학아, 우리 사이에 그러지 마. 잘 아는데, 너를.
형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형은 나중에 이 밭고랑 하나만 줘. 응? 좋은 쪽으로. 양지 바른 곳.
거기다가 고추 심을 테니까.
대신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뭐냐면 재창이도 남욱이한테 대표성을 안 줄 거야.
내가 재창이 성격을 잘 아는데, 재창이 새끼 완전 (..)
이게 안 됐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얘기해줄게. 니네 셋을 비교해줄게.
넌 깜깜하면은 고개 쪽 내밀고 슬슬 다니면서 막 짓어. 근데 (...)하면 너는 막 들어가서 눈만.. 절대 손도 요것만큼도 안 내놔. 무슨 말인지 알지? 남옥이는 뭐 깜깜하든 환하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고. 재창이는 총알이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에만 서있어.
칼날이 자기 그 유효사거리에 항상.

그래서 옥이한테 저걸 대표를 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한 블록은 주겠지. 근데 옥이한테 전체를 도시개발을 안 줘.

옥이는 그걸 목표로 뛰어든 거고.

재창이가 확답을 안 하니까 태국까지 날라간 거고.

↳ 저지형

정영학 주지형 단장이 재창이랑 그렇게 친할까요?

김만배 아이구, 친하지.

주지형이 찢리는 건데 형한테 재창이가 부탁을 해서 목숨 붙어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 당시에. 그만큼..

너하고 친하잖아? 주지형이.

내가 우려 하나 얘기해줄게.

주지형이라고 너하고 재창이라고 옥이라고 위례신도시 사업자인데, 응?

정영학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김만배 근데 여기서 재창이가 대가리가 없겠니? 옥이한테 그걸 주게? 결국은 옥이는 그 대안으로 호반을 얘기한 거야. 호반이나 다른 데를. 근데 호반은 요새 (...) 참가를 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물을게. 그래도 같 거야? 물론 어렵지.

정영학 그냥 저는 그 그냥..

김만배 진심을 얘기해. 진심. '저는' 그게 아니라, 진심. 내가,

정영학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만배 그러면 내비워. 애들 하게. 그런데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저.. 나는 재창이 마음을 알아. 니 마음도 알고. 옥이 마음도 알고. 근데 형은 안해. 형은 그냥 한 블럭만 얻으면 돼. 안 주면 할 수 없고.

정영학 형님 말씀대로 이성문 대표나 (...) 빼고 형님이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건 해볼만 합니다.

김만배 근데 형은,

정영학 사람이 (...)
아니 진짜 그렇게 뭐 일 도와주고 뭐 해서 돌아서서 (...)

김만배 내가 되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내가 참는 거야. 안해. 왜냐면 속으로서.. 근데 포기는 하지 말고. 뭐 하러 포기를 해? 지금까지 형은 (...) 다 개간해서 돌도 치우고..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성문 저는 옛날에 (...)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
저도 지금 일체 저도 제 추측인데, 저는 정 사장님이나 남 변호사님, 정 회계사님하고 같이 하더라도 (...)
남양주 쪽에 (...)

↓ 정재영 ↓ 남우

정영학 이쪽에서?

이성문 근거는 없고요.

김만배 아니, 이미 정해져 있어.

이성문 아니, (...)

김 만 배 정해져 있어. 왜냐면 애네들이 그 정도 급은 아니야.
그 이상을 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겉으로 보기에 약하게 보여서 그렇지, 쉰 애들이 아니야.
그런데 정 회계사나 재창이나..

이 성 문 아니 그리고 정 회계님이나 (...)

정 영 학 아니 뭐. 아니..

김 만 배 다른 거야. 다른 것 아는데, 그래도 다른 데도 또 홈런을 칠거야.
MDM이나 다른 데다 홈런을 할 거야. HMG나 홈런을 치는데.

이 성 문 그런데 이번에는 (...)하고 우리 팀들이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것 (...) 나보고 좀 기다리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점
심을 (...) 김 회장 미국 가고. 내가 사실 (...) 이야기도 며칠 전에 물
어봤어요. '요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아니
없다. (...)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나도 진작에 알고 있는데, 이 우리 정 회계사나 정재창이가
개네들 둘이 합친 것보다 세다니까. 각자가. 이 공모세계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이 성 문 예. 모르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

김 만 배 그런데 문제는, 나도 (...)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

정 영 학 형님, 솔직히 다른 데 문제는 차치하고,

김 만 배 없어, 다른 데는.

정 영 학 예. 다른 데는 사실 잘 뭐, 그냥 다른 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만 배 95% 넘겨줘.

정 영 학 그 이후가..

김 만 배 이후가.. 이후를 얘기해. 내가 가장..

정 영 학 (...) 문제가..

김 만 배 재창이도 그걸 염려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옥이가 그러고 나가니까 조금 (...) 그러니까 옥이가 미국에서 태국으로 갔지. 재창이를 설득할라고.

정 영 학 옥이는 호반 했겠네요? 나중에 안 간 상태에서요.

김 만 배 아니야. 왜냐면, 자기는 개는 이 생각을 하지. 몽주가 도시개발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페이퍼 작성이나.

그래서 공모제안서도 이 몽주가 분명히 그거 했을 거야.
그런데 정 회계사의 나중에 회계적인 그 텔런트가 (...) 그리고 이 완범이나 성문이는 자기가 컨트롤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슬쩍 던지길래, 너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되지도 않는다.
옥이가 이성문이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면 양완범이 컨트롤할 수 있냐고?

정 영 학 안되죠.

김 만 배 안되지. 그래 (...)거야.
애네들이 남옥이 말을 듣나? 안 듣지.

이 성 문 (...)

김 만 배 아니야.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성 문 예.

김 만 배 그런데 재창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성 문 정 사장님하고 (...)

김 만 배 남 변호사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 옥이도 여기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재창이가 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옥이는 최소 한 블록은 가져가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누구 쟁기를 통해서 받을 가는 모양이야.

그런데 나는 이성문 쟁기나 양완범 쟁기를 통해서 같아야 되잖아. 응?

그게 안전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공모사업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두 사람이야. 하나는 이성문과 하나는 양완범이야. 응? 그지?

기술적인 건 양완범이고, 경영적인 건 이성문이야.

그러면 경기도나 뭐나 모든 사람은 다 (...)

재창이가 고등학교만 나와 가지고 머리 나쁜 놈이 아니잖아. 머리 좋잖아. 인정해?

이 성 문 예.

김 만 배 내가 말하는 걸?

이 성 문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게 방법이야. 그래야지 나도 한 블록 얻어먹고.

정 영 학 저도 (...)

김 만 배 거기다가 주지형까지 있는데 남욱이가 법인에, 도시개발 법인에 대주주로 간다고? 응?

어? 이놈들 위례팀이 다 모였네. (...)

주지형이가 위례 담당, 김우희가 (...)

이 성 문 요즘 공사 (...)

김 만 배 정민용이는,

이 성 문 (...)

김 만 배 빨짓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징계 받을 뻔해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돼서..

이 성 문 정 변호사가 (...) 할 때도 휴가 내서 하지, 업무시간에 골프 치고 그럴 사
람이 아닌데.

김 만 배 그래서 걸렸대. 그래가지고 휴직계를 (...)
그래도 저 민걸이는 (...), 민용이는 근무시간에 골프 치다가 (...)

정 영 학 돈 받아서 걸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녘니까, 그거? *132하 62.
↑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그것도 유야무야 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정민용이를 중요한
자리에다 댔는데, 이놈이 골프 치다가.. 누가 있겠지. 응?
그래서 소문은, 공사에 한쪽에 소문이 일부러 친 거 걸린 거 아니냐.

정 영 학 나갈라고.

김 만 배 남양주로 갈라고. → 남양주와 함께 남양주 양재리 구공문사업 하려고

이 성 문 그런데 정 변호사 자주 만난다는데, 가끔씩 보면 정민용 변호사가 (...)할
때 (...)이나 바깥에 외식해서 어디 출장가고 외부 일보러 간다고 그러고
골프 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김 만 배 형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4개 재단했는데, 한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남양주 할 때 (..)

정영학 아니 뭐 진짜 저는..

김만배 형한테 이런 카운슬링 조건으로 한블록 줘. 응?
그래야지 입도 다물고 있을 거야. 안 주면 씨팔 막 떠들고 다니지.

이성문 정 변호사도 (..) 제가 이제 공사가 시 시장한테 여러 가지 일거리 보고
은수미 시장이 뭐 여느 시장 같이 이렇게 뭐 공사한테 일을 많이 몰아주고
그러지를 않잖아요. 그걸 또 싫어하니까.
그리고 공사가 할 일도 없는데 비전이 없잖아요. 개발사업 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

김만배 그게 걸린 게 고의적으로 걸린 거냐. 응? 고의적인. 응?
걸려서 징계 받을라고 그러는 거를 사장이 막아줬겠지.
그런데 소문은 남양주를 갈려고 그랬다..

이성문 예.

김만배 주지형이 보내준 거에 의하면 객관성이 없어.
태국에서 설득이 안 돼서 못 오고 있었을 거야.
재창이는 지가 남욱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욱이가 막 베틀을 하겠지 지금. 금액을. 응?
그런데 재창이는 욕심은 나는데.. 응?
재창이는 형한테 한블록 줄 거야.
왜냐면, 형을 떼어줘야지 병폐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한 500 세대짜리만 달라고 그랬어. 천 세대짜리는 (..)
조만간에 올 거야.
형이 예상한 대로 다 끝낼 테니까 기다려봐. 너한테 달려올 거야.

정영학 저한테 올 이유가..

김만배 너 없으면 안 되니까.
넘어갈락 말락 재창이가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욱이가 또 그냥 (...) 하다가, 또 반대로 (...)

정영학 욱이는 충분히 벌었는데도 하고 싶어 할까요?

김만배 처음에.. 재창이가 확 던지잖아. 재창이가 더 고수야. 셋 중에서. 그러니까 욱이가 그냥 확 달려들어서 엔트리 피도 많이 올라갔을 거야. 저 그림 있는 건 처음 봤네.

남욱 (2:21:19~2:31:00)

김만배 부동산이나 많이 사놓을라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이..

정영학 팬찮습니다.

김만배 그림.

정영학 예. 차라리 다른 뭐 다른 거 하시느니..

김만배 왜냐면 직원들 데리고, 남아있는 직원들 데리고 골프나 치고. 일정 정도는 정 회계사 쫓아서 남양주로 갈 거고. 응?

이성문 허허허. 팬찮을 것 같아요.

정영학 남양주만 아니고, 다른 데서 따갯고 오면 안 될까요?

이성문 하하하.

김만배 그래서,

정영학 남양주 말고 다른 데. 다른 데도 형님 많이 있습니다.

김만배 아니, 형은 안해. 그리고 형은 얘기했잖아. 니네들하고 앓는다고. 응? 왜냐면, 이제 각자 가는 거야.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고. 왜냐면 정영학 회계사도 이제 일가를 이뤘으니까 스스로 해도.. 나중에 필요하면 나도 또 참여하고. 해도. 응? 그리고 애들이 진짜 재창이랑 욱이가 어떤 그림을 그려올지 모르겠지만, 정 회계사 마음에 맞는 그림을 그려 와서 하면 한 블록 우리도 얻어서 하고, 그리고 한쪽에 방위를 맞춰서 방어를 해주고. 왜냐면 김만배 방패가 튼튼해. 별명이 이지스함이야. 그지? 김 이지스.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응? 대한민국에 이 큰 사업을 해서 언론에서 한번 안 두드려 맞는 거 봤어?

정영학 그건 형님이 계셔서 그렇죠.

김만배 그럼.

정영학 저는 남양주만 아니면 다른 거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남양주만 아니면.

김만배 그러면 왜 했어, 그걸?

정영학 시작을요? 도와달라니까 좀 도와준 건데.

김만배 나는 성격이 숨기는 일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는 얘기를 하지.
내가 직선적인 성격인데도 세상을 살아가보면 협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
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바꾸기로 했어. 있는 그대로. 응? 지장이 없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 말이 맞을 거야. 그 구도가.
재창이는 이해했는데.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들어오는 것이 협의가 안돼서 못 오고 있을 거야.
욕이가 설득하는 거에 재창이가 안 넘어갔겠지.

정영학 (...) 쪽에요?

김만배 응. 그런데 그리로는 안갈 거야.

이성문 (...) 하시죠.

정영학 거기 하는 일을 좀 도와줬는데..

이성문 아니, 이 부장님이 저번에 최근에 이것 때문에 저랑 통화했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부장님이 이제, 이제야 마 최고, 부장 중에는 맨 위에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거취가 이제 본부장이 될 건데, 본부장 되면 2년은 있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큰 고민인데. 퇴사해서 그 고민이 아니고.
좀 있다가, 하나은행 계열사라고 있잖아요. 신탁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타사금융도 있고. 그런데..

정영학 위에서는 신탁을 좀 맡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이 성 문 그런데 신탁은 저긴데.

김 만 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그런 데에 보내겠어? 은행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하겠지.

정 영 학 그런데 사실 은행은 로테이션입니다.

김 만 배 아, 그래?

정 영 학 누구 한명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기 때문에,

이 성 문 그 일련의 투자금을 다들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김 만 배 본부장으로 가겠지. 지점장하고.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이 부장 입장에서 본부장은 그러더라고요. 그 본부장이 딱 2년이거든요. 3년, 4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본부장이 좋다고 해도 2년짜리 본부장으로 가면 나중에 퇴사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계열사를 (...)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김 만 배 나중에 퇴사하면 우리 회사로 오시라고 해.

이 성 문 (웃음)

김 만 배 그러니까 이 부장의 뜻을 정 회계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따로 한 게 있으니까.

이 성 문 은행이 야아, 그렇게 일 잘하더라도 참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줘야 되고.

김 만 배 아니,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이 사람아.
점찰은 안 그래? 중수부장만 하루 종일 해? (웃음) 응?

다 도는 거지. 길어야 두 텀이지.
영학아!

정영학 예.

김만배 재창이랑 옥이를 설득하고 싶으면 형을 이용해야 돼.
형은 니 마음을 잘 알잖아. 응?
너는 진짜 손잡아야 될 사람이 잘..

정영학 아니 형님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단 저는,

김만배 그리고 나는 너를 공격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나는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데, 니가 얘기를 안해준다 그러면 내가 치사해질까봐.

정영학 (하하) 예..

김만배 보호해줬으면 보호했지.

정영학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만배 내가 이런 저런 얘기를 안지. 애들 지금 막 하는데.
옥이가 도시개발사업을 다 (...)하니까.

정영학 예..

김만배 개 입을 어떻게 막어.

이기성 ← 기성이가 최근에 찾아와서 남옥이 천억 벌고 2대 주주라는 거야. 와가지고. 2대 주주. 지가 안 떠들고 다녔으면 누가 얘기를 해? 응?

정영학 사실 은행도 블라인드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김만배 그러면 누가 떠들겠어? 2대 주주라는 거를.

남옥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 쪽 얘기해주는데. 정확한 얘기다.
하도 잘난 척을 했다 해서.

정영학 저도 뭐 거기는 무서워서..

김만배 그냥 (...) 있어야 돼. 응?

정영학 예. 무서워서 거기랑은..

김만배 몸을 안 담으면 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 퍼펙트스툼 국면에서 떨어지는 감, 깨지지 않은 거
잘 주워 담을 거야.

정영학 예.

(2:54:48~3:11:46)

김만배 난 여기 지킬거야. 어디 안 가. 응?
작은 것만 주워 먹으면서 있다가, 산운마을이나 판교나 나올 때 주워 먹다
가.. 이 동네 주인이 난데 주인이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 응?

정영학 그러니까요. 예.

김만배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우리가. 응?
다른 데로 갔던 (...)들을 우리가 말고. 응? 응?
얼떨결에 했으니까 이제 한번 잘해봐야지.

정영학 선거법처럼 재판처럼 예측불허한 건 처음 봤어요.

김 만 배 아니 근데 다 거의 예고 돼 있어.
 근데 조금 힘을 써서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
 그렇게 해놓으면 본인도 자만심이 생기고, 옆에서 집적대는 사람이 생겨
 요.
 뭐 그렇게 안해도 다 되는데 무슨.. 응? 여기서 막으면 안되지.

이 성 문 재판 (...) 맞지만, 우리가 (...)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기여
 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 그것도 당연하게 (...) 재판 외에는 (...) 보나 안보나
 얼마나 자만할 사항이에요.

김 만 배 그럼.

이 성 문 저는 우리는 일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관사한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
 은수미 그렇게 되면 사업하던 사람이 망한다고 생각해봐요. (...)

김 만 배 나중에 당선무효 되면 선거보조비용 한 20억 되는데 어떻게 할거야. 보조
 금.

정 영 학 아, 저기.. 예. 내놔야 되네요?

김 만 배 그럼.

이 성 문 (...)

정 영 학 네. 선거보조금 토해내야 되네요? 아..

김 만 배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형이 아까 얘기한대로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태국에서 모든 것은 결국은 영학아 너한테 와.

정 영 학 아이구, 저야 뭐.. 저한테 오겠습니까.

김 만 배 아니 아니, 와. 안 올 수가 없어.
왜냐면 개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 못해요.

정 영 학 저야 뭐.. 제가 없어도 잘 합니다, 거기는 인제.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개네들 숨소리만 들어도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정 영 학 (웃음) 형님한테 가서 할 거예요. 저야 전혀..

김 만 배 아니, 나는 안해. 나는 안 한다는 걸 이미 개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아, 만배형은 안한다..
내가 카운슬링은 해줄 테니까. 니네가 잘 사는 법.
도시개발하고 택지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도시개발을..

정 영 학 예.

이 성 문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정 영 학 골프치고 식사하고 가요, 여기서.

이 성 문 이 시간에도 골프 치는 사람이 있구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여기 임대료가 되게 비싸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이런 건물 하나가 70억이래. 골프장 앞에. 태국에 있어.

정영학 아 예, 뭐..

김만배 태국에서 (...) 내가 며칠 전에 이 대표가 남욱이 얘기 물어보길래, 미국에서.. 그래서 '태국에 있겠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웃음)

김만배 (웃음) 그랬어, 안 그랬어?

이성문 예.

김만배 니가 '예' 그래서, 아니 재창이 있는데서 설득하고 있겠지. 응? 내가 개네들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 그런데 귀국이 늦어지는 거는 설득이 안돼서 그런 거야. 설득이 안된다는 거는 절대로 욱이가 생각하는 욱이의 독자안대로는 안된다는 거야. 독자안을 하려면 재창이가 계속 베탱금액을 부르는데, 욱이는 그거는.. 받을 것 같애, 안 받을 것 같애?

정영학 형님. (웃음)

김만배 (...)겠지. (웃음)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MDM하고 이거를 남 변호사나 시행업자들 걸 뺏어서 MDM하고 호반하고 공동컨소시엄 본인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고 호반에 김상열이도 몰

남욱
↑

(주) 호반건설

↓
김만배 + 유동규

↓
(주) 호반건설

랐고 MDM도 몰랐어. 응?

우리꺼를 뺏어야지 라고 그랬는데 뺏긴 거야.

막상 (...) 본년랑 쯤 뺏은 거야.

정영학 (웃음)

김만배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냐. 응? 그지?

정영학 예.

) 김만배 응?

) 정영학 예.

) 김만배 오케이?

) 정영학 예. 세상 좁습니다.

김만배 아유, 좁지.

정영학 예.

김만배 교정본부장이랑 MDM 회장이랑 선후배 지간이야. 경희대.

정영학 음.. 경희대. 경희대.

김만배 (...) 달라고 그러잖아.

정영학 거기도 문.. 경희대.

김만배 근데 운전수를 괜히 보냈어.

이 성 문 아니, 아닙니다,

정 영 학 안 피곤하실까요?

이 성 문 아니 피곤한 것 없고, 저는 다른 (...) 내 특별한 약속 없으면 빨리 보냅니다. 아침에 빨리 나오게.

정 영 학 하기사 저희도 요즘 웬만하면 빨리 보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김 만 배 나는 운전수 그만두라고 그랬어.

정 영 학 예? 아, 아까 왜 진짜로..

김 만 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총각이라.

이 성 문 한번은 아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 한번은 전화기 안 되니까. (웃음)

정 영 학 그거는 좀.. 술 먹었나 봅니다.

김 만 배 모르지. 어디 가서, 안마방이나 같은 데 가서 받고 거기서 계속 자서..

이 성 문 오후까지 점심까지 연락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김 만 배 그놈은 관심이 너무 많아. ‘형님, 저분은 TV에서 보던 사람인데요’
(웃음)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저분은 추미에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 니가?’ ‘TV에서 본 것 같은
데요’ 그래서 토닥토닥. 냄새, 형은 간이 나빠서 냄새 못 참으니까..

이 성 문 담배도 많이 피우잖아요.

↓
김만배

김 만 배 담배도 많이 피우고, 총각이라 목욕을 안해요.
 그러니까 들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이 성 문 우리는 더 시간도 확실하게 (...)하게 한 회사에 일하면 그런 게 없죠.

김 만 배 그렇지.
 가자~

이 성 문 예.

정 영 학 예. 형님.

이 성 문 여기요.. 아니 아니, 제가요.

정 영 학 제가 할게요.

이 성 문 아니요. 아니요. 가방..

정 영 학 앞으로 제가 합니다. (웃음)

종 업 원 감사합니다.

정 영 학 예, 여기 형님.

김 만 배 (...) 안 왔는데?

이 성 문 아니 형님 시간 됐습니다.

정 영 학 아니, 올 때 됐습니다.

김 만 배 저건가? 아닌데? (...) 어디야?

이 성 문 여기 고속도로 저쪽이니까.

정 영 학 형님 출발하십시오.

김 만 배 아니, 오면 갈게.

정 영 학 아니, 괜찮습니다. 네, 형님.

김 만 배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올 거야, 너한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음. 형이 개네들 잘 알아.

정 영 학 (전화: 아, 어디쯤? 이제 나왔어. 응, 오케이)

이 성 문 다 왔죠 이제? 예, 다 왔습니다.

김 만 배 주지형이 보낸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핸드링하기 뻑뻑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애. 느낌에. 그 이후에 만난 적은 없지만, 형이 딱 볼 때. (웃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어? 영학이 형이 나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애. 그래서 한 수를 더 둔거야. 응?
그런데 욱이가 거기로 달려올 줄 몰랐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욱이는 계속 내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안을 밀어 넣을 거야.
그런데 재창이는 베탱, (욱)의 베탱금액이 높아지는데, 돈 욱심은 나는데,

↓ ↓
정재창 욱이 -25-

사후가 문제니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배형한테도 이만큼 받고 옥이한테도 이만큼 받고, 자기는 흔적이 많으니까 멀리 빠져 있을려고 그랬는데, 만배형이 안한다고 그러니까, 응?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고민이지.
내 말이 맞을 거야.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응. 저거 아니야.
저기 온다.

정영학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운전하시기에?

김만배 아니, 괜찮아.
그래, 나 먼저 갈게.

이성문 예, 예.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잘 보내.

이성문 예.

김만배 잘 먹었어.

정영학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

이성문 낮에는 더운데 저녁 되니까..

정영학 춤네요.

(차 시동거는 소리)

이성문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정영학 예, 들어가십시오. (끝)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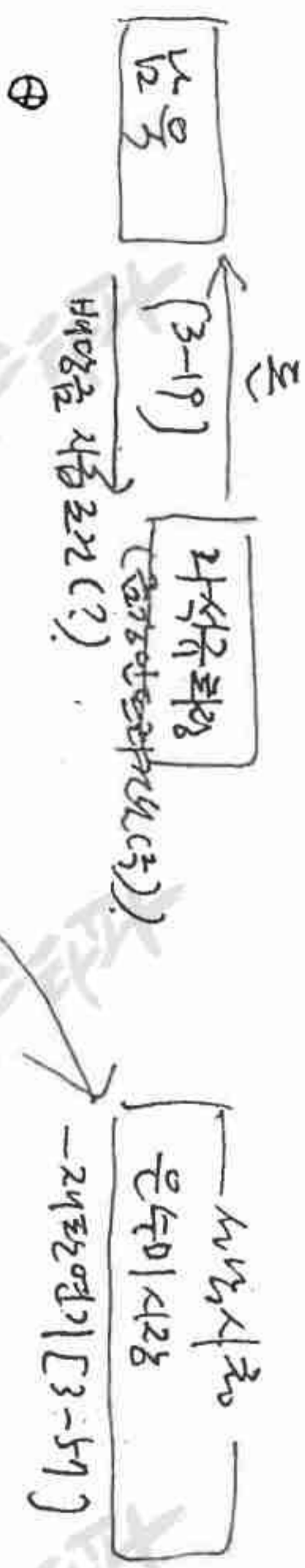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3차 (요약) - 4차판

2020. 3. 24.



2차135

~ 1차시점의 end
(3차24와 2차135)
[3-35, 36]

내국고상등기부 ⊕ 1차135 인, 1차135 (총고상등기, 12월 20일)
[3-50] [3-62]

4차 1차 135 (??) [3-18, 28]

정일권
[정일권 차등]

(3) 1차135
차등: 이상문 135 = (30억 TIF + 40억)
(2차135, 135)

3-26~29

→ 4200원
Al 220원

240원 (100%)
240원

돈 240원

[3-48]

가리들

총 240원
(220/20)
[3-18]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15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240원 50원	240원

100원

총 420원
240원
331-26 27

LH (240원) 240원
240원 240원-240원

- 전기 택시 특약계약
이런사항은 미리 알음 (by 김철)

[3-51]

- 녹음일시 : 2020. 3. 24.(화)
- 녹음장소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2:09:17 대화중, 11:20~)

김 만 배 정 회장은 그냥 우리가 주면 되지 뭘 그걸 고민을 해야 돼?

정 영 학 예, 예.
↳ 정일천

김 만 배 그지?

정 영 학 아 뭐, 용역?

김 만 배 응. 토탈 용역으로 해서.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왜냐면 A12의 용역만 하면은 부인되겠지만, 화천대유의 AMC의 PM으로 해서, 이기성과 5조짜리 공사의 용역을 하나는 100억짜리로, 하나는 70억짜리 내용을 만들어. 응? 충분히 가능해.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초기 용역으로 하면.

정 영 학 그게 원래 돈을 빌려온 데는 그게 잘.. 용역을 주는 거가 하도 부인을 해 와서..

김 만 배 그런데 빌려온 걸로는 모르니까, (...) 해야 되잖아.

정영학 밖에서 빌린 거밖에 없죠.

김만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정영학 예.

김만배 법인으로 들어왔었으면 용역을 못 만드는데, 법인으로 들어온 게 없으니
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방법을.

나는 법률적인 방법을 하고, 자기는 세무적인 방법을 하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100억 남으면 안돼.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좋은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어떤 위험한 것도 큰 이득이 있으면 위험한 게 조금이라도 헛지가 안 됐다 생각하면 안해.

정영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배 알잖아? 지금까지.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남욱이는 내일 온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어.

정영학 예..

김만배 좀 일찍 온다고 우형이 통해서 얘기하더니.

정영학 네, 네, 네.

정일천.

김 만 배

아, 처음에 그러면 SPC에 정 회장하고 이성문하고 같이 들어갈라고 그랬었구나?

정 영 학

네. 여기 이익이 나면, (...) 이익이 나면 개인이 이익을 좀 해서 가지급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제.. 보면은 이익이 나면 이야기해주겠다. 이익 규모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천에서는 상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봐야 개인이 요즘 일시거액을 상여로 받는 거는 다 손금 부인입니다. 대표이사도.

그래서 100억이 이익이 나고 법인세 내고 상여금을 받으면, 100억을 받으면 46% 내야 되고 법인세 22% 내면 거의 한 70% 날라갑니다.

이건 그건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놔서, 그냥 뭐 어떤 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워낙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정리가..

그렇게 해서 가지급 100억 갚을라고 200억 쓰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5억, 10억이야 상여금을 주면 비용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46%는 감당할 만 합니다만, 요즘은 일시거액의 상여금은 다 부인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 만 배

통상 그러니까 용역 아니고, SPC 용역이야. 방법이.

정 영 학

그런데 인제 정 회장은 한 40~50억은 그렇게 주고요. 용역으로.

맥스 30억, 맥스 40억 사이는 실제 용역 근거가 있으니까 주고, 나머지는 이익분배 성격이라 그냥 뭐 SPC 구조로 줘도 될 것 같긴 하고.

대신에 이걸 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성문 대표는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상여를 받아가는 거는 너무 커서 손금 부인, 이익 나면 다른 방법으로.

김 만 배

어떤 방법? 널 그것 때문에 보자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방법?

정 영 학

그건 아직, 인제 고민해봐야 됩니다. 인제 막 질문들이 와서, 가지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김 만 배 가지급이 한, 저 뭐야, 지금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가지급이고.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이건가? 이 대표의 가지급금이 얼마지? 136. (...) 136억.
나익성문대원

정 영 학 상여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 만 배 개 나중에 120억은 상여금 받아갈 텐데.

정 영 학 그것도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커서.
거기에다가 이 136억을 보탤라면, 상여금 하면 46%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도 인정 안 되면 (...) 봐야 돼요.

김 만 배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렴풋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랑 남욱이
가 공통비를 부담하기로 했잖아.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뭐 둘이 비율은 얼마인지 나눠서 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120억은 넘을 거야.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 성문이 120억을 그렇게 주는 거야.

정 영 학 이쪽에서 비용 떨 수 없습니다.

김 만 배 아, 비용을 못 떨어?

정 영 학 예, 급여를 받아야 땀니다.

김 만 배 아..

정 영 학 제가 지난번에 차등배당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주식 한주를 주고 정말 말썽을 일으키고 말 안 들으면 그게 인제,

김 만 배 그런데 그거는..

정 영 학 액면 병합을 하면 주식이 없어집니다.
한주밖에 없고 제가 5천주를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주가 정 뭐 반대
매매도 안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단주를 만들면 됩니다.
한주 갖고 있으면 액면병합을 해서 2주를 한주로 만드는 액면병합.
만약에 5주 갖고 있으면 10주로 액면병합 하면 주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주가 말 안 듣는 거에 대한 그걸 했구요. 그 얘기를 했고.
주주권 행사는 합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한주이기 때문에 주주
권 행사를 못하게. 너무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인제..

김 만 배 그런데 차등배당은 나중에 시비거리가 돼서 세무 정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 응?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악
용될 소지가 있어서 기반 (...) 이런 데에 다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

정 영 학 그런데 그건 법적인 문제이고, 세무당국은 어차피 세금을 내고 나눠주는
돈이라 간섭을 안합니다. A가 배당을 받나 B가 배당을 받나 똑같은 때문
에.
그래서 저는..

김 만 배 나중에 그러면 공통비는 무슨 명목으로 할라고?

정영학 공통비는 일단 뭐 화천에다 배당해줄 생각입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화천에다 배당해줄 생각입니다.

김만배 화천에다 배당을?

정영학 예.

김만배 어떻게?

정영학 받을 수 있는 만큼 배당을 해드려야죠

김만배 응?

정영학 50억이건 60억이건 화천에다 이익배당을 해주는 거죠. 주식을 사가시면.

김만배 어떤?

정영학 제가 주식을 드리고 이익배당을 하고.

김만배 우리 주식을?

정영학 예.

김만배 차라리 성문이한테 그랬으면. 그렇게 할거면.

정영학 거기는 비용 떨 게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니까.
저희는 이성문 대표 비용을 떨 수는 없어서.

김 만 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화천에다 니네 주식을 주고 배당을 하고?

정 영 학 네. 거기서 이성문 대표 상여금 떨 수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그.. 그래?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세금은 이중적으로 나가야 되잖아? 배당 받는 세금도.

정 영 학 상여금을 이성문 대표가 120억만 상여금을 받는다면 그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한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여금 비용 처리가..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화천에 니네들이 돈을 배당해주면 화천은 세금을 낼 거 아냐? 배당세.

정 영 학 대신 상여금으로 떨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 만 배 상여금?

정 영 학 예, 예. 상여금으로 떨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김 만 배 아, 그 돈으로 이성문을 주니까?

정 영 학 예. 비용처리가 저희는 되고, 형님 거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이렇게 해서.

김 만 배 아, 이성문이가 자기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 영 학 예. 안했으니까요.

김 만 배 아니 저기, 초기에 했잖아?

정 영 학 5호에서 떨어야 되는데.

김 만 배 응?

정 영 학 5호에서 떨어야 되는데 5호에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 만 배 5호에서,

정 영 학 5호에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김 만 배 5호에 처음에 대표이사잖아.

정 영 학 (...) 페이퍼컴퍼니인데요.
이성문 대표가 AMC에서 받는 건 많습니다.
그 좀 B1에서 뭔가 좀 정리가 좀 잘 돼야 형님 것도..

김 만 배 그런데 B1에 지금도 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SPC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시원하게 떨 수 있는 게.. 어떻게 털어?
또 다른 세무적인 문제만 남고.

정 영 학 아니, SPC 와서 70억 떠는 거는 팬텀을 것 같구요, 이거는. 제3자니까.
그다음에,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나는 정일천 것, 그냥 세무처리하면 되지. B1, A12에서.
정일천이 세금 내게 해야지. 증여도 내고.

정 영 학 세금 냅니다. 어차피.

김 만 배 그래. 그러면 이성문 통해서 직접 안 주고 A12가 직접..

정영학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용역은 실제 용역을 했으면 거기서 떨고, 이기성 사장을 여기서 떨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아니, 이기성이는 소송 넣었다니까. 처음에 전체 용역에 대한 소송. AMC 초기 용역에 대해서. 방향 잡고 뭐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화천대유에 소송을 넣어야지. 금액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지급시한에 대한 소송. 그래서 지급시한을 앞당겨달라.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강제조정해서 주면 갚으면 되니까. 그게 더 쉽지.

정영학 (..)

김만배 응? 그게 더 쉬운 거지.

정영학 그러면 이기성 사장 떨고, 여기 80개 떨고.

김만배 응. 이성문이꺼는 뭐 B1에서 떨든, 아니면 직접 쥐서 털게 하든. 나는 그냥 컨펌 했어. 세금을 많이 내도 그냥 할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 그 방법. 응?

그거 가지고 지랄해야 가지급금이란 그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이 성문이 120억은 자기랑 욕이가 할거면 그렇게 해서 털면
은..

처음에 페이퍼컴퍼니로 용역했던 안 (..) *정영학*

그거나 한번 잘 생각해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봤으니까.

정영학 예.

김만배 나는 그냥 B1에 대해서, B1에 SPC로 특별히 그걸 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 잘된다 하더라도.

정영학 잘 됐을 때에 대한,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B1이 300억이 남습니다. 법인세를 내면 200억. 200 한 60억 되겠죠. (...) 이 260억을 차등배당 주는 겁니다. 이성문 대표한테 성과급으로.

김만배 다 주는 거야.

정영학 성과급으로 차등배당을 주시면 이성문 대표는 46% 내는 게 아니라 36%만 내는 겁니다.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 금융위기에.

정영학 그.. 판교에 땅인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돼요.

김만배 형은 그 염려야. 뭐냐면, 봐. 정 안 되면은,

정영학 형님, 나중에 B1 하다가 망하면 걷어야죠, 돈을. 걷어갖고 하시면 되죠 뭐.
정 안 되면 사가라 하시면 사가야죠, 저희가. 비율대로 사가면 되죠 뭐. 300세대니까. 그럴 각오는 돼 있습니다.

김만배 천억인데.

정영학 천억인데, 땅값은 땅은 남지 않습니다.

김만배 땅을, 땅값을 내야 될 거 아냐. 이거는.

정영학 그럼 비워서 해야죠.

김만배 아니 왜냐면 형은 얘기하는 게, 은행문이 닫힐 거에 대비한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은 은행문 닫힌다고 100% 장담해. 골드만삭스가 위험해.

정영학 아, 그렇습니까.

김만배 금융은 지원금이 어딴어.

정영학 그냥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판교는 강남부동산인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한번 고민해보시죠, 형님.

김만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정영학 예. 최악의 경우에.

김만배 무슨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 강남인 게. 지금 그래도 제 가격 받을만한 데가 판교인데.

정영학 판단은 형님이 하셔야죠.

김만배 아니, 생각이 어떠냐 이거야. 형 생각이. 만약에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 민주당이 우리 도와줘, 못 도와줘?

정영학 한달 정도 지켜봐야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그때 가면 더 제 가격 못 받는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지원금이 어렵다고.. 세계 슈퍼리치들이 금을 사는 거는 인류역사상 금의 역사에서 계속 될 거야.

정영학 예.. 아,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데 오늘 되게 또 분위기가 좋긴 한데, 일시적인 거..

김만배 100조를 풀었잖아.

정영학 예, 예. 건축심의회가 여의치 않습니까? 잘 안 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 만 배

아니 그런 것 형은 물어보지도 않아. 왜냐면 성문이가 한다니까.
개입도 안해. 간섭도 안해. 왜냐면 개한테 맡겼으니까.
그런데 돈으로서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모든 게 황이 되거든.
잘나든 뭐든 무슨 소용이 있어. 시장이 죽었는데. 내일 모레 실업자가 줄
을 서는데.
기업이 반도체가 팔려야지 삼성전자 주가가 유지되는 거고, 시장이 있어
야지 차를 파는 거지. 독일은 시장을 이미 공장을 다 문 닫았는데.
(어, 삼촌이야. 어. 삼촌 회의중인데. 그래, 열심히 해. 응,응. 응~)
내가 볼 때 IMF 보다 더 힘들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낙관적이다, 시장이.

정 영 학

저는 뭐 낙관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진짜 IMF 때도 지방은 정말 폭락할
때도 강남은 어느 정도밖에 안했고. 진짜 IMF 때도, 그 이후에 금융위기
때도 우량 입지는, 부동산은 그냥 입지가 첫 번째고, 둘째도 입지, 셋째
도 입지인데, 되게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 그냥..

김 만 배

오케이.

정 영 학

그건 한번 형님이 고민해 보셔야죠. 이걸 뭐..
그래서 땅에 대한 거는 제가 워낙 촌놈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되
게 있습니다. 이거 남 주기 아깝고 이렇게 있어서.
인제 뭐 경제력 있는 분이야 별로..
땅 욕심은 있죠 인제. 남 주기 아까운 땅이다 싶어서. 판교 땅인데.
그거를 한번 물어보라 하십시오. 인허가 났을 때 정말 그..
그럼 조건부 승인을 지금 내달라.
조건부 승인은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빨리.
승인, 은행에다가 승인을 빨리 넣되, 어떠한 조건이면 승인이 나도록 심
의를 끝내버리면 이걸 미리 기표도 가능합니다. 인출 승인도 가능하기 때
문에 혹시.. 그런 걸 빨리 좀 올려달라. 액션을 좀 빨리 취해보고.
분양가 허들은 좀 문제가 된다면, 아무리 해도 분양가가 진짜 뭐 2천대
중반밖에, 초중반이라 하면 결손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개인적인 생각에 다행히 판교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후분양이면 아파트는 2년이지만, 저희는 후분양 해봐야 6,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양가 4백만원 차이면 400억이거든요.

그것도 6개월 이자가 얼마나 따져보시면 별로 안 듭니다.

금액적으로는 요즘 둔촌주공 회의를 가봐도..

그런 데들은 후분양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금융비용이 2천억, 3천억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막 따지죠. 그럼 4년 후에 분양가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

그런데 8개월 후는 지금보다 떨어져도 그닥 많이는 아니지 않겠느냐에 대한 예측만 된다면 한번..

김 만 배

아니 나는 인제 우리 입지에 대한 의심, 내 사업에 의심 이런 건 없어. 단 뭐냐면, 형은 거시적으로 금융이 최악에 갔을 적에 중도금 상환압박 리스크하고, 잔액 잔금대출이 없을 텐데..

정 영 학

정 그때는 그냥 계약 해지하고 하면 불이익인데, 저희는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봐야 이자인데.

김 만 배

그러면 중도금은 누가 내?

정 영 학

해지하면 중도금 안 내는 거죠, 저희가. 아, 하게 되면요?

김 만 배

아니, 해지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성남에다 반납하면.

정 영 학

그러면 중도금을 반납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금 들어오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냥 상계처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으면 주겠다.

김 만 배

은행이 압박을 하면?

정 영 학

그건 이야기를 해봐야죠.

김 만 배 해봐서 안 된다면?

정 영 학 음...

김 만 배 그걸 염려하는 거지.

정 영 학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중도금 반환채권을 애한테 가고 자기네가 대출 연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개..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럴 거라면 우리한테 주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부정확하다는 거지.

정 영 학 그 다음에도 이걸 받아가는 데는 우량업체일거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우량업체라고 하면 하나은행하고 저희는 인제 중도금 반환채권을 애한테 양도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애하고 상계처리하고 중도금 받은 걸로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저도 이거는 뭐 아직 고민 안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김 만 배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정 영 학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

김 만 배 알고 있어?

정 영 학 예, 예. 중도금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아니, 하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시다. 저기 때문에. 혹시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이 부장하고 매일 얘기해서 뭐 잘해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데, 상황이 나빠지면.. 비가 오는데 이 부장이 끝까지 우산을 받쳐주지는 않을 거라고.

정영학 그것도 물어봐야죠. 차라리 그러면 기표를 빨리 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진행을 할라면 심의 나면 원래는 분양승인 나고 그
때 할 텐데요. 건축심의 받고 바로 조건부 저기를 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만배 그래서 이 대표하고 내일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의를 하더라. 얘기하라고
그러더라. 이 대표한테.

정영학 네,네,네. 은행 컨디션을 좀 (...)하라..

김만배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할 건지.

정영학 예,예.

김만배 그때 최악의 상황이..

정영학 예. 은행들은 화천한테 빌려주고 싶어서 난리죠.

김만배 최악의 상황인데?

정영학 최악의 상황에서.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화천 저희야 뭐.. 다른 데 쟁판 없는 데서도 땅 담보 잡고 빌려줄까
말까 수익이 없기 때문에. 화천 정도면 줄서서 빌려준다고 하지 않겠습
니까.

김만배 그래도 한번 물어봐.

정영학 화천이면 일단 퍼포먼스가 있고, 잉여금도 쌓여있고. 당연히 빌려줄려고

줄 설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오케이.

정 영 학 또 저희가 기업문화가 되게 좋게 평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한테. 화천이 되게 그냥 좀 깔끔한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김 만 배 나는 뭐 SPC 통해서 200억까지도 B1에 대해서 터는 거. 오케이.

정 영 학 B1이 좀 잘 돼야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김 만 배 B1은 잘 되겠지. 저것 토지가 좋은데. 그지?

정 영 학 네. 안 되더라도 이익을 만들어서라도 좀, 저희가 비싸게 사주는 한이 있어도, B1에서 이익이 나는 모양새면 정리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내부 정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생겼다 하면 떠안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B1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정리하기가 형님이 훨씬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김 만 배 후분양이 가장 좋아.

정 영 학 후분양으로 가고 리스크가 커지는 걸 떠안아주면 됩니다.

대신 이익은 화천이 갖도록. 후분양이 돼갖고 분양이 높아졌는데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사가면 돼요. 채당 1억씩 붙여서 뭐뭐뭐 한 채씩 사가도. 형님도 사가고 저희도 사가고 사가면, 그 이익이 화천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비용 정리하기가 편하죠.

김 만 배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성문이한테 사가면 되지. SPC 성문이가 돼 있으니까.

정영학 그러면 저희 모두가 다 편하죠. 비용 정리하기가. 형님도 편하고. 형님도 사실 136개 가지급 정리할라면 260개 되는데..

김만배 나는 할라고 그랬어.

정영학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형님.

김만배 세금 다 정리하고.

정영학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상여금이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법인세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300억은.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김만배 나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지. 성문이를. 형이 주식을 화천대유에 형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천화동인에다 파는 거야. 일부를.

정영학 그거가 46% 세금이라고 최근 결론이 났습니다.

김만배 아, 46%가 세금?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럼 주식을 담보로 빌려서 성문이 빌려주는 걸로.

정영학 그것도 그럼 끝내 갚으셔야 돼요. 이자에 대한..

김만배 아니 그거야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이자는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충당하면 되니까.

정영학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만배 나는 이기성이 문제는 이기성이랑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 솔루션이야. 그러면 나에 대한 이미 세금처리는 했을 거라고.

정영학 저는 그 소송으로.. 그냥 합의해서 하는 건 반대구요.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부에서 합의시켜주는 건 인정합니다.

김만배 오케이. 강제조정을..

정영학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간섭 안합니다. 그거는.

김만배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거는 법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체..

정영학 예. 절대 간섭 안합니다.

김만배 간섭 안하고. *→ 정일천*
그리고 이 70억 부분도 똑같이 하는 거야.
하나는 용지나 모든 거에 대한 PM이고 이거는 저 A1,2,11,12에 대한 전체적인 저기를 70억으로 해서..

정영학 그것도 그럼 나머지 B1 갖고 이성문 대표 가지급 상환하는 걸로 만들어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간편해, 그게.
지급시기를,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시기를 한 1년 땡겨주고 액수를 한 10억 깎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강제조정해서 저쪽에서 오케이 하는 걸로..

그지? 한번 잘 코치해줘.

정영학 예. 아니 형님이 다..

김만배 자기가 잘 아니까.

정영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만배 만약에 그러면.

정영학 형님 말씀이 최우선이죠 뭐.

김만배 아이, 우리 정 회장이 최고지.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저는 뭐..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 형님도 부담이 훨씬 적고, 다들..

김만배 왜냐면, 정일천 사장은 A1, A2, A11,12 이 PM으로 했다고 소송을 미리 짜고
넣는 거야. 그래서 강제조정 당하게. 70억에.

* 3차 - 28 쪽

정영학 예..

김만배 한 80억짜리로 해서.

정영학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도 소송을 하겠다면 그렇죠.

김만배 아니 아니, 형 생각이야. 인제 성문이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
그런데 이기성이는 그렇게 넣으라고 했거든. 성문이한테.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걸려있어서..
돈 빌려올 때 라회장 같이 배당금 팔고 빌려온 건지.
욱이랑 알지. 욱이한테 저 우형이 통해서 전달은 했는데.

↓
욱이
우형

정영학 아휴~

김만배 (..) 할 것 없어.

정영학 인제 마지막 고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1년 전보다 많이 올라줘서 뭔가 좀..

김만배 B1에 대해서 코치를 잘해줘. 성문이를.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니 나는 그래서..

정영학 예. 후분양 아이디어 뭐, 저는..

김만배 처음부터 안 되면 후분양 가.

정영학 예. 아니 그런데 그거를 형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개새끼 소새끼 할까봐
다들.. 아니 왜냐면, 그걸 다 내가 지란 얘기냐..

김만배 내가 져야지. 그런데,

정영학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같이 지기는.

정영학 후분양해서..

김만배 형은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형은 후분양은 안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적자가 나면..

김 만 배 그럼. 안 되면 파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그 리스크를 형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해. 응?

정 영 학 후분양이 되면 미분양 시 각자 사가야죠.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정 영 학 분배하십시오. 분배. 예를 들어서.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은 앓는다니까. 후분양.
차라리 형 용지를 성문이가 사가는 게 낫지.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하는 얘기가 정일천하고..

) 정 영 학 아, 돈 내고 사가라? 그것도 방법입니다.

) 김 만 배 그래. '사가. 그렇게 전망이 좋으면 사가라'

) 정 영 학 예. 그것도 괜찮네요.

) 김 만 배 응. '모든 걸 형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정 영 학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김 만 배 지난번에 정일천보고 사가라니까 안 사간대.
돈 필요 없거든. 그지? 형이 계약금만 손에 쥐고 있으면 되지.
빌려주면 되잖아. 그지?

정 영 학 예. 값은.. 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죠 뭐.
만일 안 되면 상여금 상계처리하면 되니까요.

김 만 배 한번 제안을 해봐.

그때서부터 리스크는 이성문이가 안는 거지.

정영학 두 사람이서 170억을 지는 거죠. 그냥 리스크.

김만배 그럼.

정영학 예.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형님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 왜?

정영학 잘 되면 170억은 당연히.. 아, 비용은 떠네요.

김만배 응?

정영학 상여금 120억하고 70개. 190개 가져가서 둘이 추가되는 것 나눠먹어라.
할까요?

김만배 아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해야지.

정영학 190억 이상의 이익이 나와 뽕뽕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190억은 버는 거고.
그러면 손해가 나면 그..

김만배 아니, 손해나면 형이 안는 조건으로 안하지.

정영학 손해가 나면 거기서 까야죠.

김만배 개네들이 까야지.

정영학 예. 거기서 까야죠. 형님이 까야죠. 예를 들어 100억을 빌려주고 손해가
나면 까는 거고, 이익이 나면 그냥 이익이 나는 것 중에 190억까지는 형

님 비용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먹고. (..)

김 만 배 그건 모르겠네.

정 영 학 땡 먹고 알 먹고이긴 한데요.

김 만 배 내가?

정 영 학 예. 최소 안 되면 그게 어차피 120억 줄 것 70억 인센티브 까면 되는 거고. 100억 날리면요 형님.

김 만 배 한번 얘기해봐.

정 영 학 잘 되면 190억까지 형님 비용 아끼시는 거고. 할까요?

김 만 배 아니 한번 물어봐. SPC보다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봐.

정 영 학 전매를 해주겠다면 허용이 될까요?

김 만 배 전매?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물어봐야지.
아니 뭐 저기 한다면 전매로 안 되나? 똑같지. 에이치엠지 같은.

정 영 학 정 회장이 사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돈 빌려주겠다. 사가라.
이익이 190억까지 나는 거는 형님 비용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 먹고,
모자라는 거는 100억은 갚아라. 최악의 경우 100억만 갚아라.
폭이 그럼 폭이 190억 폭이 있으니까 충분하겠는데요.
형님이 이야기하셔야지 제가 뭐..

김 만 배 그 방법을 한번..
그 직원들 인센티브 나가는 거, 그거를 성남의뜰에다가 (...) 전체에서 걷는 건 이제 못하지?

정 영 학 그거를 지금 집어넣어서 하시게요? 각자?

김 만 배 아니, 그래야지 나중에 손해도 없을 거 아냐. 괜히 형이 50% 안지만, 너랑 영학.. 옥이랑 해봤자..

정 영 학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어차피.

김 만 배 비용 인정 안 되고, 손실이 많을 거 아냐?

정 영 학 실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하면 그건 법적으로 더 문제 (...)

김 만 배 그러니까 아예 성남의뜰 주변들 인센티브, 예상 인센티브를 저 특금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주는 거지.

정 영 학 각자 그럼 법인에서 다 주라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렇지. 그게 인정이 안돼?

정 영 학 네,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남옥이는 손해인 게요, 60억을 줄라면 세금을 메꿔줘야 80억입니다. 그다음에 빼야 되잖아요.
저하고 옥이가 60억씩 부담하기로 예를 들어서 했으면 실제 60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80억 드리는 겁니다. 세금 내고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 만 배 왜 60억이야?

정영학

세금을 내고 줘야 되거든요. 22% 내고 나머지를 줘야 돼요. 화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으로 주는 거나..

김만배

140억. 왜냐면, 봐. 이성문 120. 양완범 50. 김석배 30인데 20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심종진 15억. 진양의 15억. 박현덕 15억. 그다음에 이한성 5억. 류준열 5억. 류시홍 5억. 김종길 5억. 강차장 5억. 박수현 5억. 광병채 5억. 270억. 그러면 135억이야. 나머지 50억은 두 블록에서 받는 거는 몇월 한 몇년 유지하는 비용으로 주고. 그러니까 135억이 딱 나오는 거야.

정영학

135억을 드릴려면 세후에 드려야 되니까.

김만배

그러니까 처음에 애네들을 화천대유를 비용을 까면서 해야지, 이걸 안해 놓고 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된거지.

정영학

아니 저는 처음에 A12에서 이미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12가 사실은 A12에서 충당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족한 거가 인제 이기성 사장, 이성문 대표 이걸 정리하다 보니,

김만배

이기성은 형 개인적으로 줬던 거야. 너 (...) 부담하라고 안했어.

정영학

A12에서 충당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김만배

우리가 이기성은, 또 김수남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어. 흥 회장은 인센티브고. 거기에 성문이 그러는데 400 한 20개 남는다고 그랬다고.

정영학

제가 옛날에 200개만 남는다고 그래갖고..

김만배

양완범이랑 이성문은 200 한 50개 남는다고 그랬어.

정영학

420개.. 400개 남는다고.

김 만 배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충당해야 돼. * 13차-54쪽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50억 약 2쪽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정 영 학

5억씩입니까? 50억입니까?

김 만 배

아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정 영 학

다섯.. 뭐 50개 곱하기,

김 만 배

60억. 그러면 자, 최. 최재경, 박영수.

정 영 학

300억이죠.

김 만 배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응? 그러면 얼마야?

정 영 학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김 만 배

300..

정 영 학

20.

김 만 배

320이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320이면,

정영학 320억.

김만배 응, 320억. 윤창근. 아니, 다시 한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선근. 왜 모자라지, 사람이? 써서 해봐.
김수남, 윤창근, 박영수.. 윤창근 15억. 윤창근. 그다음에..
320억이네. 그지?

정영학 예. 50..

김만배 320억. 응? 320억이면, 100억 남는 거네. 저기는. 그지?
그러면 저걸로 그거 뭐야, 저것까지는 되네. 이기성이 것까지는. 그지?
내 말이 맞지?
김수남. 홍선근. 맞지?

↓
(즉) 더감, 더투어사

정영학 예. 50개씩입니까?

김만배 50억.

정영학 50개씩?

김만배 응. 200. 300. 320.

정영학 320. 원래 이게 사실 200 몇십억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 정산을 해보면, 남는 거는 일단 갖고 계셔보시고.

김만배 322억이면 이기성 것까지 여기서 해결을 하니까 괜찮네.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지? 420. 응?

그럼 비용만 쓴 것 190억만 하면 하는데, 거기서 니가 니네들이 50억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뭐야..

↓
기안타르니스
MSBT

정영학 일단 A12는 생각보다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김만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봐.

정영학 네, 형님. 그거 형님 팬찮습니다. 쓰실 데도 많은데요.

김만배 120억 쓰면 되겠다.

정영학 저 그래서 나중에 진짜 B1만 잘 되면 형님 부담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다 좋고, 저도 편하고. 일단 그게 안 되면 아휴~ 되게 머리 아픉니다.

김만배 아니, B1은 형은 개인적으로 그래.
뭐냐면, 최악은 면한다. 최악이면 만약에 면해서 하고,

정영학 그걸 그러면 빨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100억 아낄라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저기 500-600억이 다 들어가면 어
떻게 할 거야.
나는 조만간에 현금이, 현금이 떨어질 거라고 본다. 현찰 가지고 있어야
돼.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저거는 현금이 아니라고 봐.
저거는 내놓으면 사갈 사람 많을 거야. 시장에서.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정일천 사장은 A12에 대해서 소송 않고 네 블록에 대한 PM을 했다는 소송
을 넣고. 화천대유를 상대로. 충분히 가능해. 이기성이 100억도 맞나 봐.

*3차-19쪽

지급을 빨리 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금액을 달라가 아니라, 지급을 빨리 해달라.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80억 넣었다 10억을.. → 제안치
그쪽에는 한 120억을 넣어서 100억으로.. → 이기성

정영학 좋은 안입니다. 소송으로.

김만배 성문이는 세금 내야지.
육이는 이 새끼 재창이랑 합의가 잘 안 끝나나..

정영학 (웃음) ^{나우} 기제2123

김만배 (웃음)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참~
(..)

정영학 아유, 아닙니다.

김만배 형은 (...)

정영학 예?

김만배 형은 너 뭐 (...)

정영학 예..

김 만 배 니 말이 맞는데, 한 420억 남는 게..

정 영 학 그것도 사실 솔직히 돈을 좀 비싸게 빌려왔기 때문에 한 30~40억 깨져..
원래는 450개가 남는 거구요. 30억은 좀 저기고.

김 만 배 양완범이랑 이성문이보다 니가 더 정확해.

정 영 학 구도는 제가 짚었지 않습니까.
형님, 450개도 잘못 만든 겁니다, 그게. 420개도 이익을 왜 손해를 봤냐
면요, 저기만 좀 안했으면 이익이 더 낮을 겁니다. 500까지 갔다 왔습니
다. 480억까지.

김 만 배 뭐가?

정 영 학 초반에 300 몇십개를 안 빌려왔으면.
그런데 물론 거기서 한 30개 깨졌기 때문에..
420개도 좀 저기하면 거기서 받을 것들 이자 좀 붙여서 받으시면 플러스
날 겁니다.

김 만 배 재창이하고 통화 안해?

정 영 학 네.
아 진짜 경기가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김 만 배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경기 전망하거나, 경기를 전망할 때 거의 틀린 적 없
어.

정 영 학 틀린 적 없습니다.

김 만 배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솟다운 되고.

정 영 학 갑자기 800명씩 죽으면.. 어디 보니까 이탈리아 요양원은 아예 그냥,

김 만 배 시체가 썩고 쌓여있대.

정 영 학 시체가 쌓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심각한..

김 만 배 그럼. 그럼. 네이처 오브 밀라노는 다 시체야.
그런데 거기도 BMW 문 달고, 포르세 문 달고, 벤츠 문 다고, 모든 공장이 문 달을 거야. 독일. 세계에 사실은 보급산업의 중추기능은 독일이거든. 자, 일본 일곱 곳 문 달아. (...)부터 문 달아. 시장이 없는데 반도체를 어디다 팔 거고. 형은 벌써 저기는 셋다운 됐다.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우리나라 어설피게 지금 경제정책 풀리는 게 저거 굉장히 큰 실수한거야. 외화가 나가면 안돼. 힘들어도 외화가 외화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게 해 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미국이 이럴 때는 재정을 확대해서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굶어죽지 않게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주는데, 공산주의 같이 세금을 더 걷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택시장을 풀어야 돼. 돈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정부는 주택시장을 움켜쥐고 있고, 고용지원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50억 간신히 했어. 반협조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돼. 한 막 500조 정도는, 1년치 예산만큼은 해서.. 남으면 하면 되니까. 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걸 (...)

정 영 학 엄청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죠.

김 만 배 우리는 회의를 하잖아. 금융결제 (...) 데이터를 갖고.

그런데 사람들은 봄날인줄 알고.. 이제 지옥이 열렸어.
형이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죠.

김만배 안해. 안해. 미국시장을 보면 알거야. 미국이 늘 (...)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은 재정적자하고 모기지론만 저거 할 수 있는데, 법
을 바꿔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
어. 그건 뭐냐면 이미 세계는 성장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꺼져서 프로펠
라가 멈추는 것을 막아야 된다. 강제로다 돌려야 된다 그래서 무차별적으
로 하는 거야.

정영학 네..

김만배 우리나라는 미국에 한 주도 안돼.

정영학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만배 정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영학 그 상황에서도 하여튼 은행 가능한 건지를 체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싶
으면 빨리..

김만배 내가, 불륨을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정영학 네, 네.
안 된다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너 그래야지 이성문이 통해서 나중에 정재창, 남욱이 대항하지.

정영학 그렇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정 영 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럼.

) 정 영 학 이 대표하고. 이 대표 정도는 돼야 되죠.

) 김 만 배 내가 너 공격한지 아는데, 나는 누가 어떤 정보를 해도 공격한지 다 알
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얘기 안한 거야. 너 나를 뭐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정 영 학 그런 거 없습니다.

김 만 배 나는 너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고 있어. 니가 안 지키는 거지.

정 영 학 아니, 저도 안 지키는 적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번 물어보시면. 이 대표한
테 물어보시면.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남욱이 얘기. 남욱이랑..

정 영 학 그거 다 지어낸..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 있습니다.
남욱이 와서 막 불만 토로하면 '니 말도 맞다' 동의해주고.

김 만 배 그런데,

정 영 학 ‘그런데 형님 사업 잘 하신다’ 저런 거죠. 지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통화하다가 지도 불만 있고 그러면, 형님 거기서 공감이라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 대신, 마지막에 그래도 좋은 쪽으로, ‘형님 진짜 형님은 그냥 성인군.. 약간 좀 도덕적이시지 않냐. 나는 니가 하면 못 믿는다. 형님이 하니까 믿는다’ 그런 이야기..

김 만 배 남욱이, 전설의 남 변호사인 거 알지? 건설업계에서.

정 영 학 그런데 그 뒤에는 빼고 앞에만 얘기하니까 제가 나쁜놈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만 배 너, 전설의 남 변호사인 거 알지? 건설업계랑 은행권에서. 이걸로.

정 영 학 이걸로요?

김 만 배 소문에 알지?

정 영 학 소문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만 배 조금 그런 게 있지.

정 영 학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저희 법인도 잘 모릅니다.

김 만 배 너는 소문 안 나야 돼. 너는.. 너는..

정 영 학 수수료 좀 받은 거 있고.

김 만 배 너는 초기에, 초기에 저 이■■■■이니 뭐니 이런 애들 때문에 니가 니 법인이 소문나도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것 이외에는 정재창이가 떼어본 것 이외에는 소문 다 나. 남욱이가 나있지. 남욱이는 전설의 남 변호사야.

정영학 전설에?

김만배 물어봐. 기성이가 그 얘기 하더라.
현대건설 뭐 은행권 이런 모임을 했는데, 대장동 얘기가 나왔대. (...)

정영학 남욱이 이야기, 남욱이가 나오면 안됩니다.

김만배 그런데 나왔대. 2대주주라고. 천억대.
그래서 남욱이..

정영학 자랑하고 다니는가 봐요.

김만배 옛날에 자랑한 게 나오지.

정영학 그 좀 참지..
아니 형님, 소문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처음에 막 하다보면 공감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김만배 너 그리고 내가 인제 이야기하는데,

정영학 예, 예.
↳ 정재창

김만배 재창이는 한 사람만 턴다고 그랬어. 너한테 괴롭힌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한 거야, 재창이한테.

*1차 4

정영학 *3차 35

*10차 61

정영학 잘 하셨습니다. 저 그거 장난 아닙니다, 개.

김만배 응. 너, 내가 재창이를 안 막았으면..
나는 재창이한테 정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너무 정확한 정보들이
갔어. 의심하는 바는 있어, 형이. 왜냐면 여러 가지 연결구도상 의심하는
거는 형은 있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해. 응?

의심은 해, 형은. 아니, 의심은 하지.
그런데 그 얘기를 의심을 형으로서, 형으로서 누구를 의심하는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의심은 가.
하지만 나는 니가 형을 섭섭하게 했을 때도 재창이를 나무랜 사람이야.

정영학 아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습니
다.

김만배 그 새끼(..)으로 형, 저는 한 사람만 펠려고 그래. 감나무 하나만 편대.
그래서 내가 그건 생각 안해. 나 정영학

정영학 제가 그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뭐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만배 이걸 달라고 할게.

) 정영학 네.

) 김만배 더 할 거야?

정영학 아닙니다.

김만배 (뜨거운 물..)

정영학 카톡입니다. 카톡. 가족방.

김만배 응, 응. 그래.

정영학 가족방.

김만배 알았어?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만배 그래. 그리고 너무 정교한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정영학 저기서요?

김만배 재창이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알았냐 그러면, 니가 띄엄띄엄 아는 거를 말한 거를 취합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애. 니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그지?

정영학 예.

) 김만배 아니 모르지. 너 잘할라고 그런 게 있어갖고.

) 정영학 그런 거 없습니다.

) 김만배 아니 가끔 인제. 너도 모르게 얘기한 게 있는데.

) 정영학 그래도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만배 그래. 그런데,

정영학 동선을 아는가요?

김만배 응?

정영학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걸 아는 건가요?

김만배 그럼. 그리고 이 저거를 알지. 너의 (..)까지.

정영학 예?

(주) 천화도인 5호



김 만 배 우리 회사에서 샤넬 넘버 파이프, 그런 거를 알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은행 아니면 모르는데.

정 영 학 기업은행에 가 있는 정보들은 알 수 있어요.

김 만 배 아.. 거기서 나왔겠구나.

정 영 학 기업은행에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초기에 PF할 때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 만 배 남옥이 것도 거기 가 있겠는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남옥이가 입 싸게 안 다녔잖나.

정 영 학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포장을 잘하긴 했습니다. 화천으로 돌렸다가 명의신탁 해지
를 해서 갖고 그거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요.

김 만 배 그래. 그거 다 밝혀져.

정 영 학 그것도 제일 고민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화천 명의로 다 했다가, 이 대표 명의로 다 했다가..

이걸 좀 놔둬야 되는데. 이 대표 명의로. 해지 안하고.

그랬으면 좀 통제도 되고..

그런데 또 돈이 들어가 놓으니까, 하~ 또 다들..

하여튼 경기 어렵게 보시고 대비해라 하시는 것, 되게 중요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 만 배 형은 지옥인데, 퍼지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형은 유사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의 도전이라고 생각해.

정영학 저렇게까지 죽는 것 보면..

김만배 경제사회. 경제지형이 엄청 변했잖아. 경제지형이. 지역에는 분명히 설비산업도 다 돈을 벌고 그러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좀 더 휘청대. 왜냐면 뭐가 팔려야지 시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꺼지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래. 니가 마음이 어떻든, 이 사업이 끝나고 향후 몇 년간은 너랑 나랑 마음을 맞춰야 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나는 결정적으로 너한테 내가 차분하고 더 이상 안 다가가는 이유가 그거야.

정영학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유 씨팔, 너무 어리석은 새끼. 그래도 참아야지.

정영학 형님,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잘 애들이 잘 이용해 먹었을 뿐입니다. 실제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김만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성문이한테도. '야, 니가 형 새끼야 (...) 새끼야'

정영학 형님, 그거는 솔직히 정말 가정, IF입니다. IF. 둘이 크게 인제 뭐, 이 대표 뭐 어찌고저찌고.. 기본적으로 동문 선후배고 친함이 있다. 친하다. 만약에 안 친하면 확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싸우면 아유 뭐.. 그러지는 않지만,
먼저 물어봐요.

김 만 배 누가? 옥이가? 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정 영 학 옥이가 이성문 대표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되게 견제도 많이 하고 뭐..

김 만 배 아니 인제, 못 끼게 하니까. 옥이 입이 싸잖아.

정 영 학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다가 뭐, 이 대표가 욕심을 낼 텐데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뭐 뭐.. 그런데 그래도 두분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뒤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김 만 배 재창이도 많이 했어.

정 영 학 아이구.

김 만 배 니가 그랬대매, 재창이한테. 이 새끼야. 응?

정 영 학 형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거는요,

김 만 배 보고해라.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온다는데..

정 영 학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그럼요.

김 만 배 하여튼,

정영학 뭘 보고하러 옵니까.

김만배 그랬다고..

정영학 전혀 보고하러 온 적도 없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런데 형은 사실.. 야, 야..

정영학 기껏 와봐야, 저기 삼성동 정 회장을 때 잠시 들린 정도.

김만배 형은,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그런 거 해봤자 아무렇지도 않았어.

정영학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왜 그러냐면, 그 까짓 거 뭐 중요하니. 중요할 게 뭐 있어.
니나 나나 마지막에는 머리 맞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누구 마무리하니.

정영학 그렇죠.

김만배 그리고 이게 뭐, 성문이도 어제 물어보고 오는 길에 너 만나서 뭐 남양주 얘기를 또 얘기했다고. 니가 먼저 그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영학이는 너한테 하자는 소리를 안하냐?' 그러니까, 안한대.

정영학 예.

김만배 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정영학 제가 생각이...

김만배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그 얘기를 했다.

정영학 네.

김만배 야, 개가 밭을 갈았는데 밭에 (...) 했겠니? 응? 응? 기본적으로 그놈 욕심이 있는 놈인데, 자기가 갈은 밭을 왜 주겠니.

남양주 <=> 양정리구

그런데 문제는 영학이는 가만히 있는데, 영학이 의사와 상관없이 재창이가 남옥이를 어떤 이유로 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끌어들여서 주인행세를 한대. 응?

주인은 엄밀히 따지면 영학이랑 재창이겠지만, 남옥이 설치대잖아.

내가 솔직히, 아니 너 재창이가 영학이 머리에 안 되니까 한 20% 주고 하는 거겠지. 그런데 개라고 머리가 없겠냐.

세놈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에 그냥 호텔에 갈 텐데. 응?

그런데 남옥이는 해도 (...)

정영학 예.. 일단 뭐, 세명은 안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김만배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주지형이는 왜 거기다 앉혀놨어? (...)

정영학 그건 형님, 저도 그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그런데 상의를 하지 말아야지. 재창이랑 남옥이랑.

정영학 아니 그런데 재창이 힘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김만배 알어. 형이 잘 알어. 그런데,

정영학 그런데 옥이를.. 그러면 뭐, 그건 최악의 패입니다.

김 만 배 너하고 상의 안했어?

정 영 학 아니 저는..

김 만 배 상의를 안할리나 있나.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정 영 학 저는 사실 뭐 아예 그냥 손을 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그냥 특별히 뭐..

김 만 배 그런데 옥이는 호반이랑 간다.
그런데 같이 가면서 호반을 빼게?

정 영 학 남옥이는 앓고 형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웃음)
저는 그거는 형님이 하신다면 뛰어보겠는데, 딴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 없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거 된다는 게..
거기다 된다면야 움직일 필요 없죠.

김 만 배 (...) 거기에..

정 영 학 걸리는 순간 죽는 겁니다.

김 만 배 아유, 그럼.

정 영 학 예. 처음에는..

김 만 배 방법은 있어. 완범이 방법. 완범이가 얘기한 거야.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은 니네 측근을 주고 성문이 (...)
니네는 택지사업을 입빠이 기획해, 그거를. 안전하게 (...)

정 영 학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김 만 배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 하는 거지.
그런데 앞에 세우는 놈을 성문이를 세우든 완범이를 세워야지.
왜냐면 그렇게 앓고는 누굴 믿을래?
너네 셋 중에 하나 이거는 되는 순간에 죽어. 이거 지금도 그렇고.

정 영 학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 만 배 아니, 그거를 왜..

정 영 학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아니 그런데 그.. 그거 저도 그냥 별 생각 없는 상태에서..
작년 연말부터 관계가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

김 만 배 그럼 옥이랑 재창이 혹시 구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태국에서.

정 영 학 관계가 없는데 뭐 그게.. 연락 두절 상태인데 무슨..

김 만 배 형이 볼 때는.. 형이 인제 재창이를 떠볼라고, 왜냐면 전화를 했어.
배당 나오고 이틀 뒤야. 하루 뒤인가.

'배당 나갔으니까 잘 받아라' 그랬더니, 전화 받을 때 약간 뭔가 감춰있
는 것 같애. 느낌이.

정 영 학 (웃음)

김 만 배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를 그 표정을 불라고.

정 영 학 예. 형님이 그런 것 잘 아시죠. 미묘하게.

김 만 배 잘 알지. 미묘하게.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해라. 옥이랑'
그래서 아유, 영학이 씨팔 또 인제 꿀탕 (...)

정영학 저는 형님 계시는데요 뭐. 저야 뭐 형님한테 여쭙보고 하면 되죠 뭐.

김만배 도시개발사업 이득을 최소화하고. 재창이 머리는 못 쫓아가.
택지개발 이득을 극대화해서, 그래서 이원화 시켜서 해봐. 그러면 살어.

정영학 예.

김만배 일 되게 만약에 이런 과정이야.
이 화천이 하든 성문이가 하든 완범이가 하면 되는데, 니네들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니네들한테 택지를 쥐도 짜고 쳤다는 시비는 없어.

정영학 그 자체도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할라면.

김만배 택지는 상관은 없어. 왜냐면 택지는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자본을 안전하게 대면 되지. 그것도 빠지면 뭐 먹고 살아?

정영학 저 배꾸리가 안 큼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저는 충분히 먹고 살만큼 있어서..

김만배 그래.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이지.

정영학 저는 형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형님 도와드리는 건 합니다.

김만배 어디? 남양주?

정영학 예.

김 만 배 그건 형이..

정 영 학 들어가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저는 들어가면 안 되죠.

김 만 배 나는 주지형이 잘못 넣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미친 수를 쓰네.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김 만 배 응. 이렇게 애써서 하는 거를. 응? 야.

정 영 학 주지형 이 사람 본질이 뭐 이렇게 막 금전성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
다만, 괜히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김 만 배 형이 얘기한대로 해. 이원화 시켜서.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이원화 시켜서.
택지개발 이득을 숨기고, 도시개발 이득에 저 이 시하고 세어하는 걸로 해
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왜냐면 요새 금융환경이 안 좋으니까, 택지에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득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

(휴대폰 벨소리)

정영학 시골 친구입니다.

김만배 응, 빨리 전화 받아.

정영학 (전화통화)

김만배 하여간 조심해서 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왜냐면 몰살당하지 말고.

) 정영학 진짜 함부로 하면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배 너 참, 옛날하고 변했어.

정영학 아 형님 진짜 이걸..

김만배 옛날에는 영학이 아무도 안 보면 씨팔 염산속이라도 손을 넣었는데.

정영학 (웃음)

김만배 지금 말하는 건 형이 진심으로 느끼고,

정영학 형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배운지 벌써 7년째 아닙니까.

김만배 응. 재창이는 누가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염산 속에 집어넣고 뺏기고 있어. 너는 뺏기고 있지. 남욱이한테 뺏기지. 응?
왜냐면 재창이는 '여기 백금 있어요!' 떠드는 사람들이 (..) 응?

정영학 예.

김 만 배 남옥이는 그 쫓아만 다니고.
많이 변했어. 진심으로 느껴. 응? 영학아. 안심이 돼.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정 영 학 아니..

김 만 배 아무도 안보면 사실 염산 속에라도 손을 넣거든.

정 영 학 아니 뭐 그렇게 잘 안합니다.

김 만 배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정 영 학 최고입니다. 예.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정 영 학 예. ↳ 11차 41.

김 만 배 그지?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 11차 41.
- 48 -

정영학 예..
일단 형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김만배 손 넣지 말고, 잘 조절해봐.

정영학 예.

김만배 멈출 수가 없어. 멈추면 조언해 준 걸로 끝을 내는데,
저 중에 하나가 걸리면 공모야.

정영학 그렇죠.

김만배 킨앤파트너스나 MSBT는 절대 수사 받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초기에 시작해서 돈 대는 거는 투자 안해. 그거는 어떤 환경이 올지 몰라.

정영학 예. 다 날릴 수도 있고.

김만배 다 날릴 수도 있고.

정영학 예.

김만배 그지? 그래서 형이 얘기하는 구도가 그거야.
괜히 밖으로 (...)하지 마.

정영학 (웃음)

김만배 그래야지 형도 옆에서 형도 좀 언지. 니네들이 안 오면 뭐..
나는 오리역 할 거야. 오리역 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
은수미 시장 재판이 이렇게 된 마당에 좀 차질이 왔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서 그래. 내가 요번에 위협하다고 그랬는데 안 듣더라고. 사람이.
1심에 잘 나올 거야.

정영학 오리역 금융구조는 이미 끝난 것, 잘 끝났습니다.
이미 하겠다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구조는 다 짜놓고 우미를 뺄 수는 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김만배 우미는 손들었어. 손들었는데, 지금은..

정영학 예. 지금 들어가시지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김만배 왜냐면 LH가 층수 올려달라는 것도 형이 시청에서 거부해놨거든.
왜냐면 땅값 비싸니까.

정영학 일단 우미가 저거를 사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기업집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만배 우리는 내년에 사야지. 내년에.

정영학 조금 기다리셨다가, 금융구조는 짜놔기 때문에 서서히 하시면..

김만배 내년에 한, 배당 한 300억 더 받고. 응?

정영학 우미가 대기로 한 돈이 한 400억, 밖에서 빌려오는 것 400억, 나머지 은행이 다 대고. 대신, 외부 담보가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인제 좀 뭔가 되니까요.

김만배 그래서 우선은 층고를 현재 12층인데, 20층 넘게, 한 10층이나..

정영학 저게 꼭 오피스로도 승부가 난답니다. 수지가.

김만배 오피스?

정영학 오피스텔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수 오피스로도 수익이 뽕뽕 이상은 난다, 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은행권에서.

김 만 배 그러면 인제,

정 영 학 그래서 오피스텔이면 대박이 나는 거죠.

김 만 배 너도 자료 가지고 그때 붙어. 형이 구박하더라도. 응?

정 영 학 아니 뭐 저는 뭐..

김 만 배 구박하더라도 거머리같이 붙어. 그러면 형이 너를 버리니? 씨팔. 형이 너 좋아하는데. 성질나서 너하고 안한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영학아, 성남은 우리 땅이야. 응? 우리 땅인데, 영풍한 데 가서 (...)하겠나.

형이 시킨 대로 해.

택지에서 돈을 초기자본을 투자하면 그게 투자로 보는 거지, 이권으로 안 봐. 어떤 누가 그걸 이권으로 보니?

경기 상황을 뭘로 예측할래? 응? 검찰이 예측할 수 있어?

) 정 영 학 일단 저는 거기에서 돈 벌 생각은 진짜 없습니다.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예. 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하시면.

김 만 배 어디? 남양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형은 안해.

정 영 학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만 배 형은 남옥이랑, 남옥이랑 저거..
형이 (...)으로 아유~ 또 지옥을 보니?

정 영 학 아니, 최근에 금융구조를 같이 짰거든요. 이 부장이랑 수지랑.
다 됐어요. 그런데 우미가 안한다 한 겁니다.
'잘됐다. 부장님, 요거 그대로 1년만 묵혀둬시다'

김 만 배 11층을 우미가 가져가게 할려고 내가 층수를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노 했지.

정 영 학 가장 저기 이유가 아마 이게 자산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 대상이
돼버립니다. 일정규모 이상.

김 만 배 너 그러면 나중에 오리역에 붙어.

정 영 학 저는 뭐 일단..

김 만 배 니가 잘하는 게 있잖아.

정 영 학 아니 뭐 일단.

김 만 배 형이 두둑이 줄게. 섭섭지 않게.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 구조를 잘 짜냈으니까 나중에 거기 것
이용하시면, 그만큼 많이 쓸 데도 없습니다, 형님.
은행돈 싸게 쓰시면 되죠.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약을 쳐서 하면 증도금 받을 받으면, 받
을 빼서 하면 돼.

정 영 학 그다음에 저기 돈도 받으시고요. 주변에.
형님 돈 조금만 넣고, 투자할 돈 좀 받으셔야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예. 왜냐면 진짜 좀 뒤, 키맨 같은 데 관계 좀 좋게 하신 다음에나 다른 데 관계 좋게 하셔서, 형님 돈, 밑에 애들 메자닌, 나머지 은행 뭐 하고 하면 사업은 될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래서,

정 영 학 오피스를 해도 남는답니다.

김 만 배 오피스 하지 말고,

정 영 학 오피스텔 해야죠.

김 만 배 형은 세부(?)를 저 건축 이 도시계획국장 시키고 윤남엽이를 건축국장 시켜서 가고, 그리고 은수미 시장 임기 채우게만 해주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형은, 내가 얘기했잖아. 옥이는 안돼. 입이 너무 싸.
그거 동생이라 때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을.
나는 누가 너를 못 때리게 했어. 말 잘 듣는다는 조건 하에.
하여튼 남양주는 형은 관심 없어.

정 영 학 하아~

김 만 배 너 10년을 어떻게.. 응?

정 영 학 너무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절박할 때야, 절박할 때는 여의도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이래서 그 절박함이 성공을 시켰을 텐데요.
두 번째는 배부르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큰소리치다가 망할 거고, 이 스트레스도 있고.

김 만 배 그래. 그래서 너랑 나랑 택지나 하자니까. 이런..
그리고 오리역이나 하자니까.
그리고 성남은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인데도 성남에.. 크음~ 아이구.

정 영 학 혼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

김 만 배 아니다. ^{집안}(...)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
이 안에 이득이 남는다면은 뭐 이성(.)이랑 그 누구야, 정일천 가져가면
되지. 그지?

정 영 학 예. 가지급 정리하고 (...)하고.

김 만 배 잘 도와줘, 니가 좀. 형은 믿어.
그리고 형이 튼튼하게 잘 있어야지 니네들 (...)으로서 니네들하고 손잡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지.

정 영 학 그럼요. 예.

김 만 배 형은 인간성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 단점도 니 앞에서 얘기하잖아. 그 이상은 안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뭐 니 본질이 그런 걸 뭐.. 안보면 아무리 위험해도 씨팔 염산에다
손 집어넣는 놈이 년데.

정 영 학 아니, 형님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한다고 옆에서 고자질 할 뿐입니다.
실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 만 배 음.. 그래.

정 영 학 이야기 하다보면 욕은 지네들이 다 해놓고, 듣고 있던 제가 욕한 걸로 돼
버리고. 그 참..

김 만 배 음.

정 영 학 사람이 없을 때는 나랏님도 욕합니다.

김 만 배 아 그럼.

정 영 학 그거 갖고 형님 신경 쓰시면 안됩니다.

김 만 배 아유, 신경 안 써.

정 영 학 네, 진짜.

김 만 배 내가 했으면 니네들한테 전화해.

정 영 학 아니 뭐 진짜..

김 만 배 그리고 방해될까봐, 요새 회장님들한테 방해될까봐 연락이 오기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정 영 학 저는 그래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김 만 배 아 그럼.

정 영 학 일도 열심히 하고 있구요.

김 만 배 나중에 오리역 하면 재밌어.

정 영 학 그 구조는 퍼펙트하게 짜놨습니다. 괜찮겠더라고요. 딱 그..

김 만 배 형이.. 세월이 가면 니가 이럴 거야 '만배형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한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정 영 학 아니 그건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짠 거는 오피스로 짰습니다. 오피스로 짜도 대출이 되느냐. 그래갖고 짰는데요.

김 만 배 오피스텔로 했는데, 그러면..

정 영 학 오피스텔이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주거가 안 된다고 가정을, 출발을 했거든요.

김 만 배 10층만 높이면..

정 영 학 이 부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알죠. 아무리 봐도 이게 될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 회의할 때 봤는데, 괜찮습니다. 우미 돈이 400억 들어갔습니다.

김 만 배 나중에 한번,

정 영 학 동탄 것 담보 넣은 게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좋게 풀리면 훨씬 좋은 거죠.

김 만 배 오피스텔..

정영학 오피스텔 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게 조만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나오니까?

김만배 아니, 4월달에 나온다는데, 그거는 4월달에는 내가 볼 때는 입찰이 될 것 같애.
형이 감사랑 친해. 완범이는 알아.
그래서 작년에 계약할 때 감사실에서 하루만에..

정영학 그거 아무도 모르니..

김만배 응?

정영학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김만배 완범이는 내가 얘기를 했지. 완범이한테는.

정영학 거기는 이야기 안합니다.

김만배 완범이한테는 얘기했더니, 완범이가 거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남이 중요해. LH. 왜냐면 성남이 (...)

정영학 예, 맞습니다.

김만배 형이 구도를 짜고 있는 게 있어.
은수미가 요번에 안 그랬으면 형이 요번에 인수하는데, 은수미가 그래서 은수미를 임기는 마치게 재판을 연기했어.

정영학 오히려 인수하시기에는 내년이 더 낫습니다. 자금구조도 그렇고, 이자율 구조도 그렇고.

김만배 그래, 그렇지. 내년.

그리고, 남양주 조금 힘들지 않냐? 응?
재창이한테 시달려야 되고, 남욱이한테 시달려야 되고. 응?

정영학 오리역 금융구조를 다 못 잡니다. 그런데 다 100% 짜냈습니다.

김만배 오리는 형이 구도가 있어요.

정영학 그러니까, 그 구도면 더 좋습니다. 훨씬.
800개 빼놓고는 하나은행이 다 맞추기로 했거든요.

김만배 400개 빼면?

정영학 800개 빼고는 하나은행이 3,200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3,200개 중 2,000개 되고 나머지 모집하기는 하겠지만,
그거 된다고 이미 저기 뭐야..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라 하겠습니다.

김만배 (...) 아니면 혼자 가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 가서.

정영학 고민하시죠. 예. 그럼 형님이 고민해 보시던가요.

김만배 나는 오리역 할거야. 무조건.

정영학 아니, 저도요, 저 시끄럽고, 하아~ 저..
그다음에 또,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떠드는 데들도 많습니다.

김만배 확실히 완전히 승인은 안 나왔거든.

정영학 거기는 소송입니다. 저게요, 그냥 제가 스테디한 걸로는 재들이 충분히 소
송하면 스톱입니다. 이유가요, 옛날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다시 재공고 하면, 저는 뭔가 우선권은 쥐
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라 하더라도 3년은 삽니다.

저 방식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형님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요, 대학교 안 짓는다고 빠지고 다시 재공고 했습니다. 물론 일단 좀 뭔가 좀, 같은 구역에 비슷한 면적이면 우선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거는. 빠져도.

김 만 배 대학교를 안 짓기 때문에,

정 영 학 그런 애들은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김 만 배 안할 거야. 왜냐면 향후에.. 지자체하고도 안해.
향후에 지자체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 정 영 학 이렇든 저렇든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 김 만 배 나는 주지형이 관계(..) 깜짝 놀랐어. 주지형이.
아니 왜 이런 머리를 쓰냐. 하수들이..

) 정 영 학 저하고 저는 전혀..

김 만 배 하지만, B1도 내 염려가 뭔지 오늘부터 잘 검토를 해줘.

정 영 학 네, 형님,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 만 배 그거 성문이 코치도 좀 잘해주고.

정 영 학 코치 잘 합니다.
양 전무는 좀 도와줍니까?

김 만 배 양 전무는..

정영학 (웃음)

김만배 그런데 인제 돕겠지.
내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넌지시..

정영학 형님이 조금 그..

김만배 때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정영학 그렇게 좀 해주셔서, 실무적인 것 좀 서포팅해라..
지금 아예 안 물어보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2) 김만배 성문이가?

정영학 예.

김만배 안 물어봐. 그래도 단결해야지 된다는 거를 본인들이 아니까.

정영학 네, 네.
그 AMC 구조가 약간 경쟁구도이긴 합니다. 잘 만들어놓으셔서 경쟁연대협력.

김만배 요게.. 협력 안하면 너희들 다 나가야지 뭐.

정영학 견제까지 잘 짜놓으셔서..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그 어려운 기자들도 끌고 가고, 대통령 도와서 뒤에서 조언도 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일 나하고 사고가 틀려서..

정영학 예.

김만배 내가 얘기했잖아.

정영학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나온 거 아닙니까?

김만배 이재명?

정영학 예.

김만배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1:53:08~1:55:00 청와대 얘기, 처제 얘기, 마스크 얘기 등 중략)

김만배 나중에 오리역인가..

정영학 예. 그거는 이미 엇그제..

김만배 형은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니 생각도 좋았어?

정영학 좋습니다.

김만배 형은 이미 짜놓은 게 있는데,

정영학 아, 있으신가요? 예.

김만배 니 생각도 있고.

정영학 하여튼 뭐 선택을 해보십시오. 좋은 안으로.

김만배 아니, 아니야.

정영학 그때 처음 제가 이 소장한테 이야기 할 때, 이미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김만배 응.

정영학 어느 정도냐 하면, 뭐..

김만배 형은 알고 있었어.

정영학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김만배 우리가 시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우미가 포기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왜냐면 시에서 우미가 요구하는 것 등을 LH 통해서 들어간다 해도 노니까.

정영학 요즘 최근의 핑계는 우미에서 하나은행에 하자. 끝났다, 우리 조달이. 이미 승인 같은 게 끝난 거잖아요. 승인이. 끝났으니까 진행합시다 했더니, '우리 못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만배 왜냐면 최근에 충고를 높여달라 했는데 안 된다 했거든. 공문이 정식으로. 그런데 형이 바꾼다니까. 형이 방법이 다 있어. 응? 너 거기서 깨끗하게, 응? 막말로, 영학아.

정영학 예.

김만배 아무리 적어도 500억이면 무지 큰 거야.

정영학 아니 저는 전혀.. 저 지금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김만배 아니 누가 뭐 돈이 모잘라서 그러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응?

정영학 예.

김 만 배 재미로 보는 거지. 안전하게.

정 영 학 저 애들을 봤어요, 이번에.
전혀 부모한테 독립.. 자기한테 학비만 대주면 끝이다. 애들이,
교육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김 만 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돈을 우리가 (...) 보면 위험해. 아니 진짜로.
왜냐면 가릴 것 안 가릴 것 다..
그런데 우리는 취미로, 리스크 없이 취미로 하는데. 취미생활이 뭐야?

정 영 학 리스크 없이 하는 거요.

김 만 배 리스크가 없는 게 취미지. 사활을 걸지 않는 거.
사활을 거는 건 취미가 아니야.
우리는 리스크 없이 하는 거야. 형이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형은.. 내 B1,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정 영 학 충분히 헛지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형님 걱정하시는 거가.

김 만 배 그것만 아니면 나는..

정 영 학 그렇게 다들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습효과가 있나 봅니다. IMF때 극복이 됐고, 리먼 때 극복이 됐고.

(1:58:27~2:01:10 삼성전자 주식 얘기, 씨젠 얘기 등 중략)

김 만 배 이 정영학이한테 김만배의 유사점이 많네.
이런 뭐, 형이 진짜로 너한테 그런 모습을 많이 봐. 유사점이 많은데.
너도 기본적으로 착하잖아.

정 영 학 아유 뭐 저야..

김 만 배 하여튼간 괜히 이 엄청난 시기에 보자고 그래서 미안해.

정 영 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 만 배 조언을 구하려고 그랬어. B1에 대한 조언을.

정 영 학 네,네. 형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가야겠죠.

김 만 배 형을 죽여놓으면 안돼. 알았지?

정 영 학 그런 생각 안합니다, 형님.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리고 잘 살게 해놔야지 니네들도 돈 벌어.
그리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형은, 성문이나 정 회장은 충분히 본인들이 (...)

정 영 학 진짜 인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마지막이니깐요.
형님도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형님이 제일 스트레스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은 화도 못 내고.

김 만 배 화도 못 내지.

정 영 학 예. 모두한테 잘해주셔야 되는 그 스트레스. 그래야 적을 안 만드셔야.. 진짜 내년 5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응. 봉급 달라면 씨팔 줘야 되고.

정 영 학 화도 못 내고.

김 만 배 화도 못 내고. 짜증나, 요새도.
요새 다행이야. 코로나 때문에 접대골프 안해서.
아유, 지겨워. 창피하고. 태광에도 너무너무 창피해. 돈 때문에 (..)

(2:03:44~2:05:25 골프 얘기 중략)

정 영 학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김 만 배 응. 화장실 갔다 오고 가자~

정 영 학 네, 네.

종 업 원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김 만 배 가자~

정 영 학 예. 저도 화장실.. 어디 있어요?

종 업 원 저쪽에 있어요.

(잠시 후)

김 만 배 차 어디 있어?

정 영 학 저 주차장에 있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잘 가.

정 영 학 가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김 만 배 응.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아유, 참나.

정 영 학 그런데 저기, 기사는 어떻게?

김 만 배 짤랐어. 이 새끼 관심이 넘쳐서. (웃음)

정 영 학 (웃음)

(차 시동거는 소리)

김 만 배 들어가.

정 영 학 예,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고마워. 여러 가지로 고마워.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저야 뭐 항상 형님한테 감사하죠.
방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만 배 전화할게.

정 영 학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마.

정 영 학 전혀 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형님.

김 만 배 나는 재창이한테 뭐 하는 척 하면서도 너를 불러내.

ㄱ) 정 영 학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ㄴ) 김 만 배 어느 순간에 넘어간다.

ㄷ) 정 영 학 안 그랬으면 고생했을 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부웅~ 차 소리) (끝)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

4차(요약) - 수정본

2020. 3. 31.

한도

+

정리장

- 정비하면 정액 보내야 함 (by 가보에게) [4-7]

- 정비장이 유동금 관련으로 현직 관련에 정비장에 유동금이 다수하면 죽는다
하니까 그 이득은 조영현 (by 가보에게) [4-23]

여러분들 덕분에
끝가아 탄정임
[4-11]

31부러

인. 리카
매각예정 [4-9]

(3) 화천대우

때론 이성민

박외라이온
돈 147억
(주주)

채권자들

주주 (100%)

김보배

돈 300억

정원현
[정원현]

70억
[4-14]

리비라주 등 전담자실에 대하여
사후처 알수 없다
→ "노름" 했다고 하면 됨
[4-20]

말려
알은 것이

최희정임으로

차금 130억
(4-12)
[4-12]

4차 (수정)

- 녹음일시 : 2020. 3. 31.(화) 20:30~
- 녹음장소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이성문

(1:29:28 대화중, 05:40~)

김 만 배 재창이하고 연락 안해봤지?

정 영 학 아 예, 저는 그냥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김 만 배 너무나 (...)라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너무나 (...)

정 영 학 애가 너무 악랄해서.

김 만 배 그러하고, 심지어 나한테 얼마 전에 인허가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인허가를 위해서 나를 (자기가) 불렀었다고. 성남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 영 학 형님어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우씨~ 참!

김만배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들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전화를 했지.
 '야, 너 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이 대표 만나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니가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과해야 되겠다. 야 임마 니가 언제 형을 불러, 이 새끼야? 응? 싸가지 없는 새끼'
 형님은 말꼬리 잡고 뭐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등 얘기를 해.
 '야 이 새끼야, 그건 그거고, 그거는 사과해,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니가 형을 불러, 새끼야? 응?'
 그런데 인제 어제 좋게 끝났어.

정영학 네,네,네.

정영학
 (너에 대해서..)

김만배 자꾸 뭐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너에 대해서..)

정영학 나쁜 새끼예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저야 뭐..

김만배 (...) 내가 그래서 누구를 동원해서 니 전체꺼를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정영학 예, 예. 나중에 정 뭐라 하면..

김만배 그러면 알 수도 없고, 저 지금 힘들대.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러나저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타고 가다가 전화로 '야, 세상은 다 서로 잘잘못이 있고 저거해도 서로 용서해주는 게 서로가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 너도 뭐 서운한 게 있고 뭐한 게 있으면 용서를 서로가 해라. 그게 니 마음의 평안이야'

정영학 한번 더 하면 소송하죠 뭐. 저도 소송준비 하고 있으니까.

김만배 그런데 뭐 '한번 걸리면 뭐 모두가 자살해야 되는 등'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네,네,네. 상관 없어요.

김 만 배 응. 그런 거 겁 먹으면 안돼.

정 영 학 네, 네. 잘못된 것도 없고.

김 만 배 응, 응. 그래서 형이 너를 보자고 할 때는, 나는 이 대표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제 직원들한테 '나는 남양주에 관심도 없다. 안할 거다' 이러면서, 직원들도 손 안 댈 생각해, 사실은. 그런데 나는 저기 아무리 큰 황금이 묻혀있어도 나는 영학이가 거기 가서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정 영 학 저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래서, 그런데 인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분명히 재창이랑 옥이는 너를 밀어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니가 정리하고 나오기를 바랄 거야. 형 얘기를 들어봐.

정 영 학 네, 네, 네.

삼목+2024년 → 남양주 임종리구 도지개발사비 공보

김 만 배 그런데 이.. 그런 다음에 그 수순은 뻔하지. 응? 그 다음에. 응? 그건 뭐냐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갖고 나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형이 볼 때 니가 위험해질 것 같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의미로 고민을 해봤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 그렇고, 니가 순수하게 조언자로서 남는 방법이 답을 하나를

니가 만드느니 답을 세 개나 네 개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김만배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답을 네 개나 세 개를 만들어. 개네들이 이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 방식으로 해도 되고, 저 방식으로 해도 되고. 선택은 공사가 선택을 하게. 그래야지만 안 다친다고. 형이 볼 때. 니가 욕심나면 니 방식 하나로 하면 돼. 그런데,

정영학 아예 관여도 안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

김만배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형은 이제 니가 만약에 했으면 답을 하나만 만들어놓고 오지 말고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와라. 그게 법률상 나중에 100% 수사 들어가도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해야 하는 성실한 조연자였습니다' 이런 게 좋지. 괜히 답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애. 그 얘기를 해줄라고 오라고 그랬던 거야.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어쩌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수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내가 전문가일 수 있어. 그동안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응? 그래서 답을 여러 개를 만약에 했더라면, 압박을 받거나 뭐 이러면, 답을 여러 개를 만들어줘. 그래서 초이스는 공사가 하게. 그러면 그거 짤 놈들이 다치는 거지, 니가 안 다치잖아. 하나를 만들지 말고 여러 개. 그렇게 답을.

정영학 저는 뭐 그럴만한 저기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그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아니 뭐 옛날에도 그랬구요.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형이.. 그렇지 않아. 형이 이 얘기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어쩌면 니가 거기까지 만들어놓고 딱 섰을 때 퇴진시키기 위한, 오염됐으니까 형은 나가시오 (...)
그런데 형이 볼 때, 그렇게 답을 몇 개를 만들어놓고 해봐.
성실한 조언자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조언자. 응?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라고 한 거야.

) 정 영 학 네, 네.

) 김 만 배 형이 볼 때, 인성이 좀 악마성이 있어.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근데 내색은 하지 말고. 이 얘기까지 전달하면 안돼, 개새끼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모든 걸 전달하면 어떻게 하니?

정 영 학 저 전달 안합니다, 형님. 전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남의 말 전달하는 사람 별로..

이 성 문 정재창.. 정 사장님은 정재창이하고 연락 안하죠?

정 영 학 예, 안합니다. 그다음에,

이 성 문 아니, 개별적으로.

정 영 학 개별적으로 안하고.
그다음에 뭐, 협박 뭐 하라 하시죠 뭐.

이 성 문 연락은 어떻게, 연락도 안 오죠?

정 영 학 안 옵니다.

김 만 배 그거 인재 밀리면 안돼.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내가 볼 때는 옥이는 형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내가 두 번 해봤지.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겠지. 하나는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던가, 또 하나는 기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래서 형이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응?
(...)하고 그러면 차라리 완벽하게 조언자로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최고의 솔루션 아니냐. 아 난 조언해준 거다..
그다음에, 여러 개 중에, 조언 중에 하나를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인 거다. 법률적으로.
그 얘기를 해줄라고. 큰 도움이 안 돼도 그냥 해주고 싶어서.

정 영 학 아, 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 뭐 정 회장이 뭐 그
렇게 이야기해서 강제로 밀어 넣어서 할 생각이어도 저는 안할 생각이고.

김 만 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정영학 예. 협박해서.. 협박하면 이제는 가서 드러누울 생각입니다.

김만배 그리고 개네들이 그거를 받을 ^{가담} 재량이 없는데 굳이 자기 미래니 뭐니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리고 욕이를 왜 끌어넣었겠니? 그지? 형이 하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야. 응? 그래서 너를 보자고 한 거야. 그런 오해가 없게. 응?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도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해주고 싶더라고. (...) 진짜로.

정영학 아니, 이제 뭐 지가 고발해도 저는 그냥 뭐 이제는 뭐 저거할 거니까요.

김만배 하라고 그래도 그 새끼 겁 많은 새끼인데.

정영학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겁이 있을까요?
저도 정 뭐라 하면 그냥 고소장 제출해버릴라고.

김만배 저건 그렇게 되면 징역 받아야 돼.

정영학 그렇게 할라고요.

이성문 정재창 사장도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어찌됐든 대장동 사업의 영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맞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김만배 아니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다.
그 얘기는 그러면 행복을 뺏겼대. 그러니까 이게 미래든..
그런데 이 새끼 내가 곰곰이 애 말투를 생각해봤어. 올 2월 22일날.
그거는 결국은.. 그리고 넷이 한번 같이 만나게 해달래. 응? 나랑.

정영학 예..

김 만 배 그 얘기는 뭐냐면,

정 영 학 예.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김 만 배 아예 볼 필요가 없어.

정 영 학 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성 문 저는 정재창 사장은 제가 얼굴 딱 두 번 봤지만. 지금까지 딱 두 번 봤잖아요. 두 번 봤는데. 아니, 두 번 더 봤죠. 한 다섯 번 봤잖아요. 저는 정재창 사장이 무슨 뭐 (...) 저는 그 정재창 사장이 본인 의도대로 선블리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움직일 꺼리가 있어야죠.

김 만 배 아니 영학이는 옛날에 순진해서 재창이가 딱 넣으면 후다다닥 갔지. 응?

정 영 학 아니, 형님 뭐 이제 뭐..

김 만 배 괴롭힘을 저.. 그런 시간이 있었지.

정 영 학 괴롭히니까 싫어서 한 건데요. 지금은 뭐 진짜 뭐 (...) 해야죠 뭐.

이 성 문 지금은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김 만 배 내 취미로, 응?

정 영 학 아니, 같이 할 만한 사람들하고 해야죠 인제.

김 만 배 이걸 형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얘기해준 거야.

정 영 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고민을 했지만, 재 얘기는 뻔한데. 응?

그렇다고 성문이 방법대로 또 술 먹고 조져버리면..

이 성 문 형님, 저도 전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응?

이 성 문 저 정재창 사장하고 통화 안한지 오래 됐습니다.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저번에 돈 15억 마무리할려다가 박 이사 (...) 거기는 몇 달 됐죠. 이제 제 전화 안 받습니다. 박현덕 이사도 전화 안 받고.

) 정 영 학 15억은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 이 성 문 받았습시다.
세무상으로 그렇지만은, 그냥 막 물불을 가리듯이 그때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대응할 것도 없어.

이 성 문 예.

김 만 배 왜냐면, 우리는 영학이가 안 움직이면 나까지도 큰 재창이 쪽으로 쓸림이 없는데. 움직임이.
영학이가 한 발짝 움직이면 나도 애하고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두 발짝 외야 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지.

이 성 문 예.

김 만 배 나는 영학이가 안 움직이면 상관없다고.
이제 결국에는 또 남옥이를 끌어들여서 남옥이한테..
남옥이는 그것 말으라고 그러니까 (...) 믿어줬겠지. 애가 이제. 응?
재창이한테 수가 안돼. 분명히 그럴 거야.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안 봐도 뻔하지.
그런데 영학이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탈도 안 나면서 총알도 안 날라가고 (...) 안 되잖아.
그냥 지랄하는 것만 멀리서 지랄하면 귀찮지.
그런데 귀찮은 것 해결할라다 보면 해결이 안돼. 그냥 못 들은 척해야지.
뭐라고 그러면 '아유, 나는 인제 안해. 조연자 할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야지 (...)
잘못하면, 저쪽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나.
나는 진심으로 (...) 돈이 욕심나서 주지만,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진심이야.

정영학 아니 형님, 진짜 그쪽은 전혀 옛날부터 진짜 생각 없습니다.

김만배 왜냐면 돈 벌 데 많아.

정영학 예. 솔직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있더라도 저는 그냥 인제는 좀..

김만배 그리고 너무 질이 안 좋지.

정영학 예..

김만배 성문이하고 해. 성문이는 너 되게 좋아해.

정영학 저도 인간적으로나 뭐..

김만배 완전히 그냥. 왜냐면 펜클럽 회장이야.

이성문 허허허.

정영학 아니, 대표님 이번에 워낙 이 대표도.. 주변에 이쪽 금융계나 이쪽에 사실 1년 동안은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6년 동안 여러 사람한테 잘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품이 그렇게 안 되면. 이 대표님은 워낙 평도 좋고.

김만배 아이 그럼. 그럼.

정영학 잘, 진짜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정도 걸으면서 잘..

이성문 저는 그게 회장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상식선에서 하죠.

정영학 그거야 당연히 전제 하에.

김만배 나는 그냥 여러분들 덕분에 꽃가마 탄 거지.

이성문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다고 (...)
일을 할 때, 개인적인 만남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일을 할 때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냐 없냐 보다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냐 그걸 판단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같이 하고, 아니다 싶으면 개인적인 측면으로 넘겨야죠.
저도 나중에 조금 세월이 흘러서 철 듣다보니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하고 할 때는 회장님 계시고 정 회계사님 (...) 양 전무나 (...)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심성이 좋고, 일을 이야기하지.

일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사실 저는 열댓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뒤에서 홍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뭘 (...) 특별하게 실수한 건 없지만, 그게 인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 인품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만이 상승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좀..

그건 저의 복인 거예요. 진짜 우리 선배님, 회장님을 모시고. 그것도 제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만 배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 이것 참 만난 김에 얘기하자.

정 영 학 네, 형님. 네.

김 만 배 나는 B1을 개발 안해야지. 나도.
왜냐면, 이유는 첫 번째. 땅값은 내가 나름대로 부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렇게 된 환경에.
그런데 두 번째. 건축 이거는 안돼.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데 향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SPC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는 정일천 회장의 70억과 이성문 대표의 천화동인1에 130억 가지급금인데, 이거는 내가 빌려서 이성문 대표한테 주고. 그러면 갚게 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A1, A2, A11,12에 대한 PM에 대한 용역비를 원래는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는 거야. 일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강제조정해서 협의해주면 다시 하고.
어때?

정 영 학 예, 얘기해 보세요.

이 성 문 아니 근데 이게, 아니 (...) 세금관계도 있고. 만약에 3월..

김 만 배 아니, 인허가까지는 돼.

이 성 문 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대항을 B플랜, B플랜..

정 영 학 땅을 가지고 있으면..

김 만 배 자, 형이 먼저 얘기할게.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컨트롤 하면 그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 나는 매각을 할 거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 되면 가져갈 거야.
그런데 위기상황이라 형은 형 컨트롤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잘못되면은 이 어떠한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거나 뭐하는데 경제
도 지금 세계적으로 위험하니까. 나는 그러면 안한다.
그러니까 형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반대도 할 거야.

이 성 문 최종으로 (...)

김 만 배 최종으로.

이 성 문 예. 아니 뭐..

정 영 학 결정이야 뭐..

김 만 배 응. 그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허가는 뭐 진행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2,3년 있으면 바뀌야 되니까 하든 안하든 가는데.

정 영 학 나중에 파시더라도요 인허가는 해놓고 팔으셔야 돼요, 원래.
등기하면 나대지거든요. 인허가 하고 파시면 약간 비사업용으로 낸 적이

있으니까.

김 만 배 아니 아니, 왜냐면 인허가를 조금은 해야지 PF를 받으니까.

정 영 학 네, 네, 네.

이 성 문 어찌되든 4월에 통합 심의까지 넘겨놔야..

* 3차 1.1p. 28

정 영 학 통과를 시켜놔야 뭐가..

* 4차 14

* 7차 3031

김 만 배 그런데 그 전에 팔리면 사실은 인허가는 안해도 돼.
이거는 내 결정대로 해줬으면 해.

→ 정일천 70억

그래서 이거는 130억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70억은 그냥 짜고 치는 소송으로 했으면 해. 아니면 다른 방안을 내놓으면 해줄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세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라고 그랬거든.

뭐냐면, 천화동인1에 이 대표가 돈 낸 게 있으니까 상여금 플러스 월급을 안 받은 걸로다 요거 한 70~80억을 상여금하고, 화천대유에서 한 280억이면, 한 70억 정도를 하면 세금 내면 한 130억이 될 거야. 응?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응.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맞추는 방안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증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중으로 그래서 문제 돼.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 대주주가 불러서.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에 대해서 누가 사채라는..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리고 SPC는 했다가는 나중에 조세의 문제가 걸리고 사법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응? 난 그게 더..

이 성 문 예, 맞습니다.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김 만 배 왜냐면 방법이 없는데 계속 SPC 만들려고 하다가는..

정 영 학 아니, SPC는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여기에 이 대표가 들어오는 게 안 맞다라고 결론을 내서 안하는 걸로 일단은..

김 만 배 그렇다고 이 대표보고 사표내고 나가서 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정 영 학 그것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성 문 그런데 B1은 제3자한테 매각, 실질적인 매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김 만 배 보증이 돼야지. 거기에 재무가 재력이 돼야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가 정일천 사장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나는 정일천 사장이 우선 첫 번째 보증여력이 돼야 돼. 그런데 부자라니까 될 거야. 그지?

이 성 문 지금..

김 만 배 그때는 보증인이 따로 HMG 같이 충분한 보증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나. 그 전제 하에 70억 플러스 120억을 우리가 깎아주면 돼.
이게 자기 월급이고 저기니까. 정일천 사장 줄 거를.
왜냐면 그러면 깎아서 매각하고, 이 뭐야.. 아니, 130억을 깎아서 주고, 나중에 이..

정 영 학 감정가액보다 좀 깎아서 주기가.. 그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 문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 사장님이 오고 난 후에는 그런 이야기, 애초부터 저도 그런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안해봤는데.
저도 그렇다 해서 내일 당장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저쪽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정영학 (..) 그럼 뭐..

김만배 정일천이가. 정일천 사장이.

이성문 만약에 정 사장님이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감정가로 갖고 가는 걸로 해야
죠. 그래서 70.. 수입은 본인 70억에서 가수가 잡혀있도록 해야죠.
그걸로서 끝내는 걸로 해야죠.

김만배 그런데 이제 형은 가장 좋은 게,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가는 거야. 소송
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 수익이니까. 그지?
나중에 뒤로 그냥 줬다가 또 문제되고 그러니까.
소송 넣으면 한달도 안 걸려.

이성문 저는 이제 그 누구든 간에 B1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권리매각 할 때 대
상을 누구로, 대상은 별론으로 하고..

김만배 아니, 안 정했어. 찾을거야 이제.

이성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김만배 안 되면은, 자 안 되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뭐냐면,

이성문 저는 제가 보기에 안 된다고보다도,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
람 저 사람 접촉하면 안 되고, 특정한 사람이 이런 데에 관심 있던 그분
들을 소문이 안 나게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걸 세일즈 한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김만배 아니, 내가 몇군데 물어볼 데가 있어.

정영학 예..

김만배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의 대상이..

이성문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력 있는 시행사들하고 할려고 할 겁니다.

김만배 그런데 뭐냐면, 이게 회사에 그 어떠한 리스크가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 B1을 하다가 덜커덕 분양가에 대한 확정도 없이 막 밀고 가다가 이 문제가.. 그냥 땅은 소화가 돼. 조금 힘들 때도 부담을 안을 수 있는데, 이미 분양을 하고 뭐 하고 이러는 순간..

이성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뭐 가면 안 되죠.

김만배 그렇지.

이성문 사실 이번주에 제가 이제, 이 말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약속을 잡았으니까. 내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그..
사실 이제 이게 저번에 그 그 (...) 그..

김만배 아니, 나는 어제 2,800인가 3,000은 처음 봤는데?

이성문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매각시세가 통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보고서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HUG 개념으로 분양가를 현재 상태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10일 전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 사람들 금요일날은,

김만배 한번 뭐 받아봐. 근데..

이성문 그거는 이번주에 그거는 약속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 잡힌 거는 이번주에 다 만나야 되고.

김 만 배 그래 그래.

이 성 문 그래서 큰 방향을 정해주시면..

김 만 배 그런데 이거는 형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 성 문 예, 예. 방향을 해주시면..

김 만 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적인 부분도 영학이가 좀 도움을 줘.

정 영 학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부탁하는 거야.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냥 형은 정상적인 처리를 할라고 그러면 김만배가 회사에서 빌리는 건데, 김만배가 어떻게 갚을 거냐면 어음 400개 형 개인 이름으로도 자금을 넣을라고.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법인도 넣고, 자금도 넣고.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리고 영학이는,

정 영 학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너 좋아하잖아.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니가 형을 싫어해서 그렇지, 이 새끼야.

정영학 형님,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을 그냥 곡해해서 한 거구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안 그랬으면 너랑 여기까지 왔겠냐? (..)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응?

정영학 저도 형님 믿고 왔잖아요.

김만배 남양주 (..)

정영학 (웃음) 남양주 생각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도 할려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해야죠.

김만배 그런데 개네들이 머리가 안 돼서 너를 끌고 가는 거야.
형이 그 감을 딱 잡았어.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래서 너하고 얘기하는 거야.
나 같으면 어떻게 여기서 나올까. 그냥 충분히 조언자로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거 조언을 도와주는 건데' 이러면서 공개적인 회의를 하면서, 조언자로서 조언해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남기는 거야.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뭐 조언이다 이런..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정영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배 (..)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나는 막말로 나에 대한 내사가 저기한 게 있어.
그런데 막말로 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나한테 왔어도,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할 텐데 나를 뭘로 처벌할 거야? 응? 내 입을 어떻게 열게 할 거야?
성문이가 이 대표가 실질적인 검찰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 누구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고 나를 입을 어떻게 열거야? 아니 그냥 노름할라고 했는데, 그냥 노름하기 창피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끝이야.

정영학 네.

김만배 응. 끝.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이거는 내가 너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야.
괜히 오해 살 여지도 있고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은.

정영학 네..

김만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해주는 게..
그리고 이놈들이,

정영학 둘이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김만배 그리고 그 전에도 둘이 많은 만남이 있었지.

정영학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호반이랑.

김만배 애쓰지 말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돈은 들어오면 이재용이도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기꺼는 얼마든지 많아.
응?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이한성 상무한테 내가 인제 3억돈 빌려줄 테니까 날려도 날리고, 따면은
반 나누자. 그랬더니 주식을 세 개를 찍어줬어.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나니까.. 난생처음 주식을 해봤더라고.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러니까 세 개를 했는데 1억 한 5,6천 정도가 남았나봐.
내가, 팔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올라가니까 욕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팔아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안 팔다가 내
가 하도 채근대니까 팔아서 그만큼 남았어. 많이 번거지, 그걸.

정영학 많이 버셨네요.

김 만 배 그렇지. 아니, 많이 남은 거지. 많이 남았는데,
이 한성이 형은 내가 받을 형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몫에서 일부를 또 안
팔고 남겨뒀더라고.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으나,

정 영 학 날라갈 수도 있죠.

김 만 배 날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해해야 돼. 주식이 많이 올라도 여기서 그냥
욕심이 내고 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 정 영 학 맞습니다.

→ 김 만 배 그지?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야 안 다치는 거야.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줘시다. 내 몫은 이
만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내돈 같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정 영 학 네. 아니 뭐..

김 만 배 이건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성문이가 되게 좋아해.

정 영 학 아니, 양정은 진짜 생각도 없었구요. 욕심내지도 않고, 진짜 형님 말씀하
신 대로 충분히 조언자 해도 만족합니다.

김 만 배 요즘 (...) 애들 화통해.

이런 얘기하면 다 니 밥그릇 쨌다고 지랄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할라고.

정영학 네, 맞습니다.
형님을 살짝 이렇게 움아매놓고 이렇게..
형님한테는 안 통하잖아요.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그거 옛날에 동규 협박할 때, 야 새끼야 경찰서 가서 자수하면 니가 뒤진
다니까 그 이후로 못하잖아.

유동규

정재창
↑

정재창

정영학 그 정재창이 민철홍 평가사가 서울대 나온 애 협박한 걸 제가 알거든요.
아유 잔인합니다. 순진한 애. 정말 순진한 놈이었거든요.
서울대 공대 나올 정도면 그래도 노말하게 이렇게 사회생활 했던 애인데.

김만배 이성문이 정도 돼야지 재창이 상대를 해.

↳ 정재창

정영학 맞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재창이도 우리 이 대표 무서워해.
왜냐면 자기하고 부닥치는데 이빨이 안 빠지거든. 응? 다른 사람들 칼이
나 다른 사람들 보면 정재창이하고 부닥치면 이빨이 우수수 쏟아져서 정
재창이를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더..
이 대표도 확실히 하는 거야.

정영학 네..

이성문 (...)

김 만 배 응?

이 성 문 (..)

김 만 배 (어, 삼촌이야. 아니야. 어디 바깥인데? 그래, 열심히 해. 응. 열심히 해. 응. 그래~)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에이, 씹새끼 좃같은 소리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너무 보여서.

정 영 학 지 미래를 망치는 건 뭘 망쳐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아니, 미래를 망쳤다면서요?

김 만 배 아니 인제 뭐, 남양주 것.
전부다 하여튼간 형이 얘기한 각도에서 적절히 니가 잘 운영해서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 얘기 해줄라고.
나는 다 위해하는데. 응? 사람들. 정채창이가 됐든.
내가 볼 때 우리나라든 어디든 곡소리 날거야. 문제가 간단치 않아.
유가가 10달러 정도까지 내려오면 되겠냐고. 지금 20달러인데.

미국은 멈춘 것 같애. 아무리 은행에서 돈 찍는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봐. 저기 정 사장한테.

이 성 문 예. 제가 그 친구 만날 생각이니까.

정 영 학 제일 걱정하시는 게 분양가 하는 것 때문에..

김 만 배 아니, 못 받아. 그리고 분양도 안 되고. 잘못되면 문제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거야, 나중에. 날라간 다음에. 응?
지금까지 벌은 돈 날라간다고.

이 성 문 (...) B1을 매각하면은요, 사실 양 전무가 (...) 모르잖아요.

김 만 배 아니, 형이 아까 현덕이 앞에서 김종길을 오랬더니 양 전무도 왔더라고.
그래서 향후 이렇게 그러니까 인허가는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현덕이 있을 때 오라고 그랬거든. 종길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는 거지.
형 의견에 따라줘야 돼. 이거는,

이 성 문 예, 알았습니다, 형님.
그거를 우리 하나은행이나 이쪽에 사실 (...)

김 만 배 그리고 인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하나은행의 대출.
그런 거 좀 다 고민을 했거든.

이 성 문 요거를,

김 만 배 갚으면 돼. 갚고, 저 뭐냐면 나머지 잔금은 대출 받으면 돼.

이 성 문 (...)할 것 없이 잔금을, 아니 잔금기간이 작년 12월달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안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김 만 배 음음, 그래.

이 성 문 제가 내일 양 전무하고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가야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나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하지마라 그랬거든요.

김 만 배 그래 그래.
나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 나중에 내 판단은 잘했다고 생각할거야.
저 이 200억 여기서 소화하려고 하다가 천억 날린다고.
우리가 회사에 돈이 2천억이 있으면 이것을 나중에 후분양 해도 돼.
그런데 2천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락동시장에다가 본인이 리어커 끌고 와서 팔고 싶지 않거든. 옆에서 물건 수집해 가는 사람한테 팔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가락동까지 리어커 끌고 가면 할 수 없어. 힘들어서. 응?
그리고 후분양 건디지도 못해. 우리가. 응?

이 성 문 예.

김 만 배 그리고 인제 그 뭐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공통비가 280 한 5억 정도 되는데, 50 몇억을 받잖아.
그걸 빼면 235억 되니까. 120억씩.. 아니, 60억씩 내면 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방식이야 이 대표하고 상의하면 되고.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항상 그냥 모든 것 페어하게 잘해야 돼.

Kind & partners
(주)MSBT
↑
근부터
500만원씩
들어냄.

↳ 번호 60
정영학 60

그리고 이 뭐냐면, 정석대로 했으면 돼.

정영학 그러면 바로 매각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김만배 아니, 이제 상의를 해야지. 이 대표랑. 양 전무랑.
내가 결정은 안하고, 1안 매각, 2안 가지고 가는 건데,
그냥 놔둬도 돼. 허가만 받아놓고. 어찌됐든 이걸 상의를 해야지.

이성문 저는 이제, 요거를 3자한테 분리매각을.. 우리가 요거 할 수 있으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인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김만배 조용히.

이성문 왜 그러냐면, 시장에 우리가 또 안하고 제3자한테 판다고 그러면 안 되잖
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라는 사람, B라는, C라는 사람 이렇게 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제일 쪽에 한 두달 전인가 한달 전에 이사회 하기 전
에 12월달에 제일에서 양 전무한테.. 양 전무가 옛날에 제일 쪽에 (...)
양 전무가 이거는 제일에서 봤을 때, 양 전무가 제일 찾아가서 '너희들
할 생각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걸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영학 사실은 매각이라는 표현은 안 맞구요.

이성문 매각이라는..

정영학 업무대행사를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매각이라고 하면 표현들이 미등기 전매 됩니다.
지금 이제 (...) 등기가 내년이면 가능하잖아요.
시기가 옛날처럼 투자를 하기 보다는, 어디 업무대행 개념이면..

김만배 그래서 이 대표도 그런 명분을 두고 있으면서, 인허가를 내면 이것 나대지

에서 대지가 되잖아.

정영학 네. 맞습니다.

김만배 그지? 그러면 현재 중도금 있고, 우리가 중도금 갚고 이 땅을 담보로 해서 PF만 하면 여기에 얼마 안남아. 그지? 응?

정영학 기간이 사실은 뭐 그렇게.. 좀 고민을 더 해보시죠, 형님도.

김만배 그래. 왜냐면 내년에 배당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

정영학 형님, 5월 준공이면 땅이 완전히 완벽하게 돼있는 거고, 그때는 얼마에 팔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김만배 아 그렇지. 그 얘기를 형이 하는 거야.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래서 매각이라는 거는, 이 대표의 생각은 나하고 어떤 건 한 부분이 인허가를 진행하는 부분이 그게 될 수도 있어. 그지?

이성문 아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내년 7월에 매각,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천이 등기해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6월달에 분할을 하든 간에 일단 인허가가 돼야 만이, 그러니까 인허가가 돼야 만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허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정영학 그렇죠.

이성문 인허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정영학 맞습니다.

이 성 문 사실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

정 영 학 인허가를 받아놓으면 비사업용에 대한 어떤, 혹시 내년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고.

이 성 문 저번에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이나, 아니 제일은 안 되고, HMG나 한신이나 (..) 자기들이 그런 (..) 그거를 제가 직접 업무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되면, 이런 땅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최대한 게 실질적으로 7층이잖아요. 이게.

) 정 영 학 그런데 이번대로만 인허가만 나주면 땅 자체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 영 학 나누기만 하면.

이 성 문 그러니까요. 최대 7층짜리인데, 7층짜리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 영 학 그러니까요.

이 성 문 우리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인허가를 왜 진행하냐면, 그래야지 PF를 만들어.

정 영 학 맞습니다.

이 성 문 가치가 올라가요. 땅에 대한 가치.

김 만 배 가치도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가치 이런 걸 떠나서, 리스크를 없애는 거야.

정 영 학 그동안 밀집 5층짜리하고 떨어진 7층짜리하고 가치가 틀릴 것 같긴 합니
다.

김 만 배 그래서,

정 영 학 인허가만 내놓고 인제 뭐..

김 만 배 오케이. 응, 응. 그래서 이 저 뭐야..
그런데 인허가 내기 전에 어디에서 프리미엄 줘서 팔라고 그러면 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 내 생각이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가져갈려면 인허가를 내야 돼. PF 받아야 되니까.

정 영 학 네, 네. 그런데 어차피 제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김 만 배 나도 그래.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런데 인허가 받아놓은 다음에 팔 수 있다. 가격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이 성 문 저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시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인허가가 금강같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우리같이 현재로서는 나름대
로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마지막 신경써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림이
달라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헷지를 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보유를 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매각하면 매각하는 대로 (...)

김 만 배 그렇지.

이 성 문 결국은 땅의 가치가 있는 거죠.

김 만 배 근데 나는 지금은 이래야 된다고 봐. 되게 원론적인 얘기, 다들 좋은 얘기인데, 지금에 있어서 B1에 대한 이 처리방법은 또 바꾸면 리스크를 헷지하는 쪽으로 해야 돼.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러기 때문에 이 뭐야, 돈 있는데서 지금까지 보증한 거에 대한 어떤 비용 탕감 없이 그런 것들이 이자라던가 인허가비용 준다고 다 인정해줘서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업무대행사를 그것이 제일건설이든 HMG든 삼호든 그것을 넘겨주는 거야. 보증이 탄탄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리스크를 가장 헷지하는 거야. 지금에 있어서. 황금알을 배고 있는 닭을 개울을 못 건너갈 것 같으면 팔아야지. 개울 건너가다가 결국은 놓치고 마니까. 응? 그지? 닭 한번 알 낳을 거를 계산해서 팔아야지, 20번 낳을 거를 받을라고 그러면 안 되고. 20번 낳을 수도 있지만. 경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허가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데 인허가 내고, 경제 환경이 좋아지면 가지고 있다가 내년엔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은 근데 항상 도와 모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도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생각하는 거지. 세상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변화되는 거지. 경제도 변환되고 사물도 변환되고, 물질이든지 계속 변화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에서의 우리 회사는 리스크 헷지. 수익의 극대화 아니야. 리스크 헷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수익의 극대화 하면 기다리겠지. 가지고 있다가 후분양 해서 떼돈 벌지. 그게 아니라니까. 팔아도 튼튼한 데, 우리한테 부담이 안 와야 돼. 그놈들이 하다가 부도내면 어떻게 해. 응? 보증 내가 서야 될 텐데. 그지? 나는 내 이 생각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어. 내가 우리 화천대유 가지고 조금 고집하는 거는..

이 성 문 아니 제가 이해하면서도..

김 만 배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정 영 학 요즘 뉴스가 되게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는 뉴스들도 안 좋은 뉴스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 만 배 그렇지. 많이 있지.

정 영 학 이태리나 뭐..

김 만 배 독일은 이미 공장이 셧어.

정 영 학 독일이요?

김 만 배 일본도 셧어. 그냥 (...) 이런 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일본은 (...) 어마어마해. 그리고 미국 공단도 사실 셧어. 그 십자로에 노인네 하나 걸어가는 거밖에 없어. 완전히 멈춘 거야. 증시에 45조가 예탁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 이런 돈들이 대부분이 너 무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하면 경제는 (...) 45조가 있는 거야. 이것 다 잃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빙하시대 오면 지폐 태워서 그.. 두산건설도 판다잖아.

정영학 예..

김만배 두산이 왜 이런 위기가 왔냐면, 남들은 원자력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미국에 밥캣이라는..

정영학 너무 비싸게 줬죠.

김만배 5조에 샀어. 5조. 1조짜리를 5조에. 응?

정영학 그 콤프레샤. 불도저.

김만배 도저. 어디에 나가지도 않아. 시장에 없어. 이미 시장이 없는 거를 5조에 샀어.

정영학 예. 건설경기가 죽었으니까요.

김만배 응?

정영학 건설경기가 죽었으니까요.

김만배 거기다가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두산의 주력이 화력발전소인데. 석탄.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다 죽여. 그래서 발전소 짓는 데가 없잖아.

옛날에는 밤새도록 의정부에서도 짓고, 포천에서도 짓고, 충청도 당진에서도 엄청나게 지었는데. PF도 막 하고.

내가 화력발전소 짓겠다고 선점해놨어. 민간인이.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원자력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보기만 해.

이성문 원자력 (...) 마지막 카운트 펀치가 된 거예요.

김만배 그렇지. 그거지.

이 성 문 마지막 편치가. 마지막 케이오 편치가.
김 만 배 울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 그냥 뺨 때린 거야.
이 성 문 건설이 두산중공업에 보증 서주고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던데요.

김 만 배 현대자동차는 1년이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김 만 배 형이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 영 학 아니 형님.

김 만 배 너 다치면 형도 다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 영 학 사실 뭐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저야 형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제가 가만히 있었고, 하지 말라면 안했고,
저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형님 말은 잘 믿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하지 마.

정 영 학 예. 할 생각도 전혀 없고.

홍성은 버니투데이 회장

김 만 배 B1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경기가 풀리면 진짜 막말로 이 수 저 수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안돼. 현찰을 유지해야 돼.
조원태가 우리 홍 회장 통해서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 사
달라고. (...) %만 자기 해달라고. 그래서 해줄려고 그랬어.
그런데 돈으로 빌려달라고. 돈으로 씨팔 무슨 뭘 어떻게 해?
회사에 사모 넣으면 조원태가 자기네 회사 사업 뭐 빨리 된다고 그래서 그
결로 옮겼는데.

정영학 개인적으로는,

김만배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걸 안돼. 응?
차라리 한진 주식을 샀다가 밀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 팔았다, 뺐다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밀지지는 않는데.
그만큼 굉장히 안 좋아.

정영학 예..

김만배 이자 낼 것이 없이 리스크야. 그것 갚을라고.
그런데 주식이 8만원 가까이 되더라고. 이야~ 그거 대단한 거야. 회사에 현찰이 없어서 그 어디야 점보인가 보잉인가에 할 것도 부족한데. 이자도. 두 가지.. 원래는 한 가지 안건 때문에 보자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B1까지이고. 어제 이 대표랑 결론 내린 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처리하는데 잘 도와줘.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리고 이 대표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할게.
내가 영학이 욕할 수는 있어. 그런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쇼잉으로 하는 거야. 많이 괴롭히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예.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나도 정치적 수사가 가끔 필요해. 그 정도는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정 영 학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응. 진심은 아니니까.

정 영 학 하여튼 두 사람한테 방어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유, 상대하기가 좀 버거워서..

김 만 배 안 만나는 게 우선 1번.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안 만나는 게.

정 영 학 예. 형님정도 돼야 방어가 되죠. 아유, 저..

김 만 배 나도 어제 느낀 건데, 쉽지 않겠더라고.
(..)만 해도 이 새끼 120억 받은 새끼가 불행하다고..

정 영 학 150억이잖아요. *↓
120억*

김 만 배 150억?

정 영 학 150억 받기로 했잖아요.

김 만 배 그래?

정영학 예. 만약에 30억 여기서 더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30억을 여기서 더 주기로 해서 150억입니다. 세후 120억. 많이 간 겁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면 많이 간 거야.

정영학 많이 간 겁니다. 150억이면.

김만배 그리고 협박으로 하면 주면 되지.
그런데 이 새끼 내가 어제 딱 느낀 건데, 이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아유 쥐가 나더라고.

정영학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대표가 두 번 자기한테 그랬는데, 한번은 만났는데 그랬대. 정영학 회계사는 주주라서 자기한테 정영학 회계사는 잘해주고, 자기는 주주 아니라서 그랬냐고 말을 보태더라.
그리고 만배형도 성남에 자기가 인허가 도와달라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랬대.

정영학 참~

김만배 그런데 나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집에 갔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어.

이성문 그런데 저 그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왜 만났냐면, 내가 그때 두 번째 그 전날 술한잔 먹고 미안하다고 만났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저도 기억이 안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정재창 사장이 자기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정 회계사님은 여기서 지분 있고, 나는 없고, 그래서 나는 외톨이고.. 듣고 할 말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정영학

정영학

일방적으로 5분 동안 떠드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김 만 배 그런데 아무튼 안가는 게 좋은 것 같애.

이 성 문 우리가 현장에서 최근에 약속해서 만났는데, 최 소장이나 (...) 사실 우리
가 일을 할 때 일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과거사 끄집어내고,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그 사람을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정재희

김 만 배 나는 개인적으로 (재)의 목적은 그 얘기를 하면서 노림수가 있다 생각해.

정재희

정 영 학 불쾌해서 당장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김 만 배 내 하면 너 줄 거야. 아예 손을 뺐으면 일체 관여 안하는 거고,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했으면 초이스 하게.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손 안대는 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하여튼 우리 회사 끌고 갈라고 그러더라도 뭐 이거 이거 검토를 한 부분
을..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 아니 인제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은 관심 없어.

형은 오리역에 관심 있어. 너무 깊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 너 누구 사랑해봤냐?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

형은 오리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중에 온다면, 내가 너 하고 싶다면 용역자로 모실게. (...) 있어가지고.

(..)?

정영학 전혀 없습니다. 예.

이성문 그런데 우리가 B1을,

정영학 예?

이성문 B1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것은 굉장히 (...) 힘든 건데요. 우리가 한번 드랍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 알아요.

정영학 대표님, 잘못하면 PF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본P 다 해놓고 움직이시죠.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 전무하고 (...) 대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다른 이야기는 안 할려고. 안 그러면 우리가 HMG하고 신용으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또 한다고 그렇게 되면 (...)

정영학 네, 네.

이성문 딜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 끝내도록 해야죠. 이병식 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정영학 아니 그런데, 정재창이가 뭐 해봐야 할 게 있나요?

이성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들은요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여유는 있잖아요.

정영학 150억 받았어요.

이성문 그러니까 자기도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원래 빈털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고 나면 (..)

정영학 아니 하더라도..

이성문 할 게 있어야지.

정영학 예.

이성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예 만나지도 마세요.

정영학 네. 아니 아니, 조심 조심.. 조심을 해야죠. (..) 않도록.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우리 여기 아지트인데.

정영학 예..

이성문 글썽요.

김만배 응?

이성문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김만배 처음 왔어? 나는 여기 혼자 앉아있어. 서울에 오버나이트랑. 맨 끝자리.

정영학 저 안쪽에요?

김만배 아니 저, 까만색 있는 데 저기.

정영학 그 옆자리.

김만배 옆자리. 혼자 앉은 자리.

정영학 혼자 있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뒤에 유리 막혀있고,
요즘 애들이 집에서 수업을 안 듣더라고요.

이성문 답답해서.

정영학 다 나가버려요.

이성문 답답해서 그렇죠.

김만배 정자역 사무실에 있다가 이리 와. 사람들이 이리 와.

정영학 정자역? 아.. 네,네.

김만배 원래 요 옆에 보면 골목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냥 편해서.

정영학 거기도 사람이 많습니까?

김만배 그럼.

이성문 우리 B1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양 전무가 (...)한테 우리 구체적인 매각안이 (...)가지고 그거를 접촉하지 마라. 그거 접촉해가지고..

정영학 그 매각을, 인허가가 안 나고 매각을 할려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해놓고 하는 게..

이성문 도움이 되죠.

정영학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이성문 일단 4월 20일 지나보면..

정영학 4월 20일날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김만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 대표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했는데. 인허가를 자신 하는데,

정영학 아..

김만배 이 그..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어.

정영학 아, 심의가요?

김만배 응. 내용에 대한 문제인 걸로 해서.

이성문 시에서 공고가 떴어요. 원래 기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온 걸 저하고 (...) 뭐냐하면, 종합심의가 4월 22일이 아니고 29일 한다. 그러면 4월 9일까지 접수해라. 통합심의. (...)인데, 아마 최근에 이 사태 때문에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만배 한번 뭐..

정영학 안 열리면, 그럼 4월달에 안 열리면 5월달에 열리는 건가요? 월 단위인가요?

이성문 그런데 그거는 물건이 인허가 받아야 되는 물건은 그게 아닌데, 그걸 계속 안 열릴 것도 아닌데.

김만배 아니 그런데 아무튼 분양만 안할 거야. 분양만 절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인허가는 오케이.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해야 되는 거고, 팔아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영학 예. PF 때문에.

김만배 사실은 나한테 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체력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누구나 돈 벌고 싶고 뭐 그러는데, 욕심을 줄여야지.

나는 내년 한 3,4월까지 되면 돈으로 만들고 싶어.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영학 예..

김만배 이것도 한 일, 저것도 한 일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는 내년 넘기면 기회가 없을 거야. 내년이 딱 좋아.

내년 넘기면 인재 (...)

항상 이 대표가 그거는 시킨 대로 해야지.

분양은 뭐고, 팔 건데 무슨 분양을 해. 분양가 이런 것도.

(...) 통째로 넘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의 연기됐으니까. 한번 연기했지? 경관심의인가 뭐 안되지?

이성문 경관심의 안됐어요.

정영학 예..

이성문 그래서 2월달에..

(...) 4월달에 하게 되면 (...)

김만배 기껏해야 200억 남는 사업에 회사의 영혼을 걸면 안돼.

뭐하러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 응? 팔아야지. 그지? 팔고. 응?
사활을 걸면 안돼. 다가 아니야.

아유, 나는 이에 대해서, 200억 거기에서 사활을 걸지 마. 차라리.. 응?
농협회장이 여기 낙생농협 조합장이 된 사람이야.

정영학 예..

김만배 전 조합장.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아이, 그럼~ 저 전라도 그분한테 1등 했다가 2~3등에 그 사람한테 진거야. 그래가지고 사전 선거운동 뭐 불법선거운동으로 해서 김병연 회장이 농협회장이. 그런데 또 최재경 선배 친구가, 그 친한 사람이 그 사람 최측근이야.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재판을 이겨주고 임기가 끝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대로 돌아가서 낙생농협 회장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농협에 상당한 묵은 빛이 있지. 그리고 성남하고 묵은 빛이 있는 거야.

나는 저 뭐냐면, 우리 땅이잖아. 여기가. 영학아, 솔직히 너랑 나랑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나.

이런 데다 해야지, 무슨 씨팔 다른 데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가서 하냐? 응?

정영학 형님, 도와줬더니 못 해내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할 생각 없습니다.

김만배 난 그래. 그리고 전력을 다해도 200억 될까 말까 하는데 사활 걸지 말고.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한 트럭씩 돈 싣고 가면 되지. 여기에서. 개네들은 땅 팔기 싫으니까 5억.. 5년을 하는데. 아유. 이거는 우리가 인허가 내기 위해서 되게 좋아. 외피가. 그런데 인허가 빨리 되면 위에 하고 얘기해서 3년. 건교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데야. LH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못할 것 같냐? 이 대표? 그지?
그래서 하면 저거 괜찮아. 해볼 만한 데야. 도박을. 마지막으로 한번 남자
들끼리. 나는 괜찮다고 봐.
내 말을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봐. 아유, 뭐하러 사활을 걸어?
비싸게 판다고 그래도, 돈 있는 놈이 본전이라도 가져간다면 엄청 좋아할
거야. 응? 페널티 조항 달아서.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응?
조금 있으면 공기업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정영학

예.

김만배

응? 아니, 생각해봐.
그리고 시하고 얘기해서..

이성문

혹시 은수미 시장 재판 그런 이야기는 안했었어요?

김만배

그래 은수미 시장 재판은, 저건 100% 대법원에 가면 은수미 시장이 당선
무효일 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줄 거야.
그런데 그때 끝나고 나서 안을 내는 거지.
문제는 선거보조비용이 한 20억이 돼요. 그게 문제지, 저 양반은.
빨리 해야 돼.
이것도 한, 작은 것도 한판 힘 들어가고, 큰 것도 한판 힘 들어가는 거야.
스님은 내 맘을 잘 알더라고.

이성문

(웃음)

김만배

그래서 스님 그 할 때 같이 가자.

정영학

저 그날 약속이..

김만배

아유, 취소해. 니가 안 가면 안돼.

이성문

아니, 4월 10일날 그때 정 회계사님 약속 (...)

정영학 아유, 제가 선약이.. 골프 취소가 안되더라고요.

김만배 빨리 그거..

이성문 다른 분들 되시면 되겠죠.

여주씨회사 스님

김만배 그럼.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영학아, 니가 가야 돼.
하여튼간 취소해. 알았지?

정영학 예.

김만배 안하면 안돼. 취소해야 돼.
아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이 대표, 맞아, 안 맞아?

이성문 예.

김만배 음, 그래. 비밀이구나.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빨리 잔돈 받아.
차 어디 있어?

이성문 저기 주차장에.

정영학 저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만배 그래, 나는 이거 타고 갈게.

정영학 네, 네.

누누라과

누누라과

김 만 배 갑니다, 먼저. 미안해.

정 영 학 네. 들어가십시오~ (끝)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

누누라과